

# 建築士



K.I.R.A

vol. 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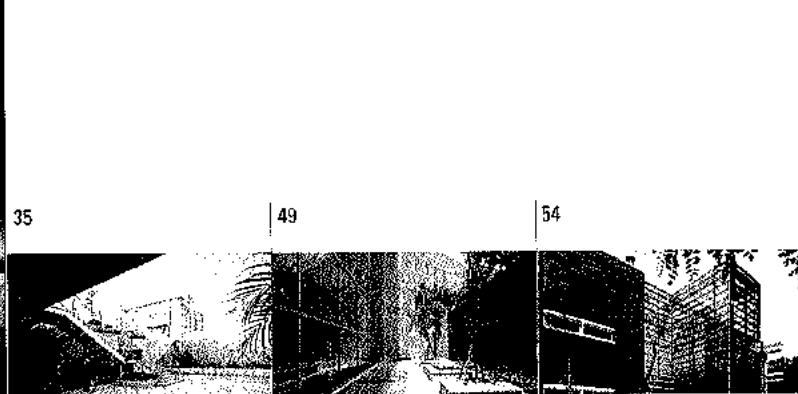
2002

LEADER





35



49

54

SS-HOUSE(민규암 作)

신년사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협회	우남용	12
<b>칼럼</b>	<b>진정한 건축사의 자존심</b>	김석환	14
<b>회원작품</b>	<b>SS-HOUSE</b>	민규암	18
	평택굿모닝병원	김영웅	26
	에이스 테크노타워Ⅲ	오근석·문호	32
	쇼핑몰 미라지오	김성곤	38
	대구 MBC	최관영	46
	도봉문화정보센터	유방근	52
	월강기념관	유건	56
<b>작품노트</b>	<b>은평구립도서관 - 안과 밖의 기록</b>	곽재환	60
<b>계획작품</b>	<b>미래산업(주)첨단연구소</b>	김상길·김희옥	66
	용인 공공도서관	김상길·김희옥	69
<b>기획연재</b>	<b>중국 건설시장의 현황과 전망(3)</b>	안길원·조민석	72
<b>기고</b>	<b>건물에너지성능인증제도 도입 및 시행</b>	박효순	78
<b>건축만평</b>		유원재	86
<b>건축마당</b>	<b>건축계소식</b>		87
	해외잡지동향		91
	현상설계경기		96
	세무안내		114
	신기술 신자재		119
	2001년 총 목차		120

발행인: 우남용

편찬분과위원장: 위원장 / 박영식

위 원 / 김석환, 김수경, 목대성, 최동규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스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E-mail: [korea@kira.or.kr](mailto: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Newyear Address**

An Institute that Gives Out Practical Assistance	Woo Nam-Yong	12
--	--------------	----

**Column**

The Real Pride of the Architect	Kim Suk-Hwan	14
---------------------------------	--------------	----

**Works**

SS-HOUSE	Min Kyu-Am	18
Good Morning Hospital	Kim Young-Woong	26
Ace Techno Tower III Apartment-Type Factory	O Kun-Sok & Moon Ho	32
Shopping Mall Mirageo	Kim Sung-Gon	38
Daegu MBC	Choi Kwan-Young	46
Tobong Media Library	You Bang-Keun	52
Wolgang Memorial Hall of Chungcheong College	Yoo Geon	56

**Design Note**

Eunpyeong Library - Inner and Outer Record	Kwak J-Hwan	60
--	-------------	----

**Process works**

Mirae High Technology Research Center	Kim Sang-Gil, Kim Hee-Ok	66
The Public Library of Yongin	Kim Sang-Gil, Kim Hee-Ok	69

**Serial**

The Present and Prospect of Construction Market in China	Ahn Gil-Won & Cho Min-Seok	72
--	----------------------------	----

**Feature**

Introduction & Enforcement of Building Energy Rating System	Park Hyo-Soon	78
---	---------------	----

**Cartoon**

Architects' Plaza	Yoo Won-Jai	86
-------------------	-------------	----

**Architects' Plaza**

Archi-Net	87
-----------	----

**Overseas Journal**

Competition	91
-------------	----

**Taxation Business**

New Materials	96
---------------	----

**2001 Annual Index**

114
-----

**2001 Annual Index**

119
-----

**2001 Annual Index**

120
-----

Publisher: Woo Nam-Yong

Editorial Member : Park, Young-Sik, Kim Seok-Hwan, Kim Soo-Kyeong, Mok Dae-Sang,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협회

### An Institute that Gives Out Practical Assistance

우남용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Woo Nam-Yong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모든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빌며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건대, 건축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의 목표대로 많은 성과를 얻었던 한해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원 여러분의 만족感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작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향설정한 것을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게끔 실행에 옮기는 한해가 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지난해 이루어졌던 성과를 토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불합리한 건축법령 개선에 목표를 두고 건축법과 관련된 당면 현안문제에 있어서도 건축사의 권익옹호와 생존권보장 차원에서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의 온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본 협회가 목표로 하는 불합리한 건축법령과 제도개선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애정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측하건대, 금년 한해에도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회원 여러분께서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는 여전히 낮고, 회원 여러분의 사무소의 운영 또한 매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원해 주셔야만 위기에 당당히 맞서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본 협회는 유난히도 어려웠던 지난 한해 회원 여러분이 겪으셨을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금년에는 회원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 새출발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밝은 내일을 위하여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올 한해 회원 여러분 사무소의 번영과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하며, 이만 신년인사에 갈음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圖

## 진정한 건축사의 자존심

### The Real Pride of the Architect

김석환 / 터·울건축사사무소

by Kim Suk-Hwan

필자가 89년도 건축사 시험에 합격되면서 가장 반기웠던 말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먹고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들은 것이다. 진정한 건축을 추구하는 의미와 거리가 면 우스개 소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속으로는 남이 기대하는 것보다 욕심 덜 부리고 지탱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하고 생각했었다.

필자가 실무를 배우고 응시 조건에 맞는 경력을 쌓아 갈 즈음의 분위기로 보면 건축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언젠가 한 해는 13명만 뽑을 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필자가 속했던 설계실의 훌륭한 선배들이 시험에 여러해 떨어지고는 설계가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건축설계의 능력을 다 검증해 보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격을 갖춰야 건축적 저작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으니 건축가의 길에서 낙오치 않고 나아가기가 참으로 험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필자는 건축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 꼭 건축사가 되고 싶었다. 그만큼 절실히 여겼던 덕분인지 첫 시험에 합격했고 시험의 스트레스로부터 일찍 벗어나게 된 것이 좋았다. 필자의 친구들 가운데는 훨씬 늦게까지 그 스트레스를 받다가 늦게 취득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 후 선발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 건축기사 시험 같다느니 하는 말도 나왔지만, 어쨌든 건축사 자격이 법적 뒷받침을 갖는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효력을 지니고 있고, 그에 상응한 건축관계자의 인식도 사회적으로 자리잡고 있기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면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겉으로 잘 표현하지는 않지만 회원들 마음 안에서부터 어려운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생업으로서의 자신감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듯 하다. 수입면에서 볼 때 여러 직업 가운데 평균소득이 아주 낮은 형편일 것이다. 수입의 과다를 먼저 해야하는 것이 본질과 다른 의미일지라도 어쨌든 직업인으로서 건축사의 형편이 어렵게 변한게 분명한 듯 하다. 회원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럼없이 삶의 태도로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 형편이 그런데도 회원명부를 보고 보낸 듯 골프회원권을 사라든지, 콘도 회원권을 사라든지 기타 투자 정보를 알려오는 우편물이 많다. 그것을 보면 외부에서는 아직 건축사가 처한 어려움의 속내를 모르는 듯 싶다. 또 언론에서는 가끔씩 싸잡아 고소득 전문가로 분류하며 오히려 보험료라든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 어려워진 건축설계 여건의 변화를 대하면서도 생각의 차이에 의해 인식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가도 본래 화가와 같은 예술가의 길이니 본래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자조한 느낌도 덜해질 것이다. 유럽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한 인식 속에 건축가가 자신을 뜻을 세우고 일해 온 풍토였다고 한다. 관점은 달리해서 건축가도 화가와 같이, 자신이 하고 싶어 택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왜소한 느낌도 많이 완화될 것이다. 건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기에 순수한 열정에 사로잡힌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현실에 임하면서 건

축을 잘하고 싶은데 사회인식이 따라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사회의 인식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못마땅한 현실에서 부대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꼭 그 때문만은 아니며, 어느 샌가 슬그머니 현실 속에 안주하여 왜소해진 자신들을 발견하는 것일 수 있다.

이 땅에 자취를 남긴 예술가들 가운데는 자신의 예술을 추구하기 위해 가난을 마다하지 않은 이들이 많았다. 화가 박수근 선생의 딸 박인숙은 「아버지의 65년 사후에, 70년대를 지나면서 아버지의 그림 값이 치솟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림 하나가 웬만한 집한채 값이라는 예기도 들었습니다. … 일생을 통해 아버지가 벌었던 돈보다, 당신의 그림 몇 점이 더 많은 돈과 교환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만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버린 몽당연필로 그런 아버지의 스케치 한 장이 아버지가 그토록 야끼고 원하시던 유화물감을 얼마든지 사다 놓으실 수 있는 값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아버지가 그린 그림의 예술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돼 교화가치로만 따질 수는 물론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웬지 자꾸 섭섭해집니다. 왜 아버지는 생전에 그 편찮은 몸을 단지 돈이 없어서 택시를 타실 수 없었고 항상 힘겹게 끌고 다니셔야 했는지요.」…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 그 그림 한 장 값을 받았으면, 종이 살 걱정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렸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눈시울을 적신 적이 있었다. 또 고호는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지만, 그것을 생계 수단과 결부해 본다면 주문 없는 일방적인 생산인 셈이다. 그러나 팔리지 않았지만 그 작품에 대한 평가는 어느 순간으로 단정할 수 없었다. 1987년과 1990년에 그의 그림이 세계 최고의 그림 값을 세번이나 연거푸 간신히했다. 그러나 결과가 그런 것이지 어쨌든 작가가 생전에 돈을 의식하고 하는 일일 수는 없었다.

일본 우에노 공원에 있는 서양미술관에는 근대화화의 걸작이 많다. 그런데 그 그림들은 마쓰카타(1865~1950)라고 하는 한 개인의 열정에 의해 수집된 것인데,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저으기 놀랄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림들은 2차대전 중 프랑스의 창고에 숨겨져 있었지만 종전 후에는 압수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일본국 전권 대사 요시다 시게루는 프랑스 전권대사에게 마쓰카타 컬렉션을 돌려 받고 싶다고 했고, 국제교섭의 무대위에 올려져 절충을 거듭한 우여곡절끝에 몇 점을 빼고 일본에서 돌려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반환 조건을 달았다. 첫째 그 미술품을 수장하고 전시함에 어울리는 미술관을 지을 것, 둘째 그 미술관은 프랑스 정부가 추천하는 건축가에게 설계를 위촉하고 프랑스 정부 관리가 감리토록 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 조건의 이행 과정에서 프랑스 정부는 설계자로 르 고르뷔제를 추천하였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르 고르뷔제의 건축작품이 남아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설계한 서양미술관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 이상으로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르 고르뷔제는 건축주 입장에서 볼 때 까다롭기로 유명하였다. 일을 진행하다가도 트러블이 많아서 계속 맡지 못한 때도 있었다. 뉴욕의 국제 연합빌딩의 초안도 그가 만들었으나,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렵다며 시양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작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평생 자신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만을 만들려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역사상 건축은 숭고히 여겨져 왔다. 좋은 건축은 결국 먼 훗날까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왔다. 채석장의 돌은 그냥 돌일 뿐이지만, 작가의 손에 조각되면 그것은 원석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띤다. 모든 건축도 그와 마찬가지로 작가에 의해 한낱 건축자재가 아닌 생명력을 띠고 태어나는 정신의 산물인 것이다. 그런데 이 시대 건축설계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아쉬운 풍토에 처해 있다. 현실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건축주들이 직접 설계자를 찾아 의뢰하기 보다, 이른바 건축업자에게 달려가는 풍토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업자들이 여기저기 설계사무실에서 가설계를 받아본다고 한다. 가설계란 계획설계를 말한다. 계획설계는 눈에 드러나 보이는 성과물을 적어 보일지라도, 설계과정중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다. 창작이 중요한 것이기에 시장 원리로 보아도 등당 제대로 돈을 받아야 한다. 밖지에 무엇인가를 그려 넣으면 그것은 작가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에 건축사의 자존심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훌륭한 성과물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계약하기전 할지 안할지 의구심을 가진 상태에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소홀히 그리다 보면 훌륭한 성과물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소홀히 그려준 도면은 결국 건축사들의 자존심을 깎게 된다. 따라서 현실에서 가설계라는 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건축사들이 돈을 받기 전에 도면을 그려 주지 말아야 한다. 계약을 한 후 일이 진행되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건축사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장르를 떠나 모든 예술가의 작품은 작가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필자는 건축에 입문할 즈음 부르노 타우트가 쓴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감명깊게 읽은 기억이 있다. 원래 제목은 건축에 대한 <고찰>이었다. 그 책 뒤에는 그의 일기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나는 이 글을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이다. 내가 어느땐가 죽게 되면 유고로 될 것이다. … 내가 25년전에 지금과 같이 고찰하고 반성하였다면 그 후의 내 경력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고 했다.

진정한 인간의 격은 신분으로서의 구분이 아닌 스스로 설정한 인간상에 걸맞게 되는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 과거에 선비들이 그랬듯이 부단히 자신을 연마해야 할 것이다. 우리 건축사들도 스스로 세웠던 작가적 사명을 되새기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좋은 건축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건축사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대중이 인식할 때 우리의 역할이 뜻대로 되어지는 풍토가 뿌리내리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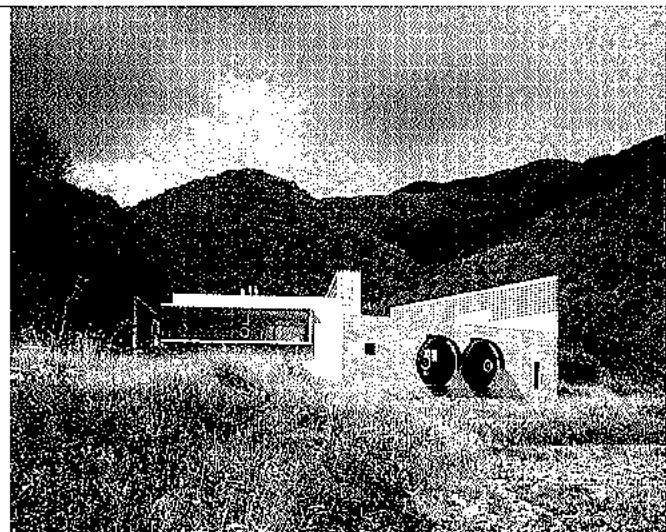
# SS-HOUSE

## SS-HOUSE

민규암 / 토마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Min Kyu-Am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787.00m <sup>2</sup>
건축면적	196.80m <sup>2</sup>
연 면 적	219.26m <sup>2</sup>
건 폐 을	25.01%
용 적 률	27.86%
규 모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1층(별채)
구 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내부마감	비단-대리석, 벽·천장-석고보드위 백색락카
외부마감	노출 콘크리트 + 시멘트 블록
설계기간	2000. 3 ~ 2000. 9
공사기간	2000. 9 ~ 2001. 7
시공회사	상진 건설
인테리어	레스빠스
사 진	건축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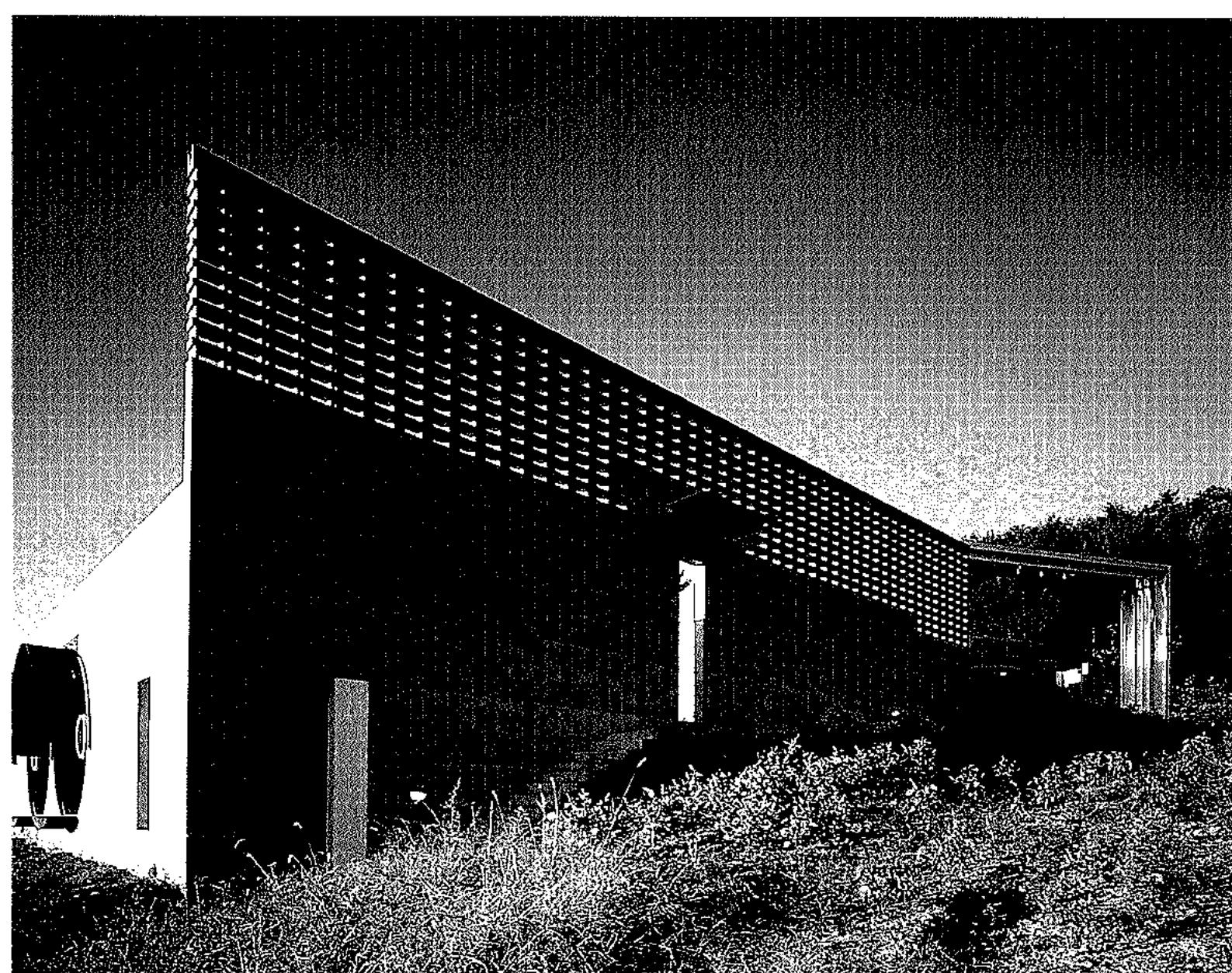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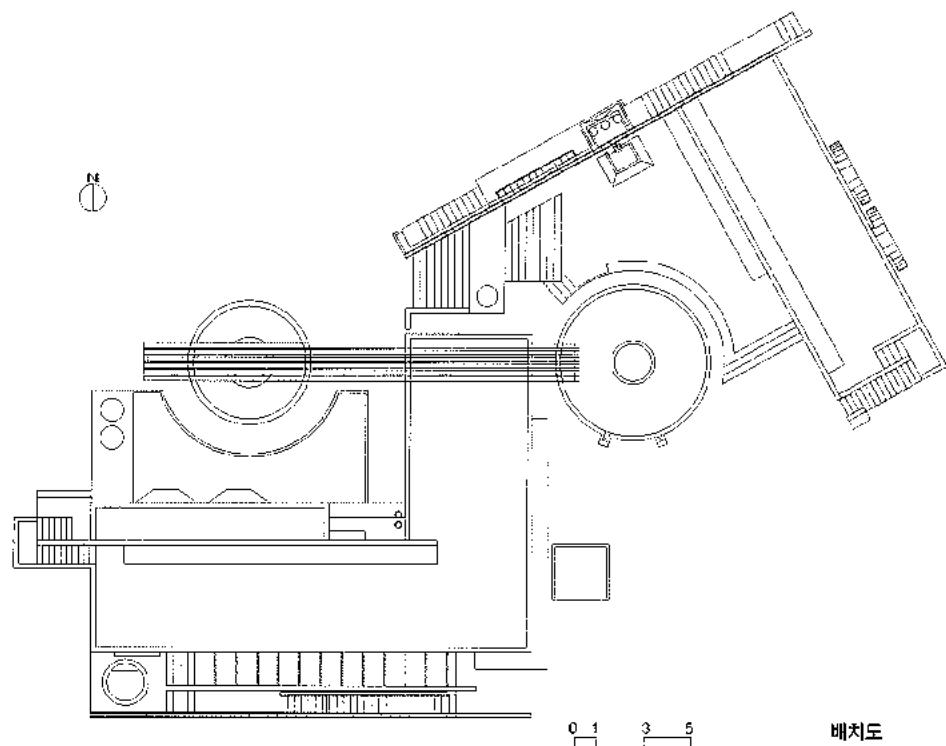
개인적으로 한국 전통 주거 건축중 가장 좋아하는 두 작품을 들어 보리면 독락당과 향단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은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다른 느낌으로 주거에 접근하고 있다. 독락당은 전체적으로 넓은 대지에서 각 건물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관계를 설정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지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져 있다면 향단은 전체대지를 일단 담장으로 광범위하게 정리하고서 그 내부에 자신만의 자기완결적인 공간구조를 갖는 주택을 배치함으로써 좀더 내부 지향적인 구조를 완성 시키고 있는 듯이 보인다. 결국 향단은 매우 특이한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고, 처음 향단을 방문했을 때 지금까지 보아 온 조선조 주택과는 너무도 다른 형태에 큰 매력을 느꼈다. 반면에 독락당 같은 대다수의 경우는 어떤 특정한 건축형태를 만들기보다는 약간은 단조로운 형태들을 반복시키면서 형태보다는 전체적인 배치에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드는 주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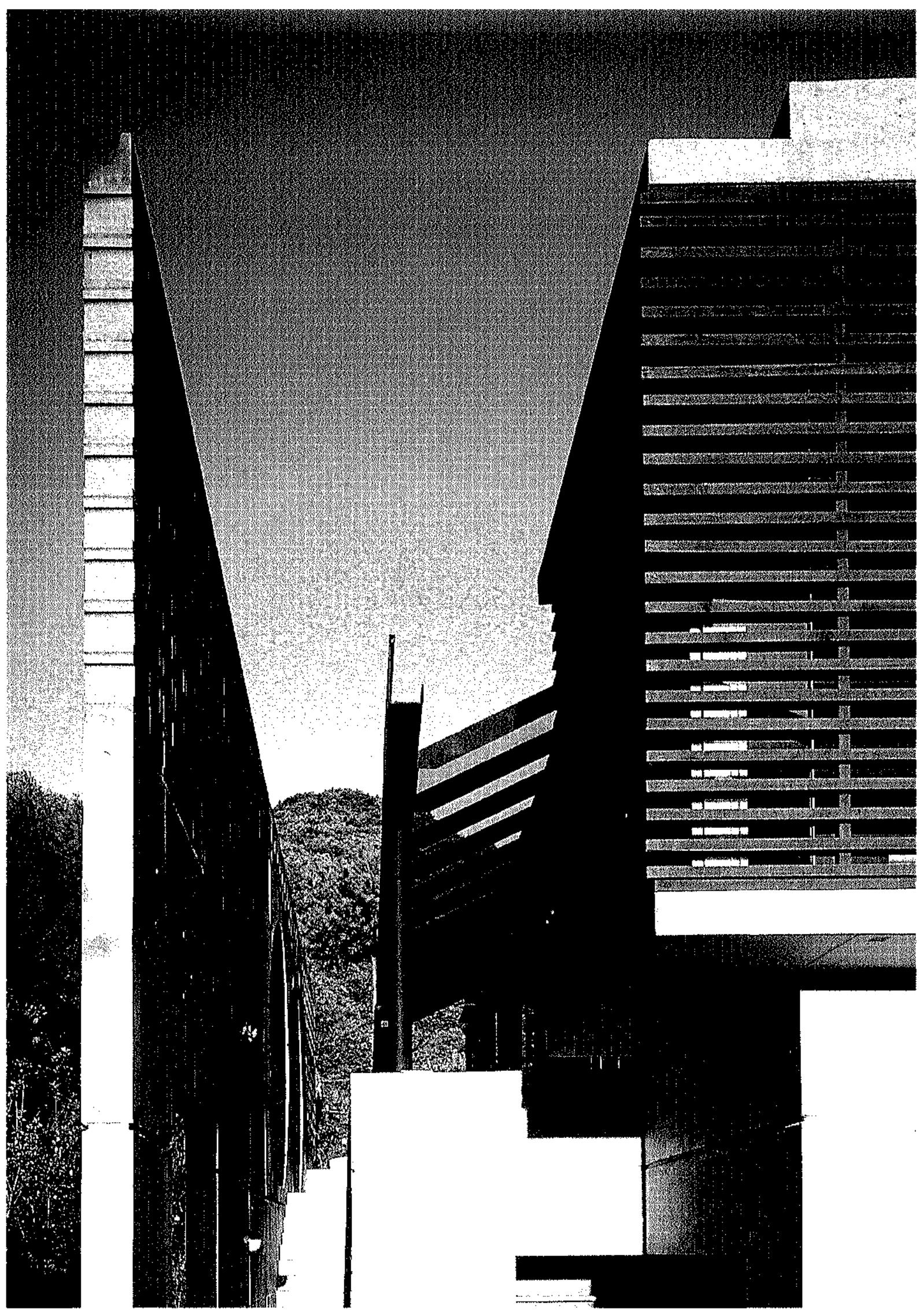
SS HOUSE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의 주거 계획안으로 최초의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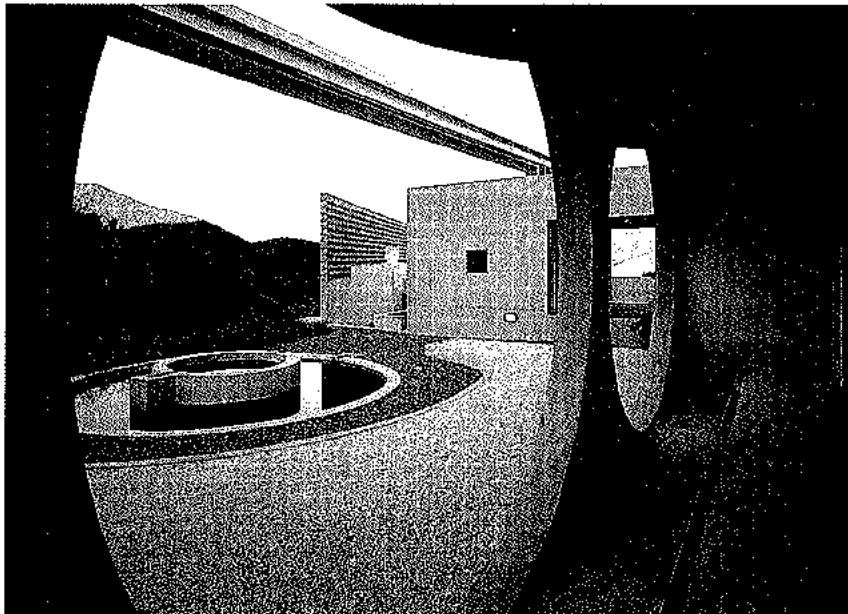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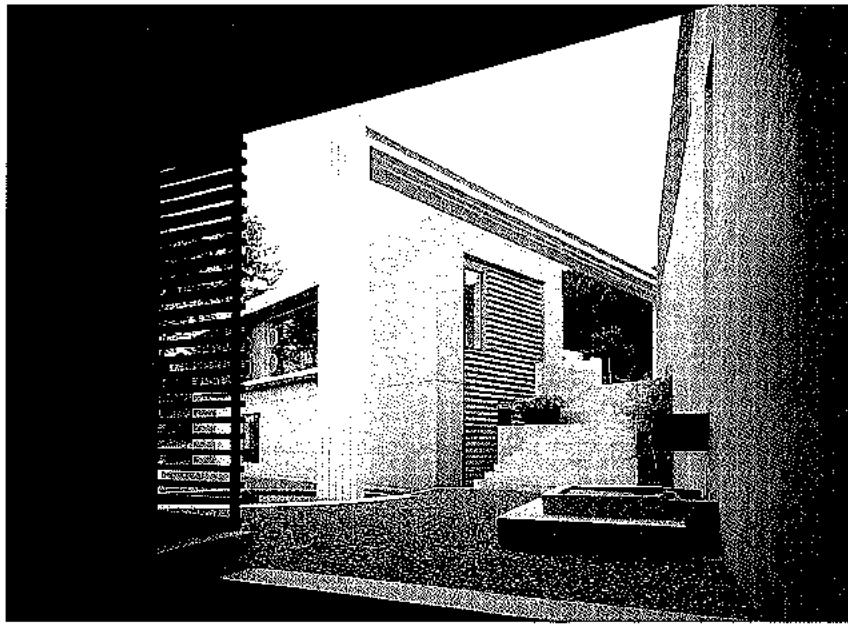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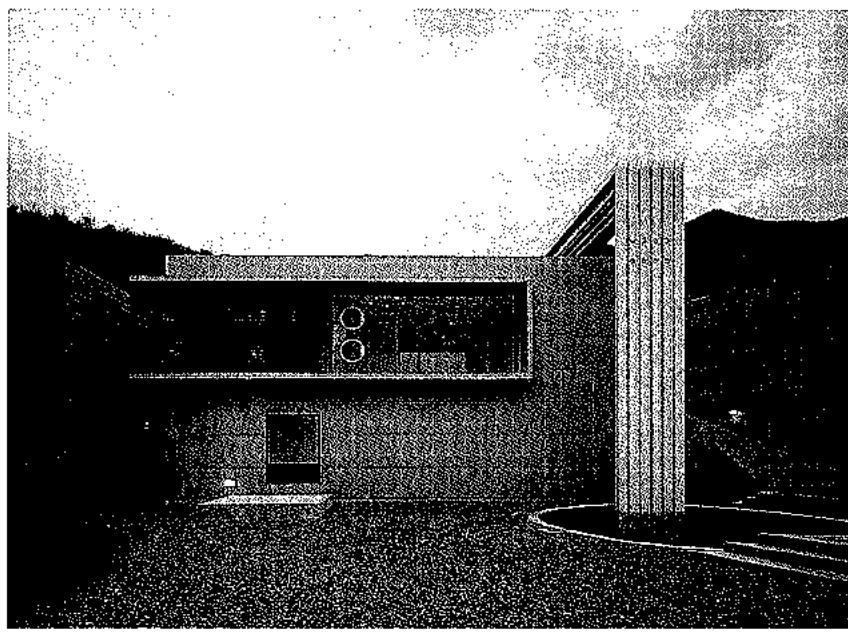
계 단계에서 매우 망설인 부분은 사실 독락당이나 아니면 향단이냐 하는 어떤 선택의 문제였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을 더 선호하고 어떤 것을 덜 선호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글쎄 도대체 이 주택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처음으로 설계 했던 주택인 한호재에서 그 모델을 삼은 것은 매우 명확히 독락당이었고 결국 배치가 중시되고 또한 그 전체적인 질서체계에 중심을 두는 주택을 설계해 보고자 했다. 반면에 두 번째로 설계를 진행시킨 첨성재에서는 그 모델을 한번 바꾸어 보았다. 그것은 독락당이었다기 보다는 향단 같은 좀더 내부질서에 충실히면서 외부와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주택으로써 결국 좀더 독특한 형태적 외관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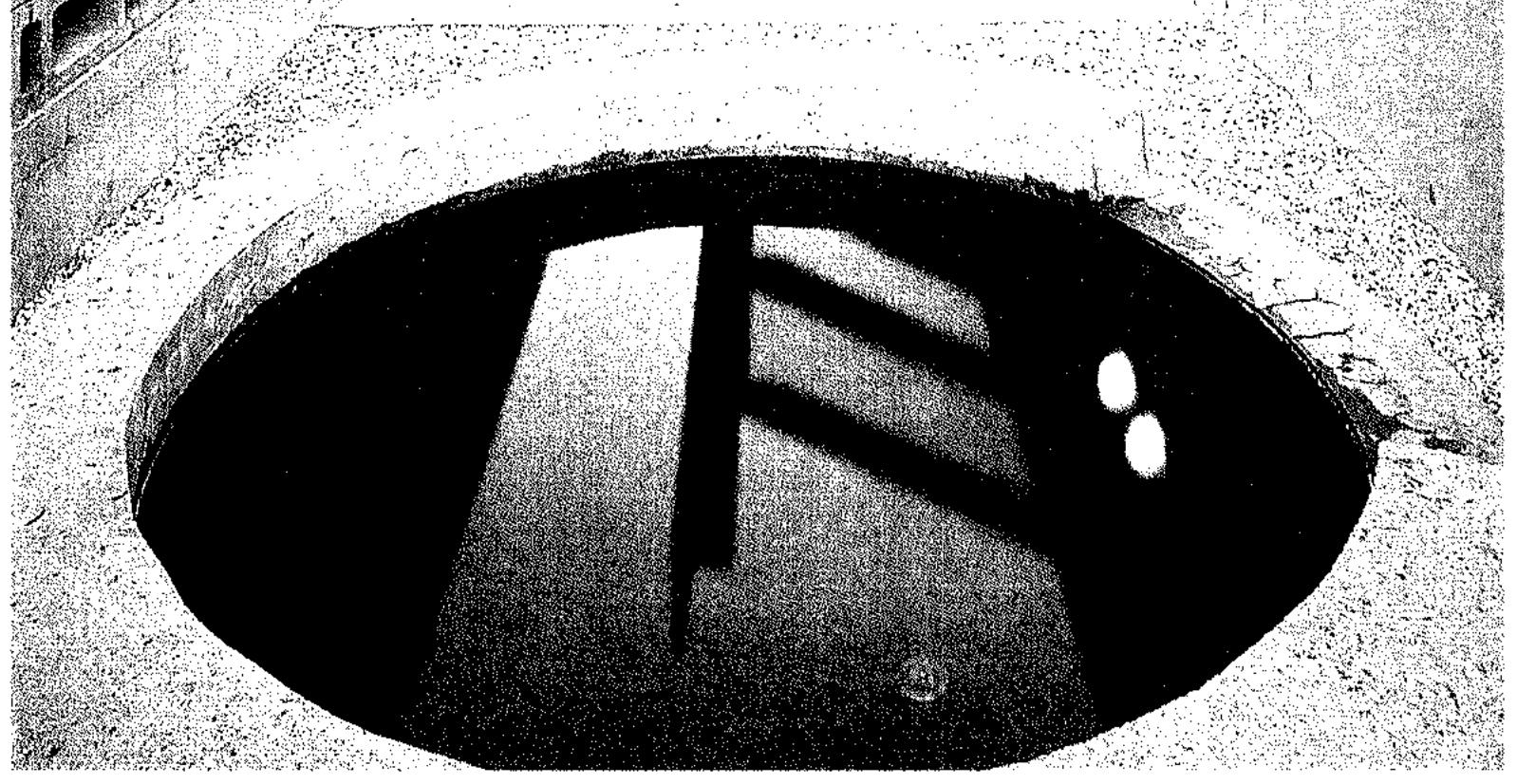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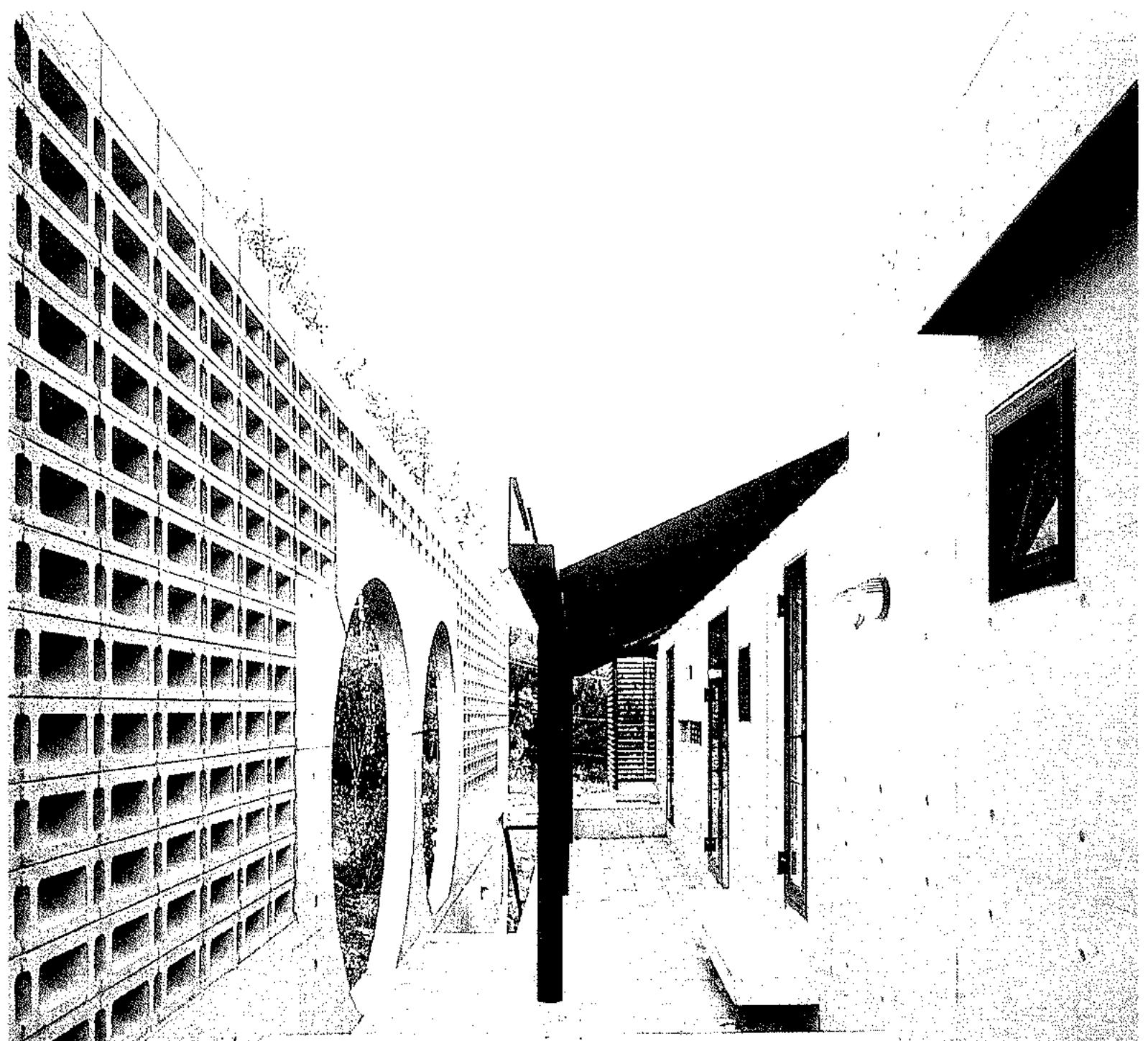
SS-HOUSE는 사실 어떤 특정한 모델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지 못했다. 만약 독락당과 향단 외에 또 다른 개인적 취향의 모델이 하나 더 있었더라면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고자했겠지만 그렇진 못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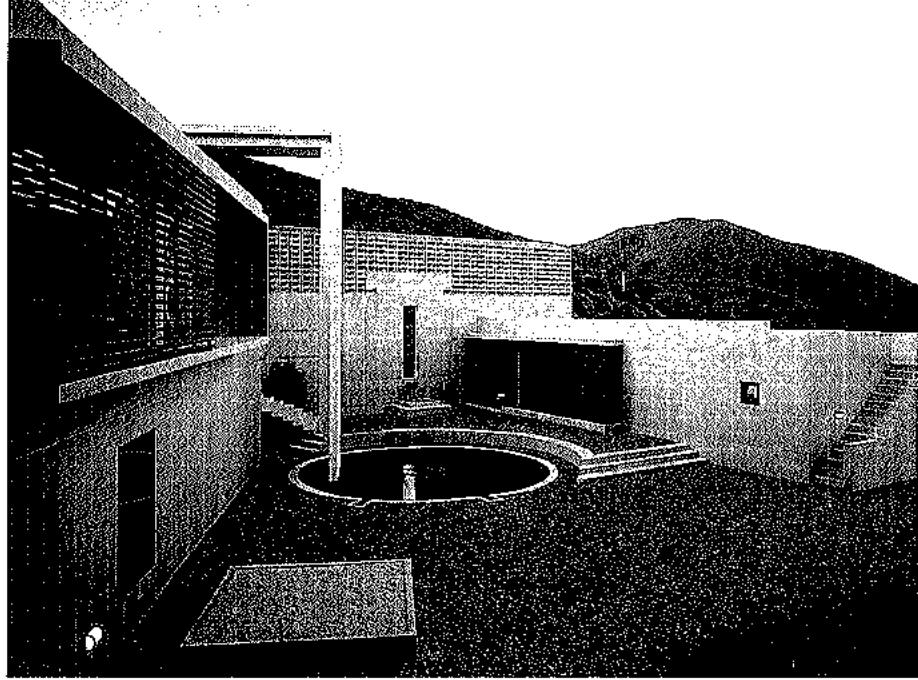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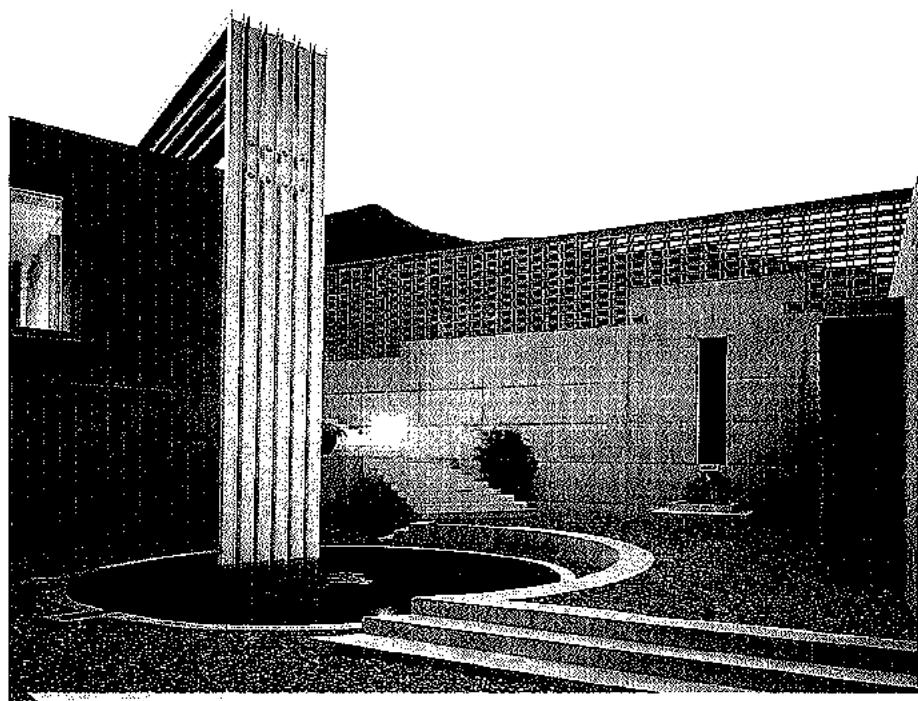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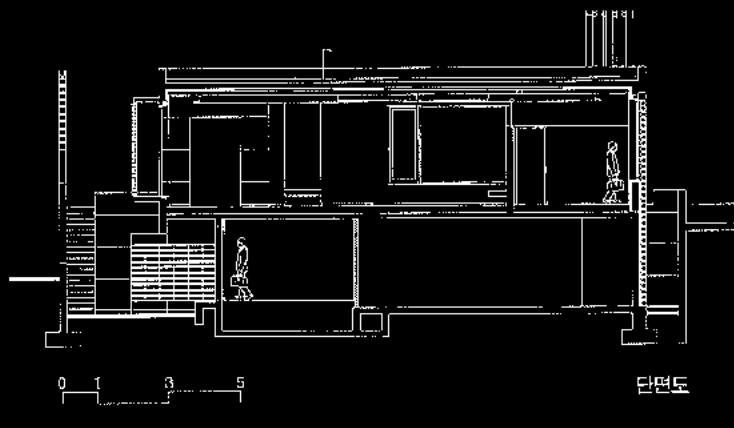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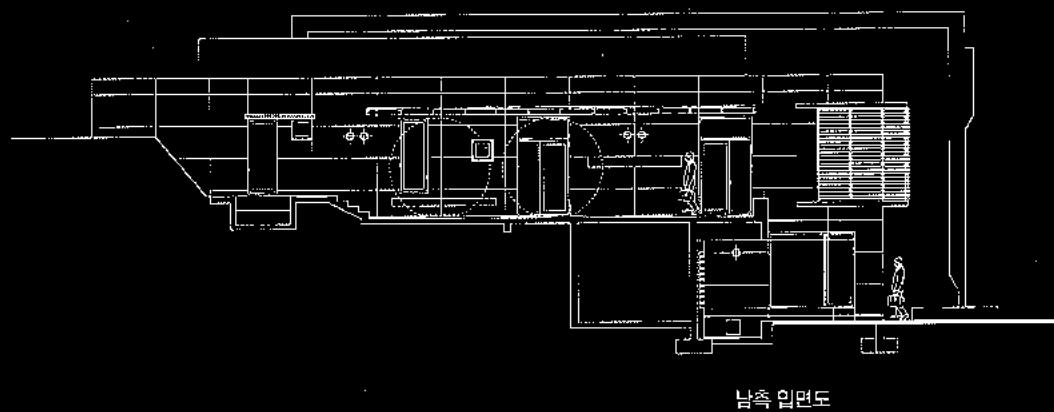
다. 꼭 모델을 한번 대어 보라며 차리리 화엄사 같은 연속적인 공간질서를 차례로 경험하게 만드는 한국의 사찰 공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집의 경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왜 집의 이름이 SS HOUSE인가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집이 S자형의 연속적인 접근체계를 위해서 또 하나의 S자형 건축구조가 나란히 놓여진 형태로써 전체적인 집의 구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결국 이 집을 특징짓는 가장 강력한 생각은 접근자가 하단부터 직경 6m의 연못 공간 주위를 맴돌면서 별채공간을 통과하고 다시 공간의 결절점에 존재하는 계단을 오르고 다시 상단부의 공간에서 다시 작은 연못을 만나서 S자 움직임의 최종적인 동선을 마무리하면서 저절로 산속을 바라보면서 자연에 몰입하게 한다는 점일 것이다. 결국 꼭 어떤 한국의 사찰공간을 모델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미처 연속적인 긴 접근체계 속에서 어떤 정신적인 승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의 사찰공간과 비슷한 성격이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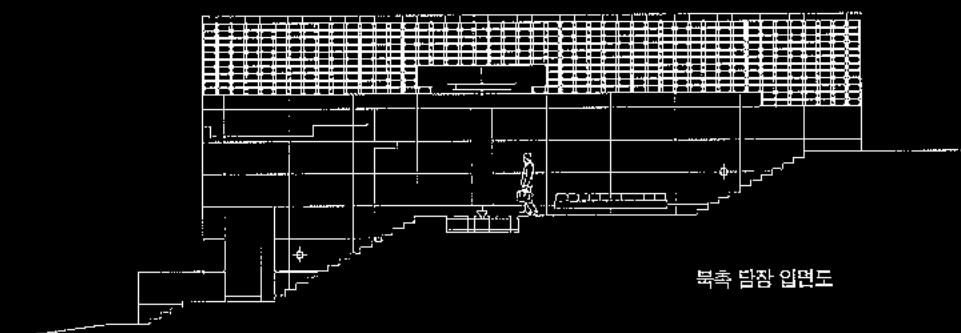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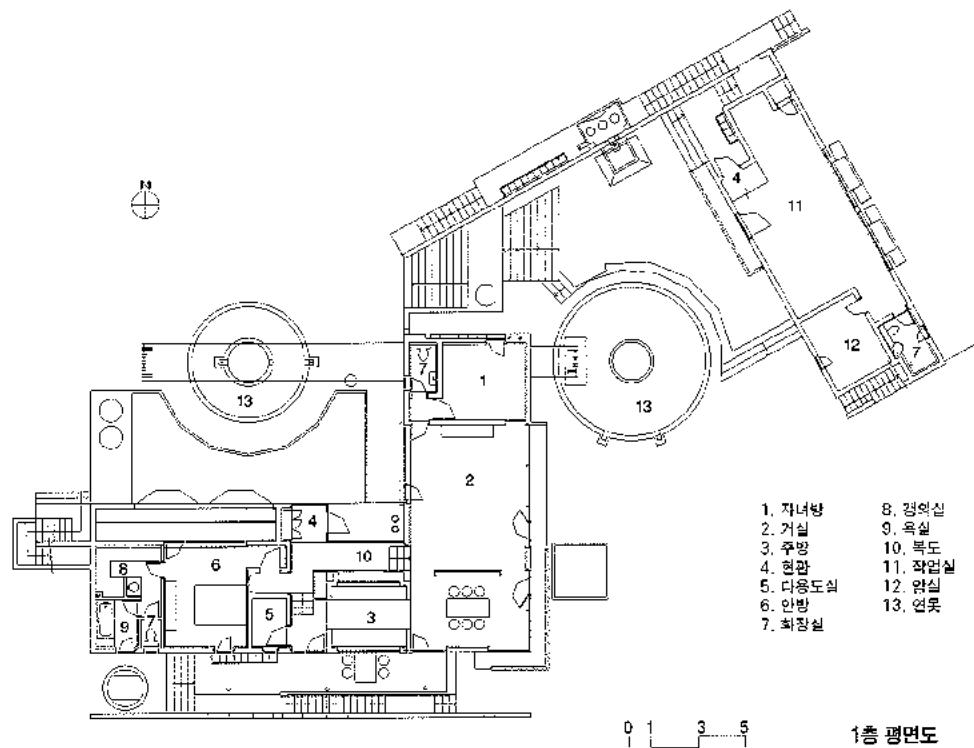
단면도



남측 입면도



북측 입면도



1층 평면도



# 평택굿모닝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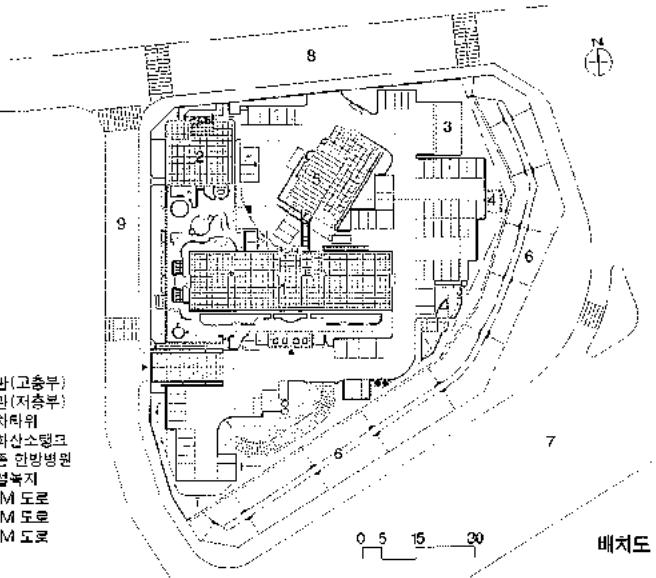
## Good Morning Hos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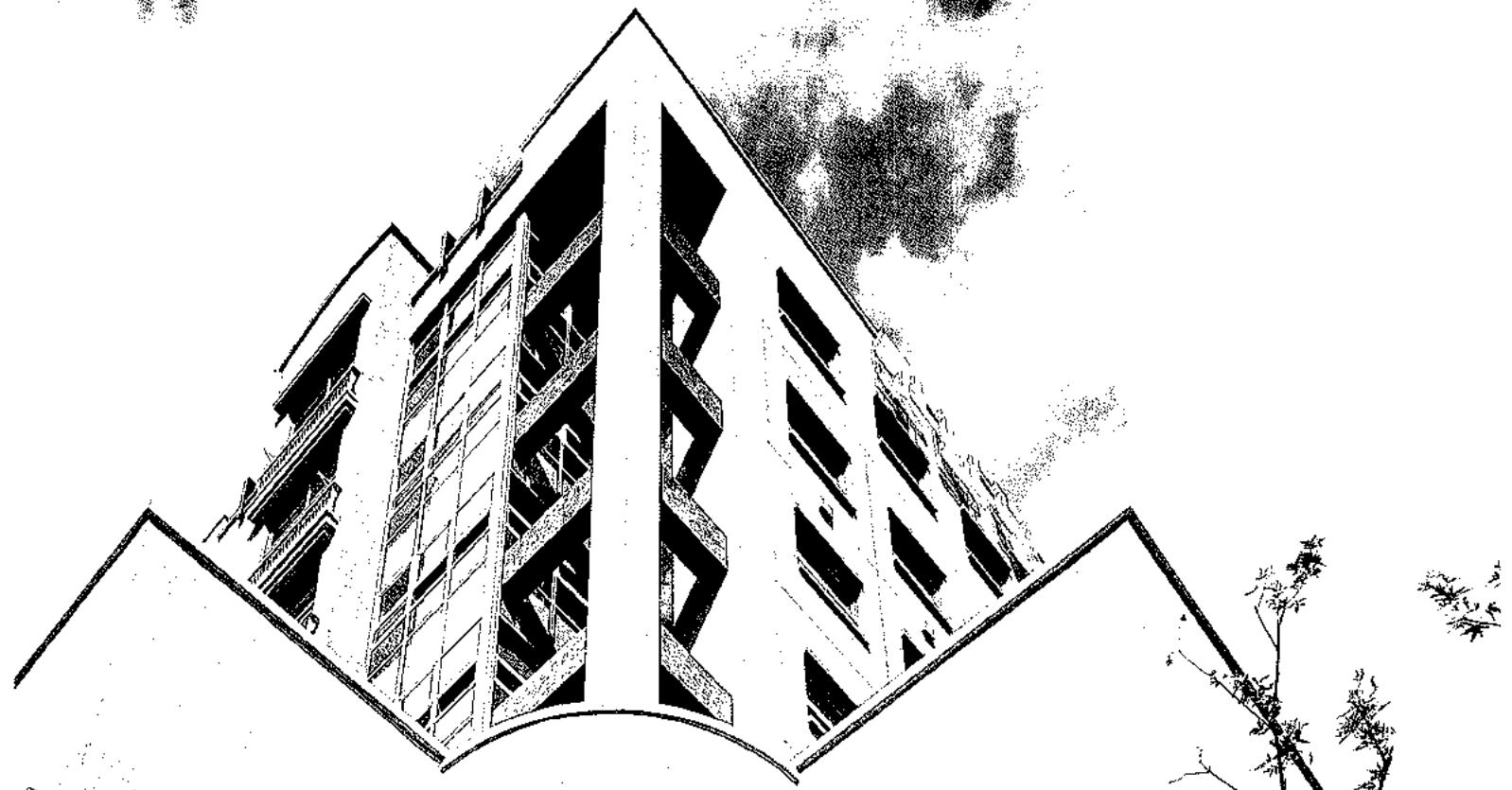
김영웅 / (주)진원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Young-Woong

###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83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상세계획구역  
용 도 종합의료시설  
대지면적 7,991.10㎡  
건 폐 율 32.33%  
용적률 162.71%  
건축면적 2,114.21㎡  
연면적 19,341.54㎡  
규 모 지하2층, 지상9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사 진 건축사 제공

1. 본관(고층부)
2. 별관(저층부)
3. 주차리워
4. 액화산소탱크
5. 기존 한별병원
6. 사설녹지
7. 35M 도로
8. 25M 도로
9. 15M 도로





### 계획의 목표

경제적 성장과 함께 요구된 삶의 질적 향상 요구로 기존의 기능적 기술적 해결방법을 수용하면서 치유환경과 서비스 지향의 환자중심의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공간구성이 되도록 하였다. 직원들에 대한 쾌적한 균무환경을 조성,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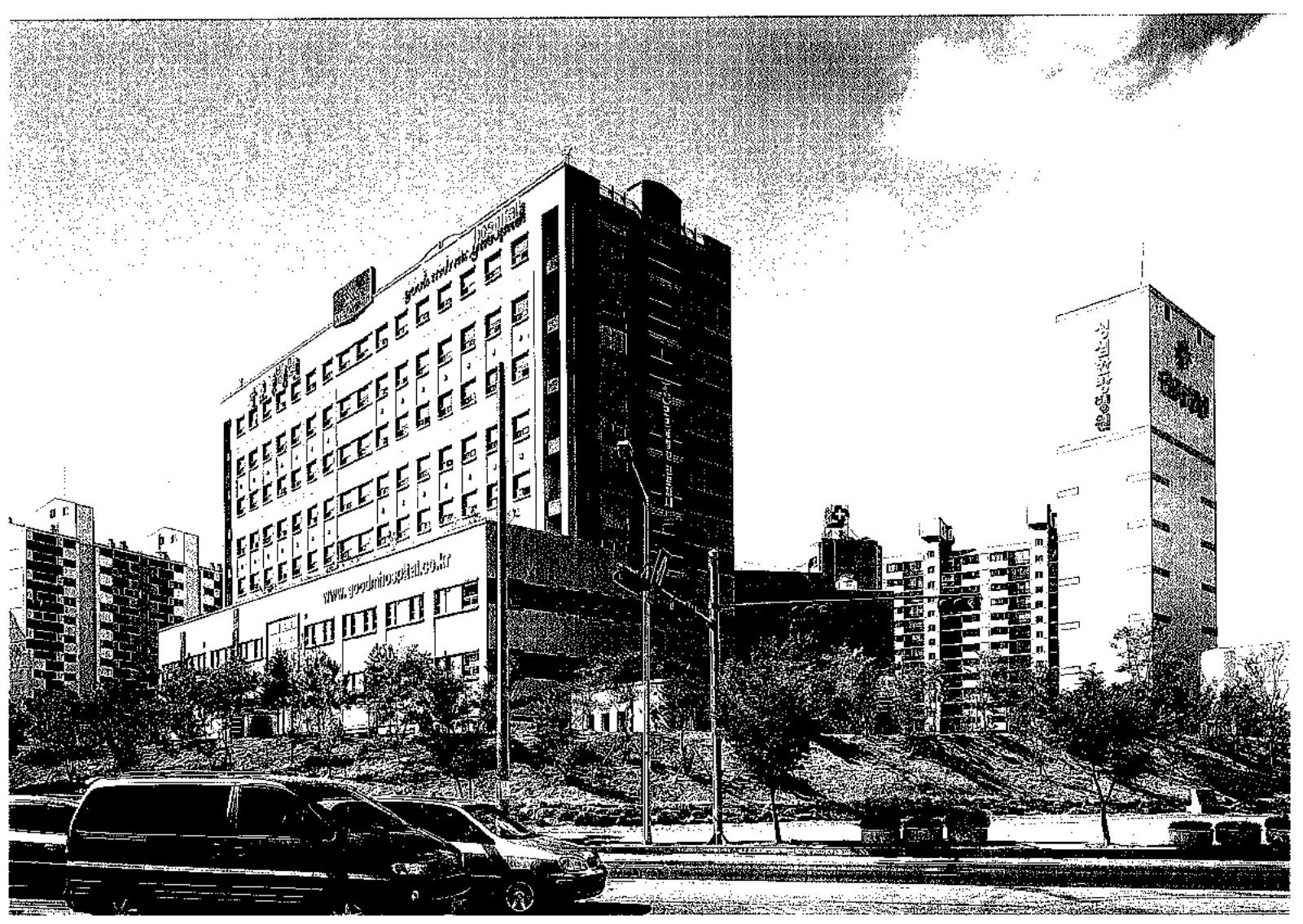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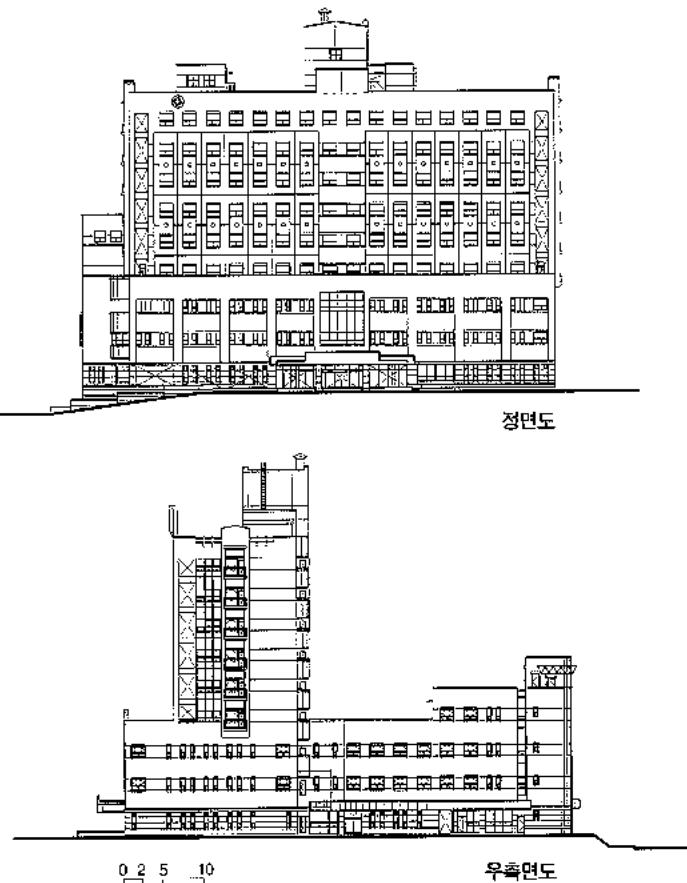
### 배치계획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입지특성을 고려, 주변 Context를 적극수용하며, 부정형 대지형상과 기존 한방병원과의 간섭 을 최소화하면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부여하는 배치 형태를 고려했다.

### 입면계획

기존 건축적 환경에 융화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조형 미를 추구하였다.

경제성과 유지관리 특성을 고려 저층부와 고층부를 적절한 비례로 분리하여 미감재를 사용하고 병동부에서는 병실내 체광과 시야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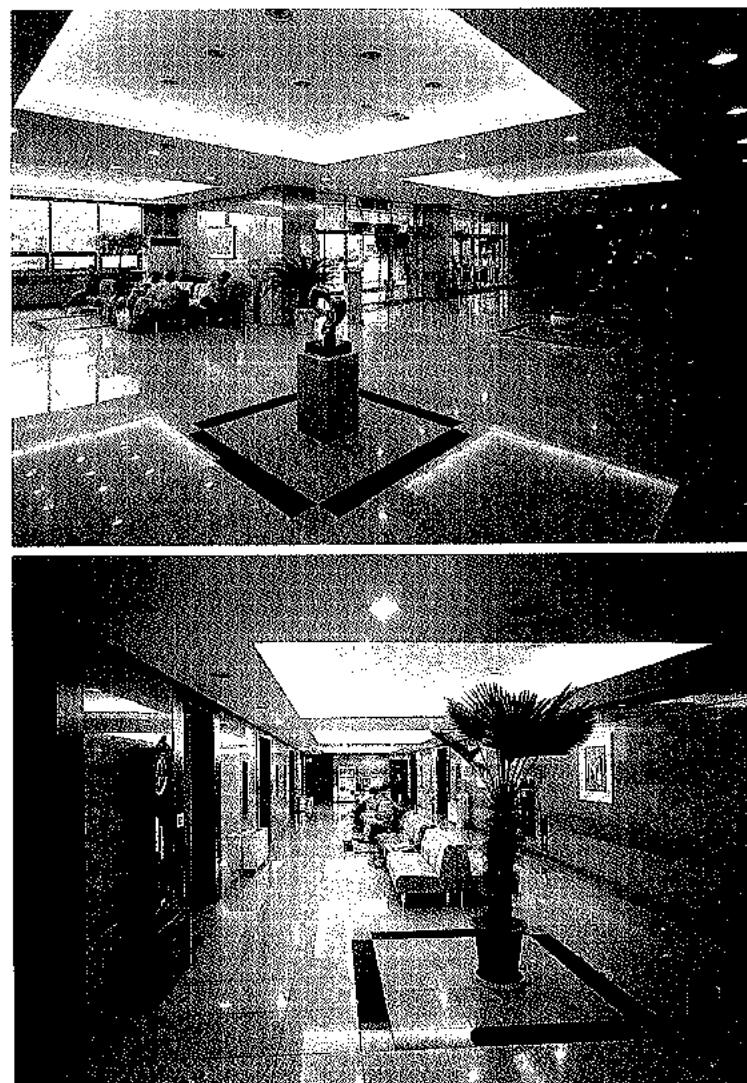


###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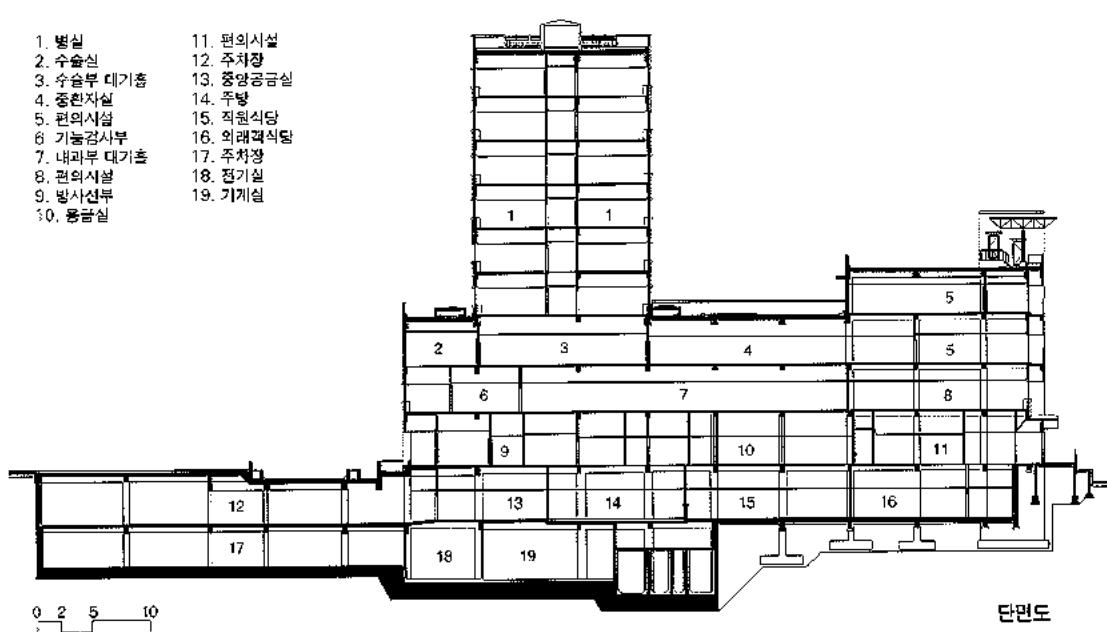
입원환자의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적절한 공용부분을 확보하고, 융통성 있는 공간구성으로 추후 기능별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고려하였다. 응급부 및 영안실 등 별도의 등선체계를 주어 기능별동선의 분리 및 연결로 인한 효율적인 공간사용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기존 한방병원과의 연계를 고려한 최단동선을 확보하고 환자동선단축, 대기와 진료시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도록 공간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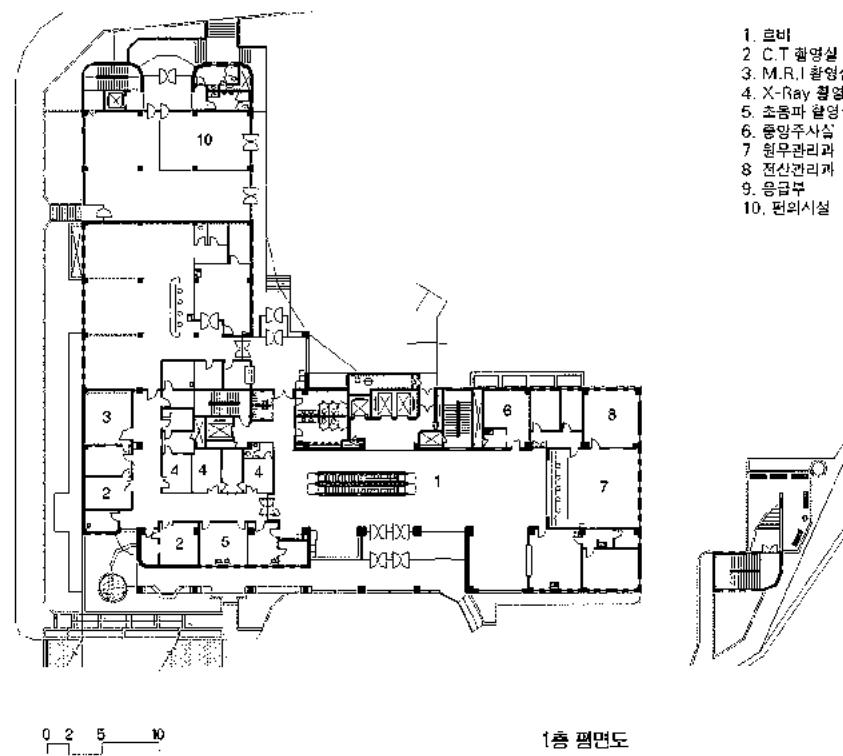
### 색채계획

외부는 청결과 위생적인 이미지의 청색계열의 색채 배합으로 병원의 신뢰를 확보하고 내부에서는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따뜻하고 쾌적한 느낌의 색체를 사용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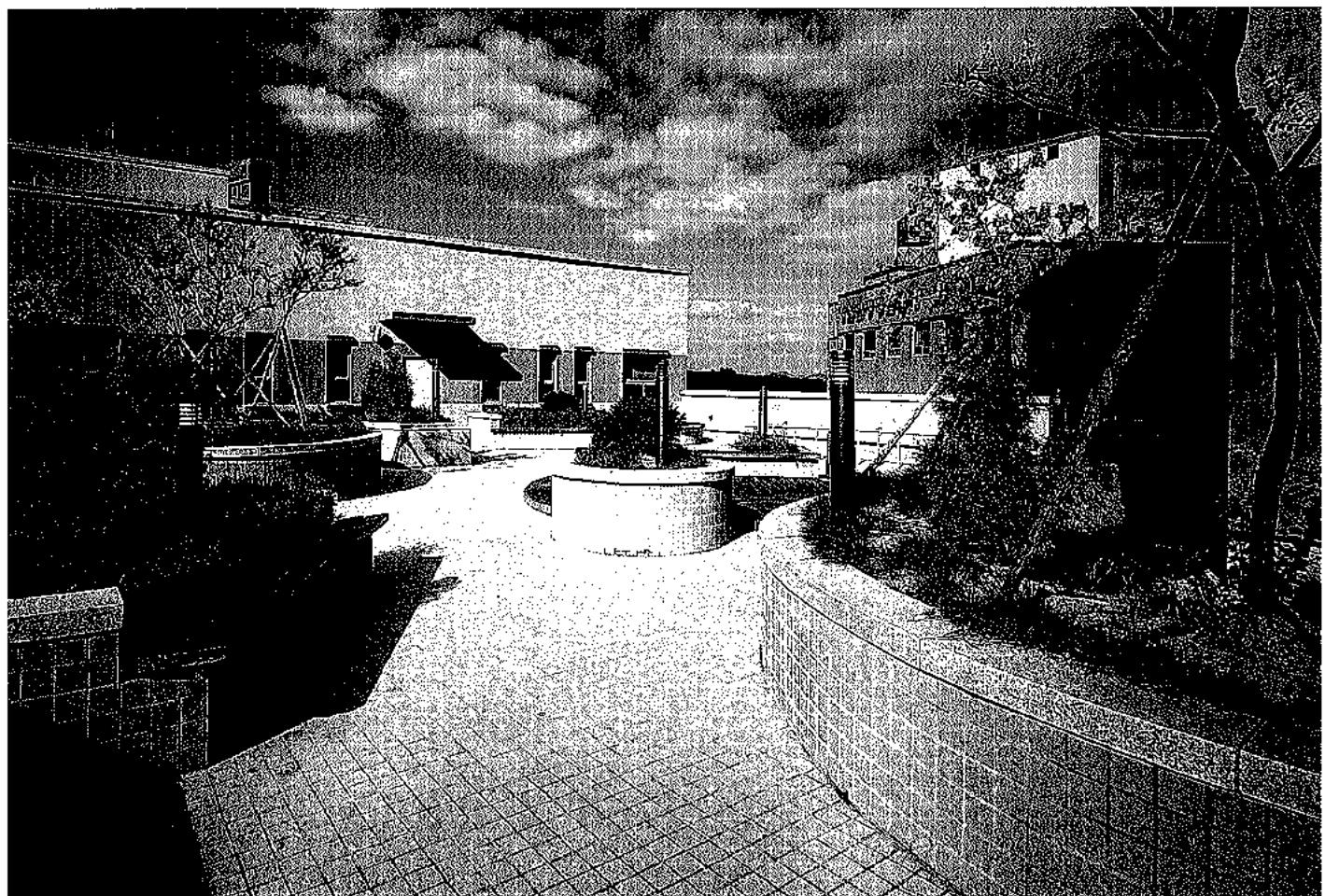
- |            |           |
|------------|-----------|
| 1. 병실      | 11. 편의시설  |
| 2. 수술실     | 12. 주차장   |
| 3. 수술부 대기홀 | 13. 중앙공급실 |
| 4. 중환자실    | 14. 주방    |
| 5. 편의시설    | 15. 직원식당  |
| 6. 기능검사부   | 16. 의약품식당 |
| 7. 내과부 대기홀 | 17. 주차장   |
| 8. 편의시설    | 18. 정기실   |
| 9. 방사선부    | 19. 기기실   |
| 10. 통급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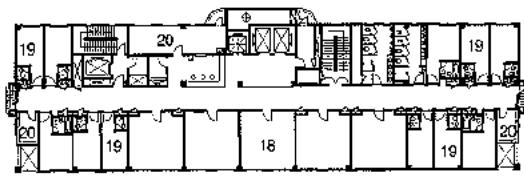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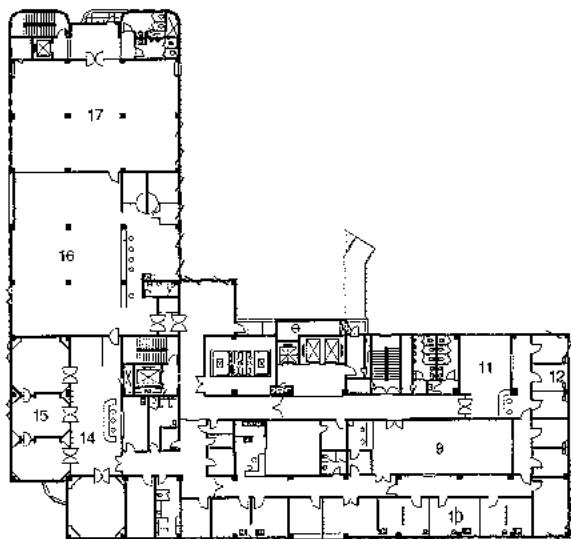
0 2 5 10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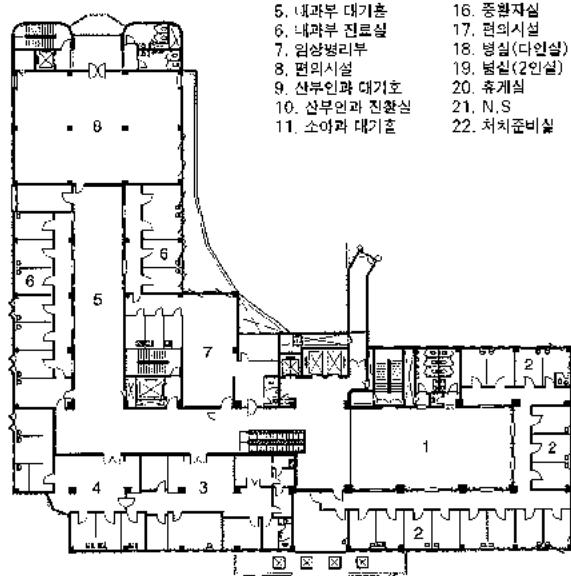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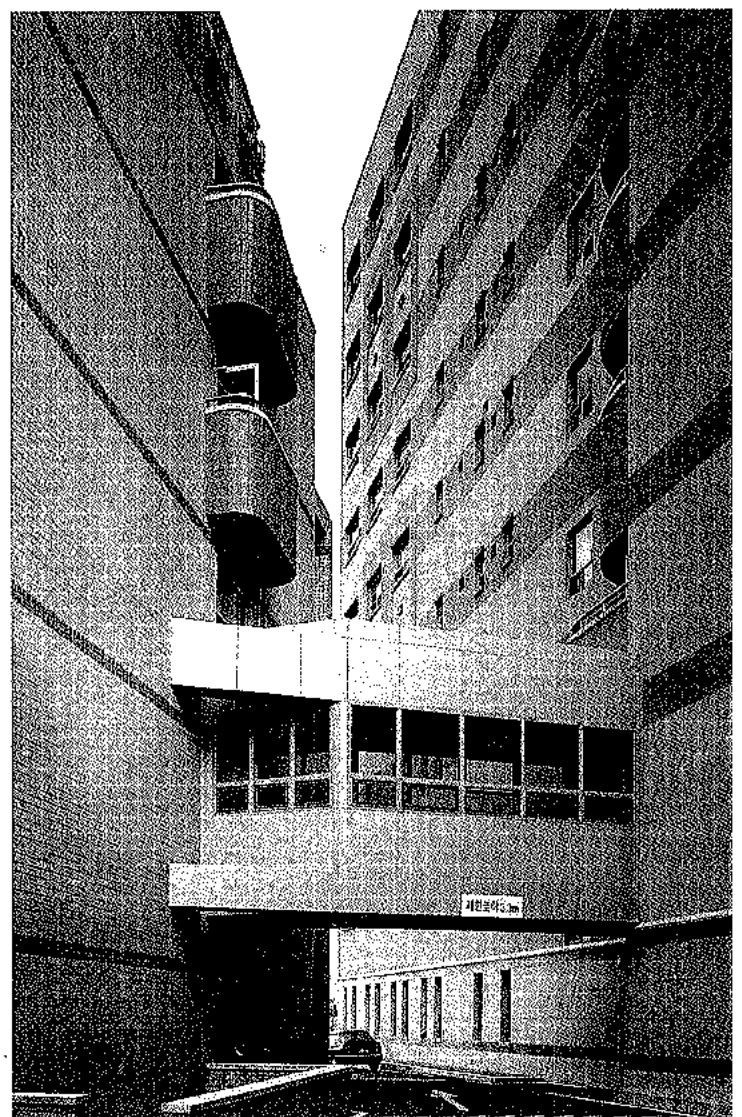


3층 평면도

- |              |             |
|--------------|-------------|
| 1. 외과부 대기홀   | 12. 소아과 진찰실 |
| 2. 외과부 진료실   | 13. 신생아실    |
| 3. 건강관리과     | 14. 수술준비실   |
| 4. 기동검사과     | 15. 수술실 1-4 |
| 5. 내과부 대기홀   | 16. 중환자실    |
| 6. 내과부 진료실   | 17. 편의시설    |
| 7. 임상병리부     | 18. 병실(다인실) |
| 8. 편의시설      | 19. 병실(2인실) |
| 9. 산부인과 대기호  | 20. 휴게실     |
| 10. 산부인과 진찰실 | 21. N.S     |
| 11. 소아과 대기홀  | 22. 처치준비실   |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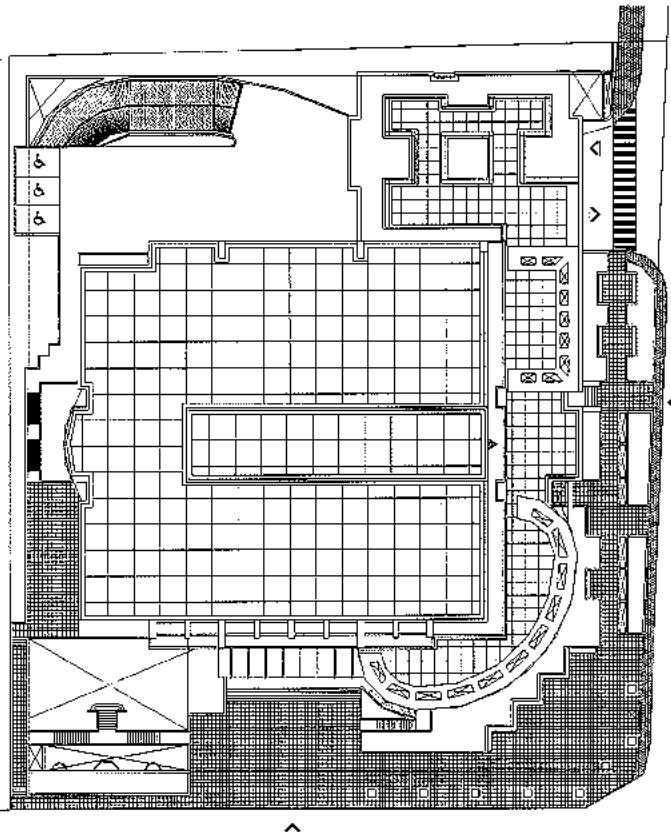
# 에이스 테크노타워 III

## Ace Techno Tower III Apartment-Type Factory

오근석 · 문호 / (주)유진인터내셔널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O Kun-Sok & Moon Ho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번지 48호
대지면적	6,488m <sup>2</sup>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공항고도지구(진입표면)
건축면적	3,323.48m <sup>2</sup>
연면적	38,079.82m <sup>2</sup>
건폐율	55.39 %
용적률	434.28 %
규모	지하 2층, 지상 1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용도	아파트형 공장
외부마감	화강석, 드라이비트, 복층유리
설계담당	최승일, 정훈석, 윤종석, 홍승진, 노윤진
감리담당	서칠성, 노덕환
시공	에이스 종합건설(주)
사진	건축사 제공(촬영: 채수옥)



0 2 5 10

배치도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구. 구로공단)내에 위치하는 이 건물은 이제 산업단지내의 중추적 핵심역할을 선도하는 에이스건설의 아파트형공장으로서의 표본이 되고 있다.

기존 주변밀대에 1, 2차에 이어 3차건물이 세워졌으며 현재 4, 5, 6, 7차를 시공중에 있어 명실공히 정보화사회와 디지털산업단지의 거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며 해석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데 계획의 최대의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최근 이곳 산업단지내 여겨지에서 타기업의 아파트형공장을 개발 및 시공중에 있어 과거의 구로공단 이미지는 머지않아 이

제 예측으로 사라질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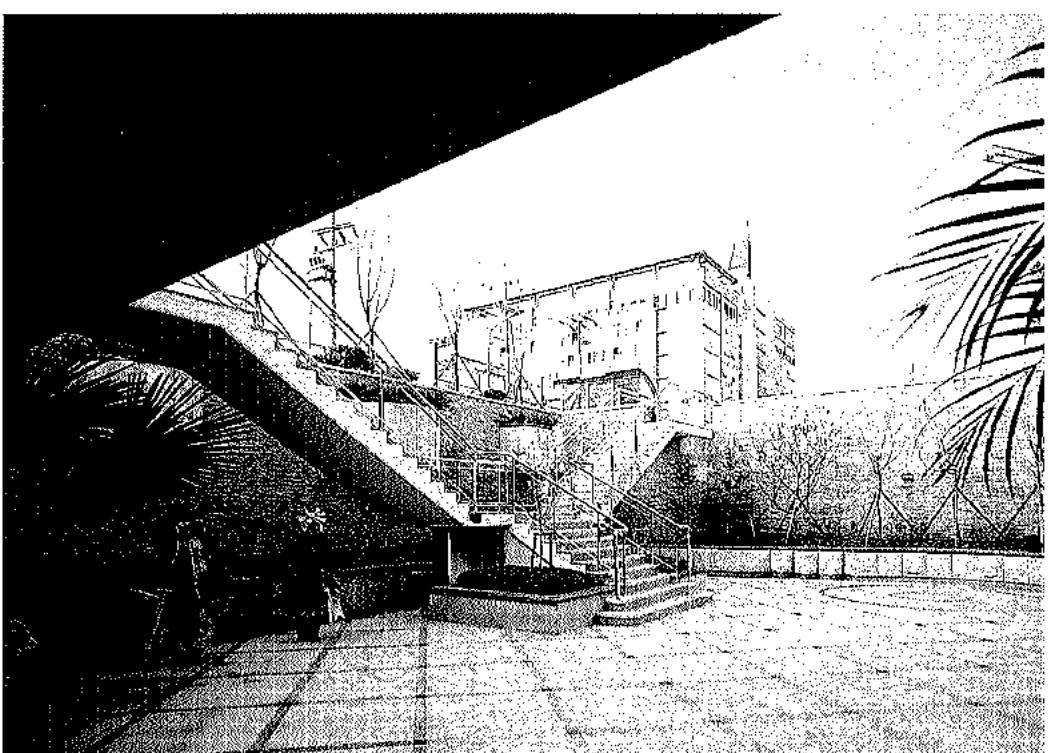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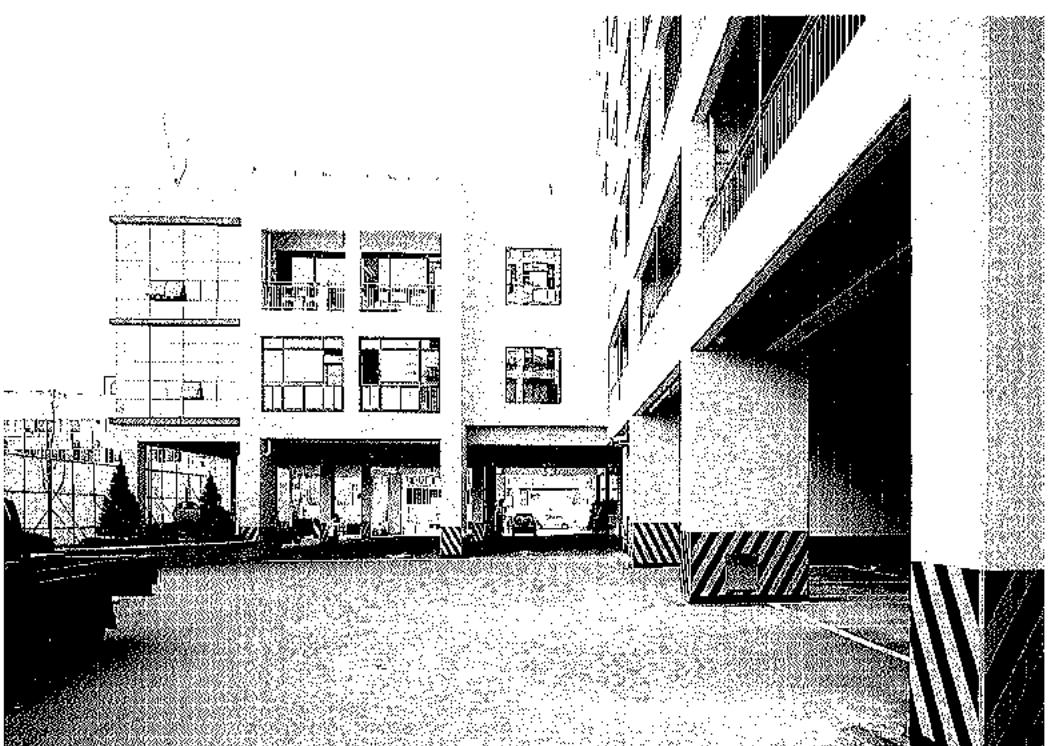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기존 에이스테크노타워 I, II에 이어 한층 더 성숙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기업이미지 통일화 및 블록밀대의 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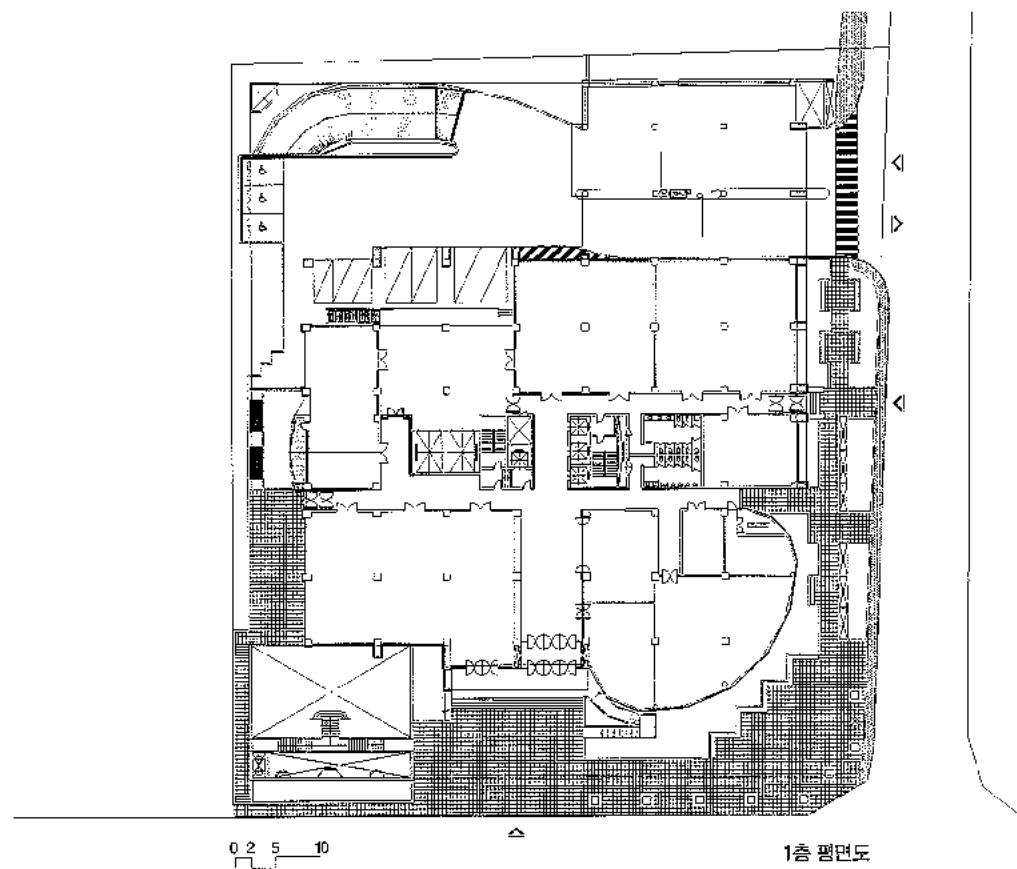
기존 격자패턴요소와 생동감있는 매스계획으로 역동적인 건물이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저층부와 고층부의 유기적 조화와 리듬감으로 시온같은 환경조성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늘 그렇듯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머릿속 깊이 어운으로 남아 있어 오늘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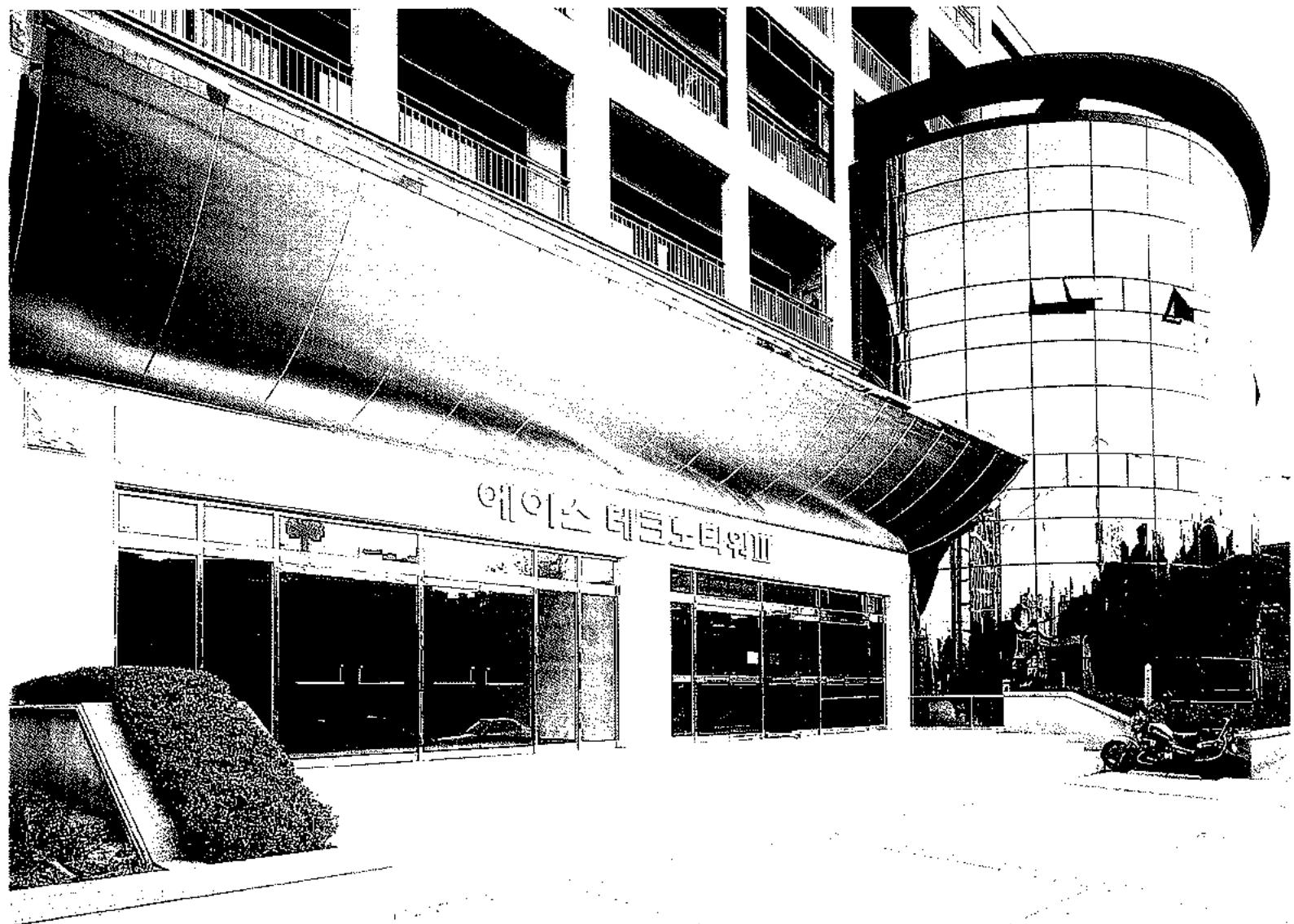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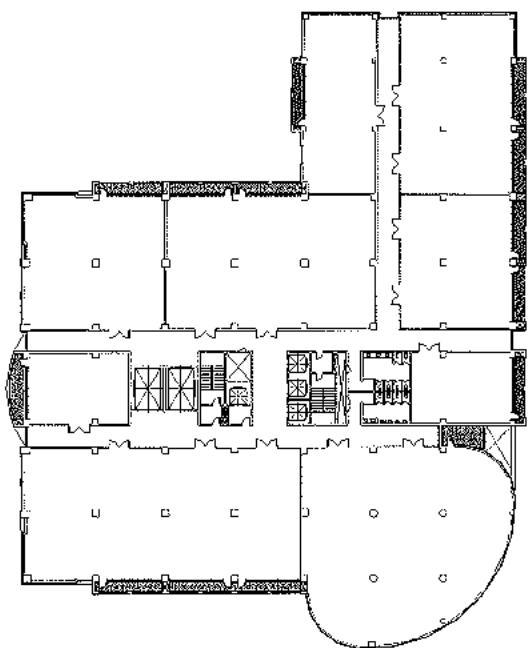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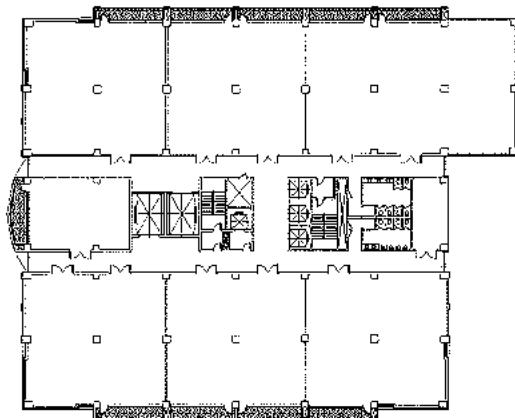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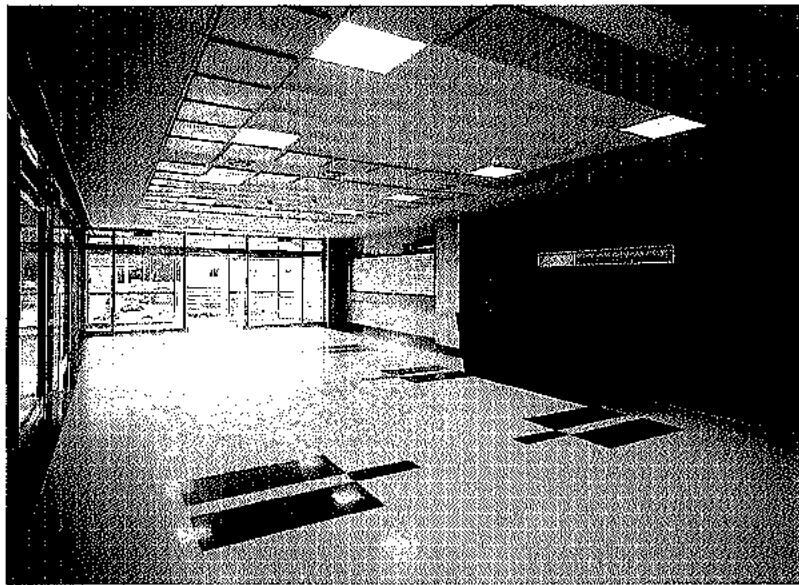




지층부 평면도



고층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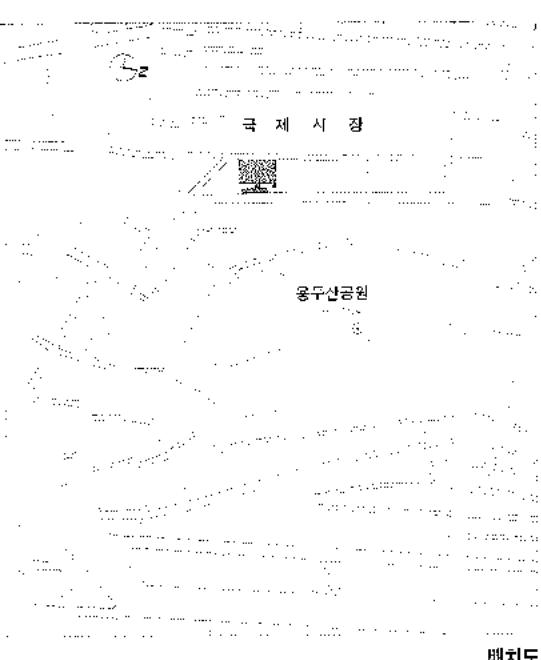
# 쇼핑몰 미라지오

## Shopping Mall Mirageo

김성곤 / 성·종합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ung-Gon

###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신장동1가 8-3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요용도	판매및영업시설
대지면적	2,155.40m <sup>2</sup>
건축면적	1,685.38m <sup>2</sup>
연 면 적	4,905.98m <sup>2</sup>
건 폐 율	78.19%
용 적 률	190.01%
최고높이	17.35m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알루미늄 복합파널, 커튼월+유리, 목재
설계참여	김성곤, 진현수, 곽복희, 김종수
구 조	원구조
설비설계	(주) 삼보엔지니어링
전기설계	(주) 세종기술단
시 공	한웅건설(주)
감 리	진현수(건축), 김종화(전기), 활동규(설비)
건축 주	이인근
설계기간	2000년 6월 ~ 10월
공사기간	2000년 11월 17일 ~ 2001년 11월 6일
사 진	건축사 제공(촬영 : 이인미)



배지도

### Remodeling

요즈음 건축계에 한참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리모델링의 의미는 기존 건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대수선하고, 용도변경과 약간의 증축이 수반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리모델링은 정부차원에서는 환경적으로 산업쓰레기 처리문제해결과 짧은 건축수명 지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예방 효과 등으로 권장하는 것 같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절감되면서 신축한 것과 같은 효과의 건축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그 사례는 많지 않아 보인다. 설계를 하는 건축사 사무소의 입장에서는 변경될 용도에 따라서 신축보다도 작업량이 더 많은 경우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작업량의 판단기준으로는 첫째, 구조적 검토가 충분히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시료채취를 하여 제반 하중 시험도 거쳐야 할 것이며 둘째는, 용도에 따른 공조설비, 특히 소방설비는 현장점검 등과 함께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타 정화조, 주차장 등 제반법규의 검토도 필수적일 것이다.

### 예식장에서 쇼핑몰로

부산지역에서 20년 이상 예식장으로서 지명도가 있었던 건물을 판매및영업시설(쇼핑몰)로 변경하는 작업이었는데 처음 1차 계획안은 리모델링의 개념이 아닌 수평과 수직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이 혼합된 건축안으로 확정이 되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변경이 되게 되었



고, 결정된 최종안은 사업성의 극대화와 경비 절감의 방법으로서 기존 건물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임대분양의 사업성이 있는 1층 부분만 확장 증축하고 다른 층은 계단실, 에스카레이터실 등 꼭 필요한 시설 부분만 덧붙이는 안으로 결정되어졌다. 1차안은 층별 면적 규모는 비슷하나 건폐율이 낮아 외부공간의 활용계획이 원활하여 보다 다양한 건축언어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최종안은 1층 면적의 최대 확장 조건으로 인하여 외부공간 나누기가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 대립된 벽사이의 휴게공간

몇 해전 경주 옥산서원에서 양진제(兩進齋)와 고청(庫廳) 2동의 건물이 대립되게 서있는 마당에 서서 일린 하늘을 보았을 때, 그 심적인 포근함과 시각적 선명함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미라지오의 기본배치계획도 그러한 생각들의 연장선상으로 하였는데, 4층으로 된 기존건물 전면에 증축할 road shop을 독립된 2층으로 분리하여 배

치하고, 비워진 그 사이공간을 도심 속의 작은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숨쉴 공간이 그곳 밖에는 없었다 - 건축주 측의 많은 분들이 2동으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한 동으로 합치고 도로에서 약간만 set back시켜 전면도로측에 공지를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동과동 사이의 대립된 벽사이의 비워진 공간은 외부공간이지만 내부 같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고 적절한 긴장감과 막힌 벽들로 인한 포근함,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오직 시립과 하늘만을 담아내는 도심 속의 소담한 열린 공원이 있어야 한다는 일관된 취지로 설득하여 결정될 수 있었다.

접근할 출입구는 3곳으로 하고, 도로에서 좌측과 우측입구는 옥외공간으로 완전 비워 자유롭게 진입시키고 중앙주출입구만 실내로 연결하여 각 방향에서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였다. 특히 좌측출입구는 조경공간과 함께 즐겁게 처리하여 그 조경공간에는 대나무를 줄지어 심고 어두움속에서 밝은 휴게공간으로 이동시 변화된 분위기를 느끼게 하였고, 중앙출입구는 들어서는 처음은 낯은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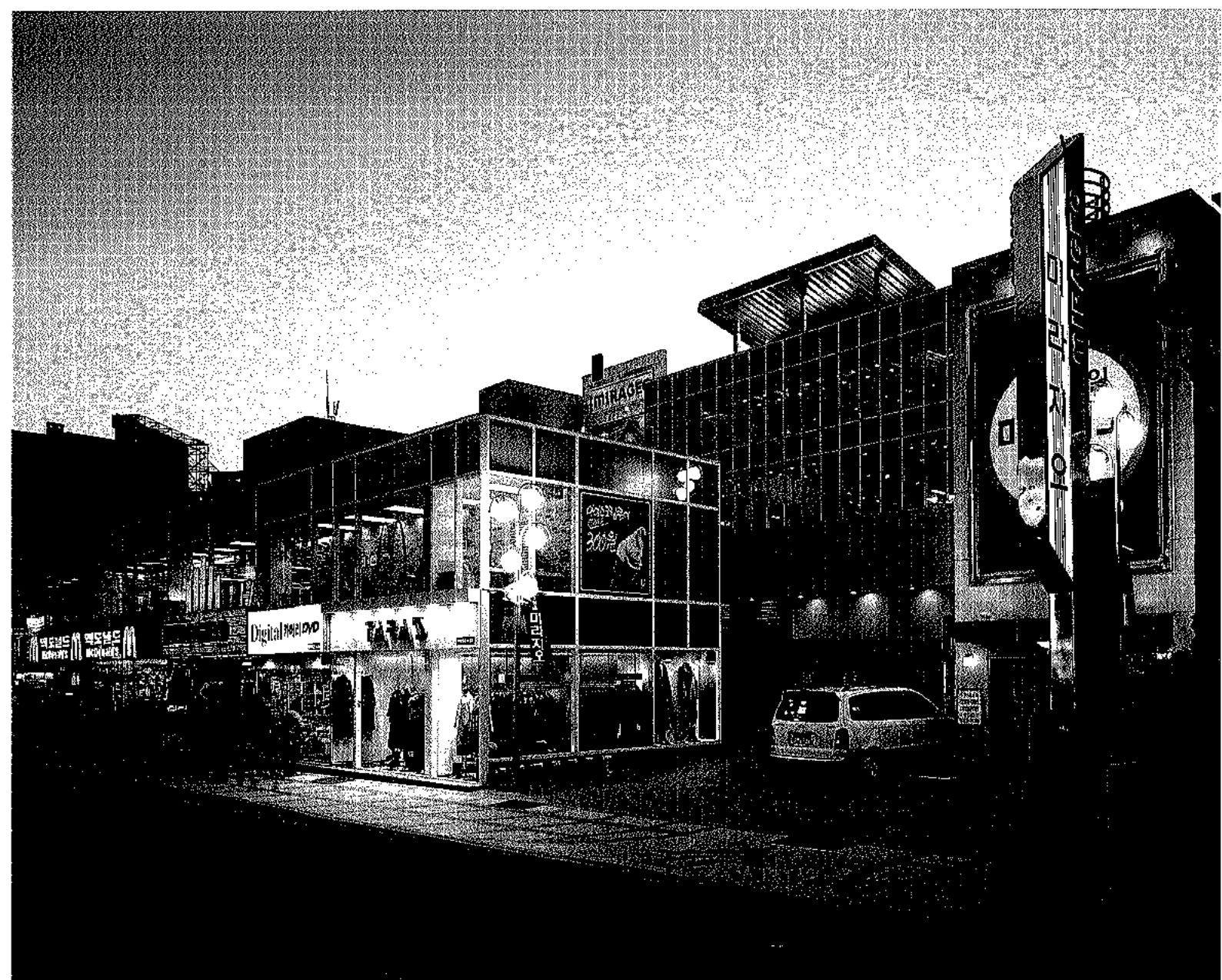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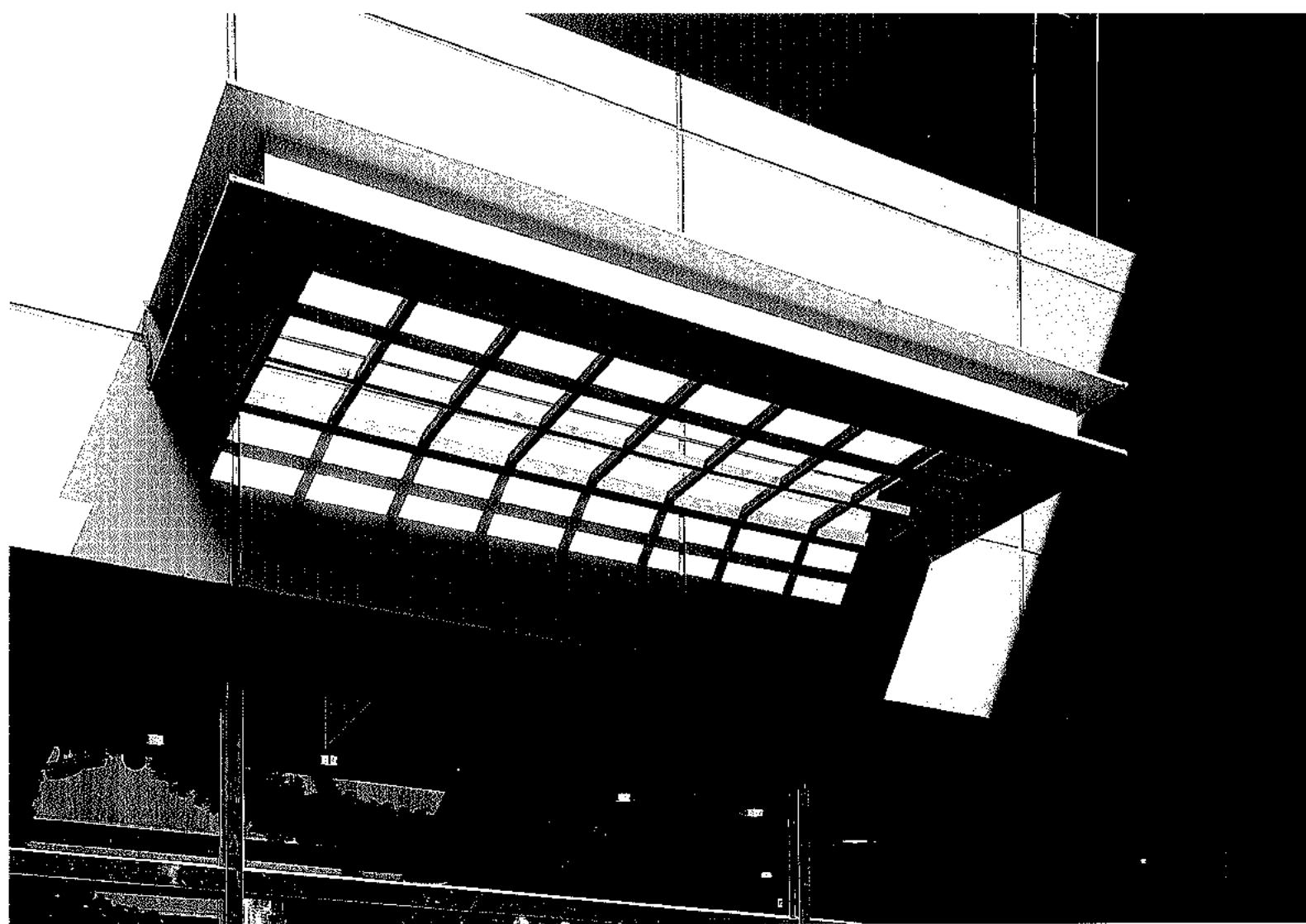


리모델링 전 배치도

1. 주차장 2. 후개공간

리모델링 후 배치도





정의 공간에서, 이동하여 다음 연결로비에 서면, 좌·우측 유리벽을 통하여 휴게공간을 볼 수 있고 뚫린 천장으로 인해 내부이지만 외부 공간같은 느낌을 받게 하고, 1층 실내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오르다보면 2층부터는 옥외로 트인 유리벽을 통해 부산의 상징인 용두산공원의 탑을 보면서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입면의 구성은 4층 본동건물을 배경스크린으로 하여 전면에 독립된 2층 road shop을 투명한 유리상자같이 처리하고 본동과 통화되게 디자인하였다.

외부 색상계획은 우리나라 계절적 환경오소인 여름과 겨울이라는 상반된 계절변화에 시각적으로 순응하는 색으로서 바탕은 한색계열의 회색으로, 좌·우측 계단실벽 리브와 옥상조형물 천정은 난색계열의 황토색으로 배합하여 표현하고, 휴게공간바닥은 분홍색상 회강석으로, 양쪽 벽체는 패널과 목재리브의 대비된 재료와 색상으로 재료를 미감하였다.

#### 작은 일들과 소중한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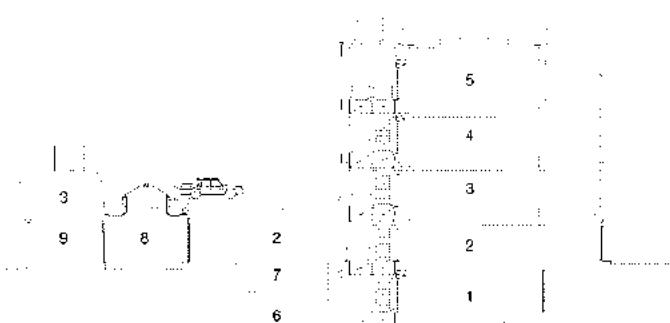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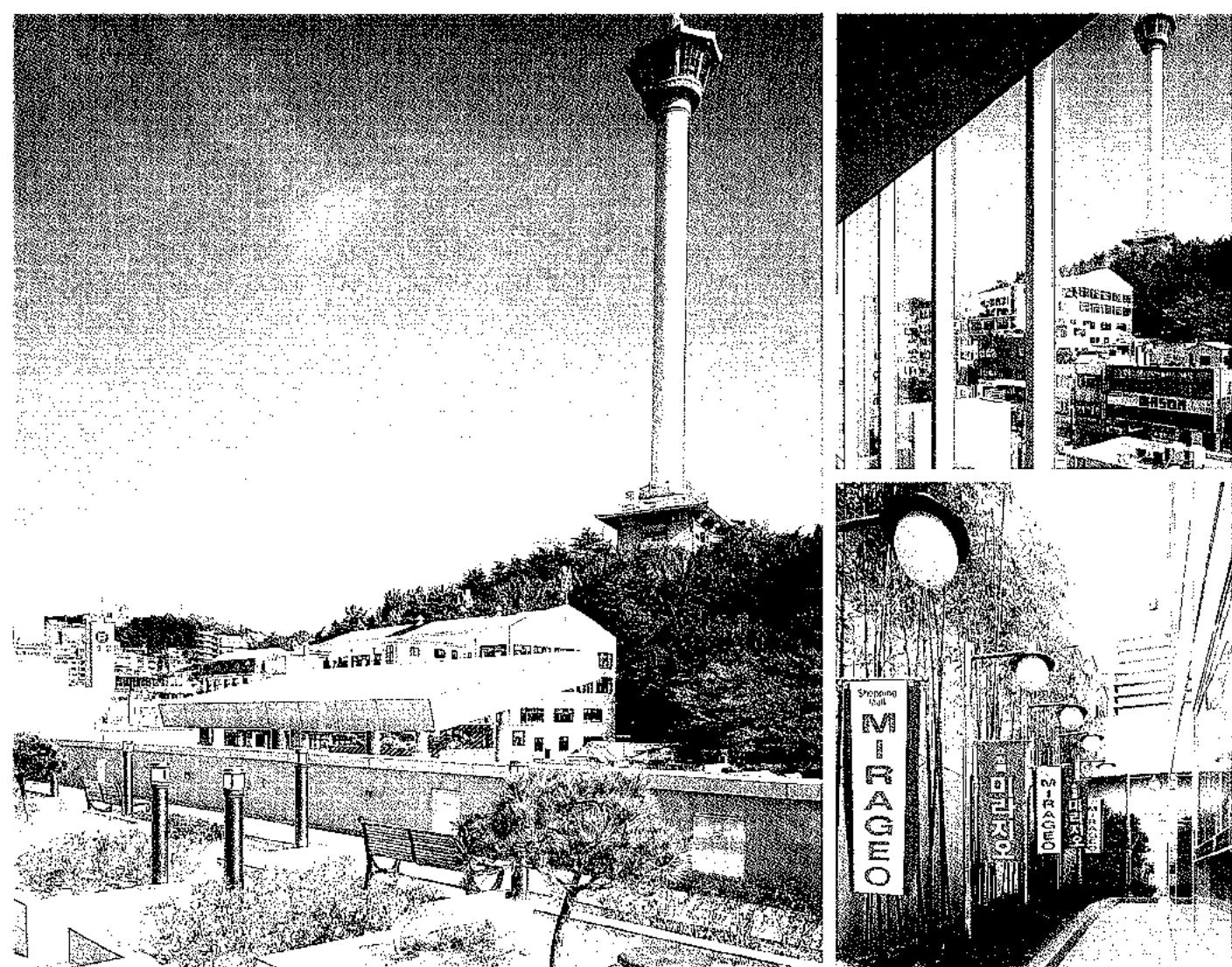
많은 건축사들이 느끼는 일이겠지만 작업을 수주하여 정해진 짧은 기간 내에 빛낮으로 생각하며 계획하고 스케치하여 기본안을 어렵게 완

료시키고 나면, 다시 걱정되는 것이 건축주에게 어떻게 설명하여야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의견을 일치시킬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 휠싸인다.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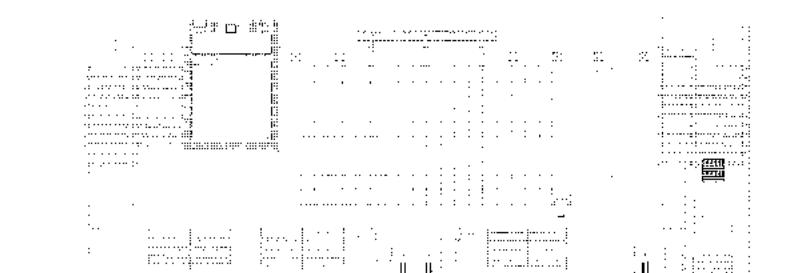
그것의 해결책은 시전 충분한 대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서로의 생각이 조금 비워져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겠지만- 휴게공간의 배치방법을 두고서 건축주 측과의 청탁했던 공방전(?)은 설득의 한계와 더불어 많은 책임감을 더욱 느끼게 하였다. 휴게공간의 비덕마김재료도 당초 설계시는 부드러운 측각의 목재였으나 관리상 등 문제제기로 화강석마감으로 변경되었고 - 작은 변경일 수 있지만 -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의 번민은 나를 한층 깨우치고 배우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건축은 장소를 만드는 일이다. - 인간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만든 장소 - 이번 작업도 그러한 생각에 약간의 접근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지람이 많은 설계자를 변함없이 믿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준 오랜 벗이자 선배이자 건축주인 이인근(李仁根)兄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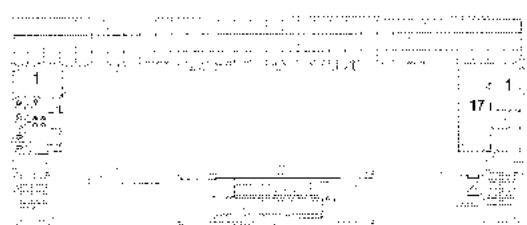
주단면도

1. 지하식당가
2. 1층대장
3. 2층대장
4. 3층대장
5. 4층대장
6. 오수정화조
7. 기계실
8. 연결로비
9. 입구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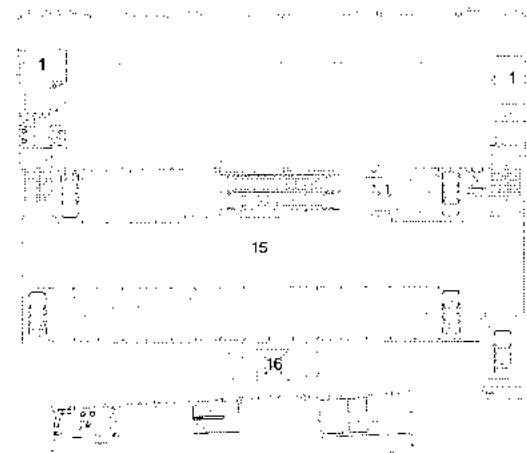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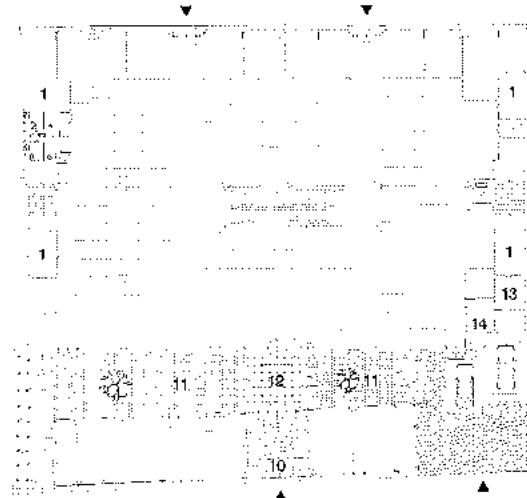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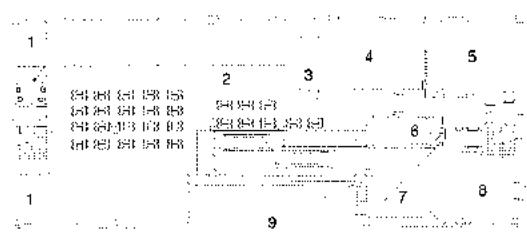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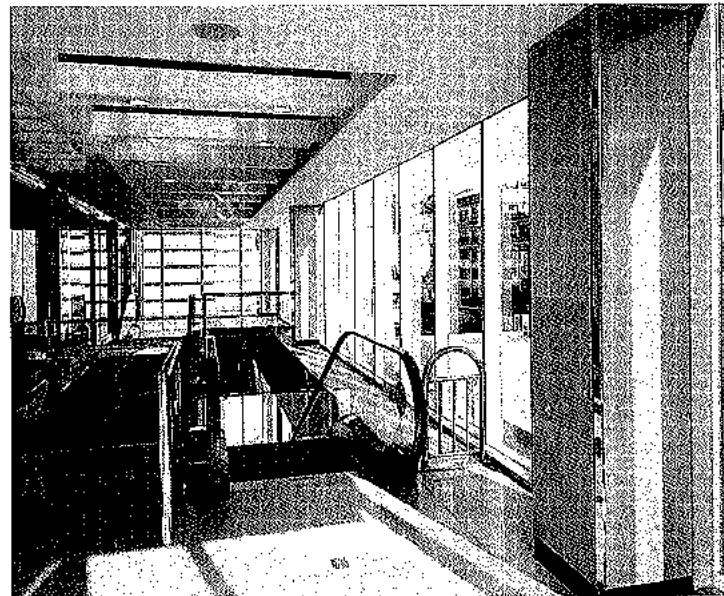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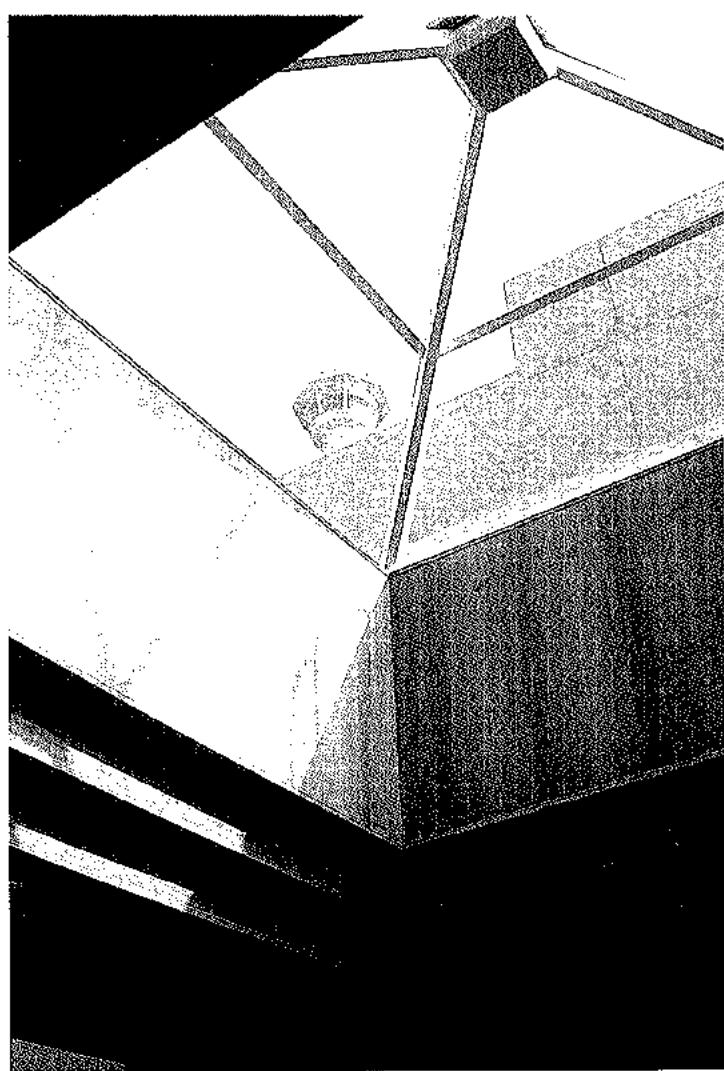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1. 공조실
2. 지하수당가
3. 방재센터
4. 전기실
5. 기계실
6. 펌프실
7. 지하수조
8. 발전기실
9. 오수정화조
10. 입구홀
11. 유계공간
12. 연결로비
13. 통신배선실
14. 인내실
15. 주차장
16. 현장
17. 관리사무소



# 대구 MBC

## Daegu MBC

최관영 / (주)일건씨앤씨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Kwan-Young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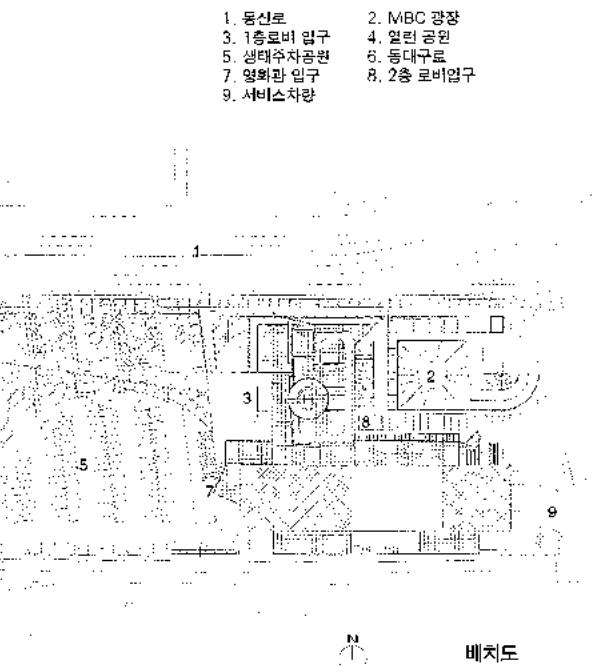
위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번지
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	미관 1,2종 지구, 주차장정비지구, 최저고도지구, 방화공용시설보호지구
대지면적	18,860m <sup>2</sup>
건축면적	5,216m <sup>2</sup>
건폐율	27.66%
연면적	36,171m <sup>2</sup>
용적률	129.14%
조경면적	5,400m <sup>2</sup>
규모	지하 2층, 지상 16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주차대수	484대
내부마감	비단-대리석, 비닐타일, 카펫타일 벽-대리석, 무늬목, 아크릴수지페인트 천정-알미늄천정, 암면흡음텍스
외부마감	벽-샌드스톤, 티타늄페널, 커튼월 스튜디오 지붕- 동판잇기
사진	건축사 제공

(2001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부문 입선)

70년대 초, 대구의 새로운 관문으로 건립된 동대구역에서 시작하여 범어로터리에서 끝나는 길이 약 2.3km, 폭 70m의 동대구로는, 도로 가운데의 넓은 녹대에 이국적인 사철첨엽수 히말라야 시다가 잘 자란 매우 인상적인 가로이다. 대구 MBC 신사옥은 이 가로의 중간쯤, MBC로터리 코너 5,700여 평의 넓은 부지에 위치하며 지금은 헐려진 구사옥 뒷편 공지에 세워졌다. 이 건물은 지하2층, 지상16층 연간평 10,940평 규모로, 7층까지는 MBC에서 사용하고 그 상부는 임대용 사무실이다.

구사옥부지를 포함한 전체부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신사옥, 문화센터, 초고층 임대용 업무시설을 세워 나간다는 초기의 마스터 플랜이 변경되어, 구사옥 부지에는 주차공원과 열린공원이 조성되었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지를 가로질러 남북방향으로 오피스타워가 자리잡고, 곡면 지붕을 가진 저층 스튜디오는 티워의 매스에 직교한 방향으로 남쪽 8m 소도로에 평행하며, 북쪽 40m 화랑로와 나란히 저층 금융시설 매스가 자



리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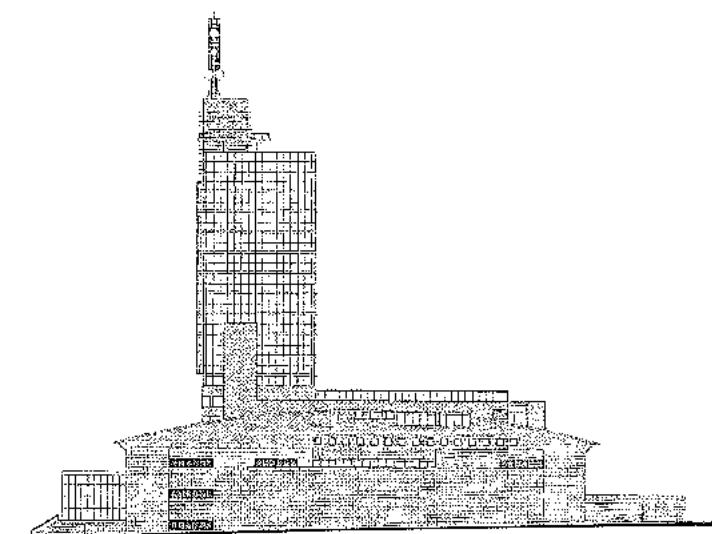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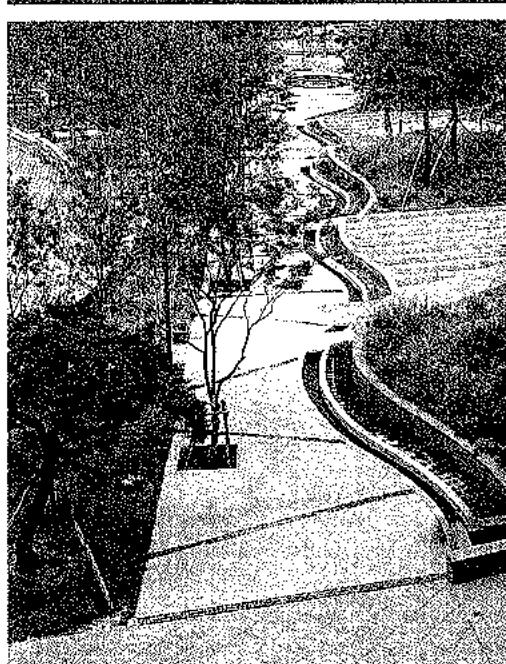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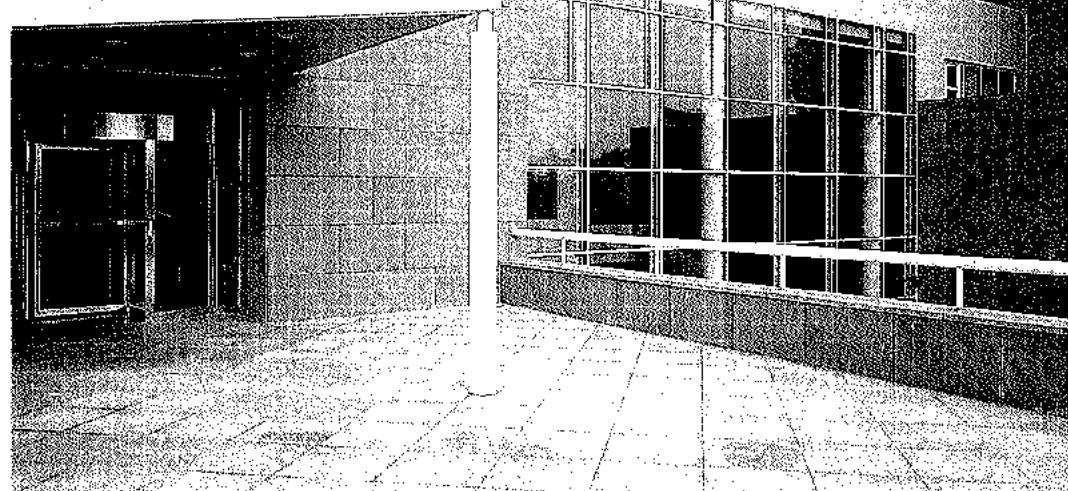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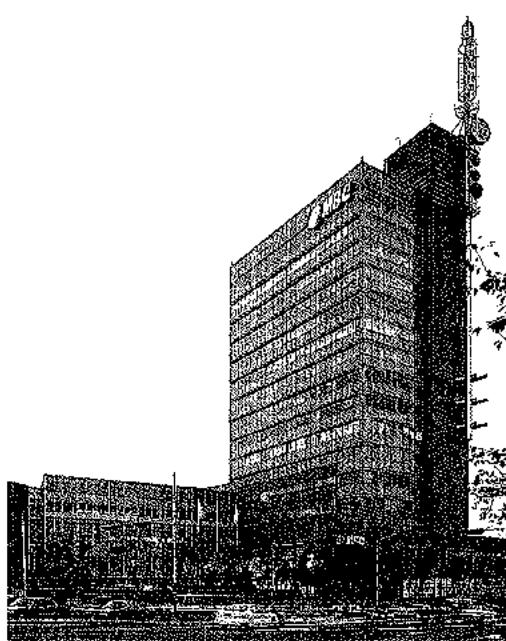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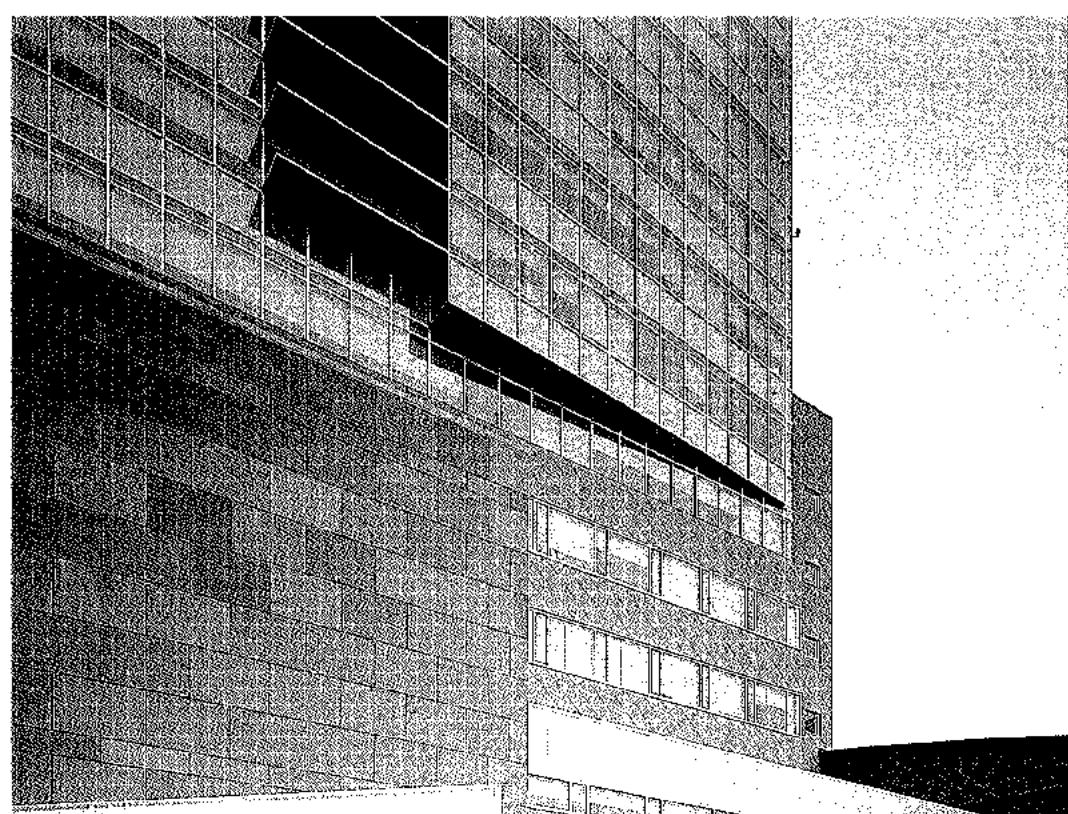
동쪽 MBC 광장에 이르는 주대문이 북측의 화랑로를 지나 깍어져 동측 소로변에 위치한 것은 교통흐름상의 위치선정이라는 이유 외에도 타워에 대한 정면 진입을 뜻한다.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해 타워 서측, 즉 기존사옥 뒷편 1층 로비로 진입하고 또한 동쪽 MBC 광장에서 2층 로비로 진입하여 1층 로비와 2층 로비가 3층 부분까지 공간적으로 하나가 되어 내부의 주된 공용공간이 된다.

타워의 북측 코어 외벽에 불어 올리기는 안테나와 안테나의 허리를 그자로 감싸는 2면의 광고 전광판이 계획 되었는데, 현재는 경제적 사정으로 전광판 부착을 위한 철골만 둘출된 채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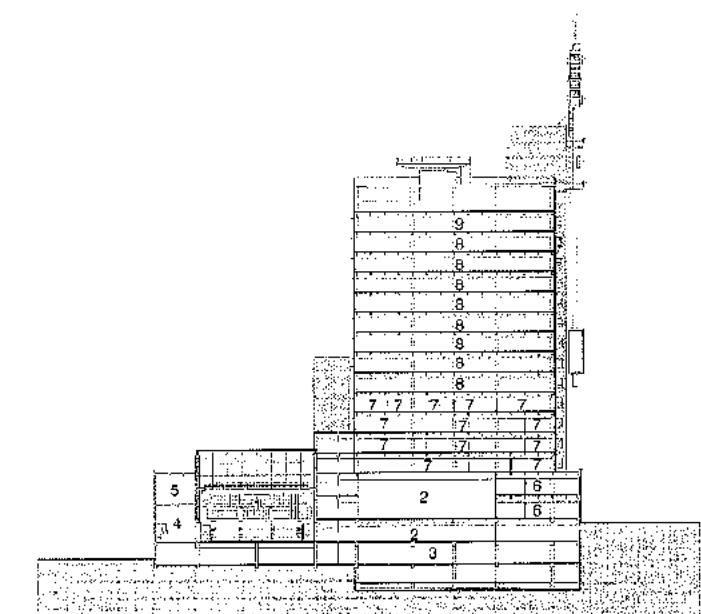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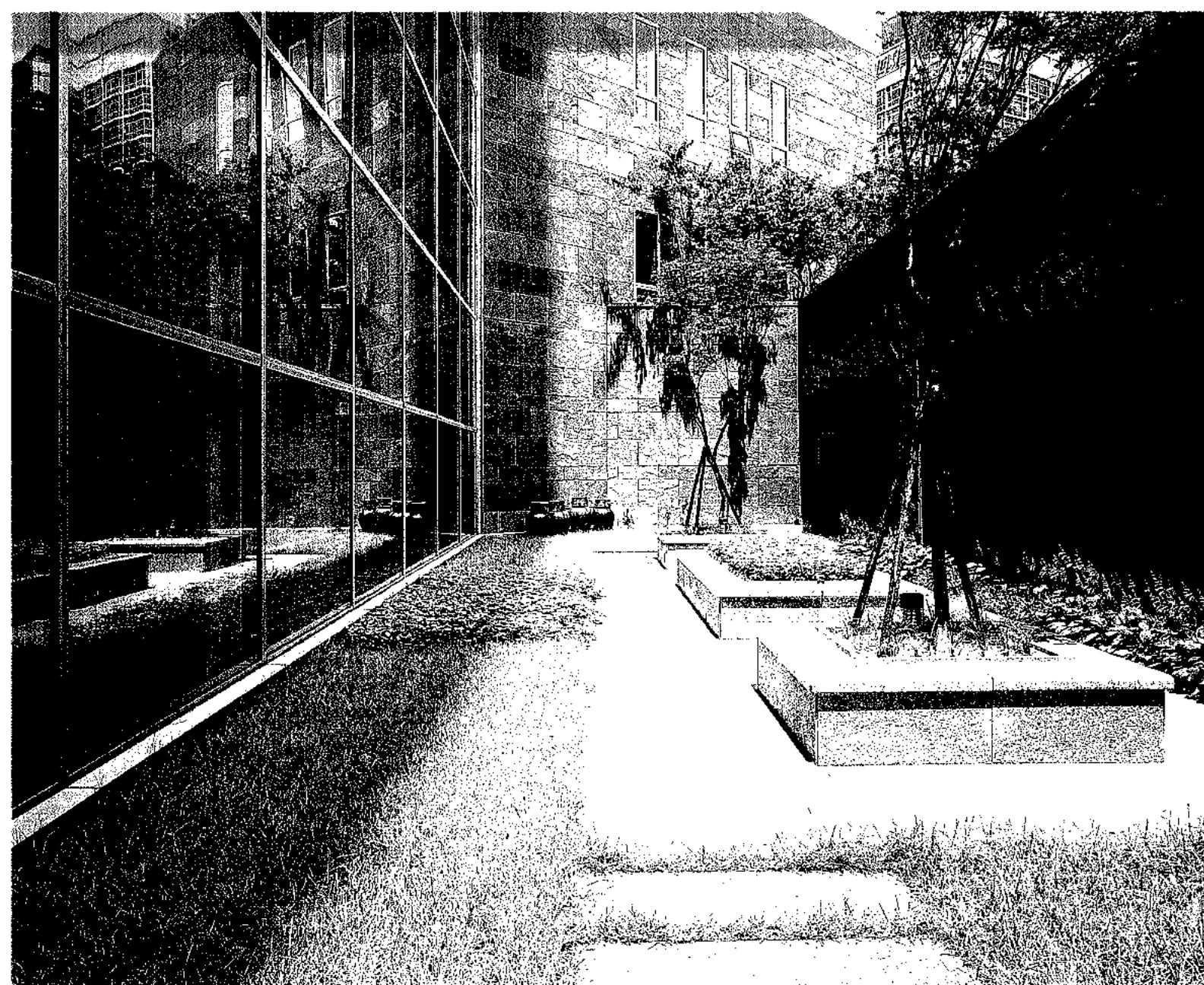
저층부 매스의 붉은색 인도사암, 코어 매스와 벽의 회색 티타늄판, 옆은 녹색 유리를 구획하는 메탈릭 색상의 새시들의 선택은 조화롭게 전체외관을 이룬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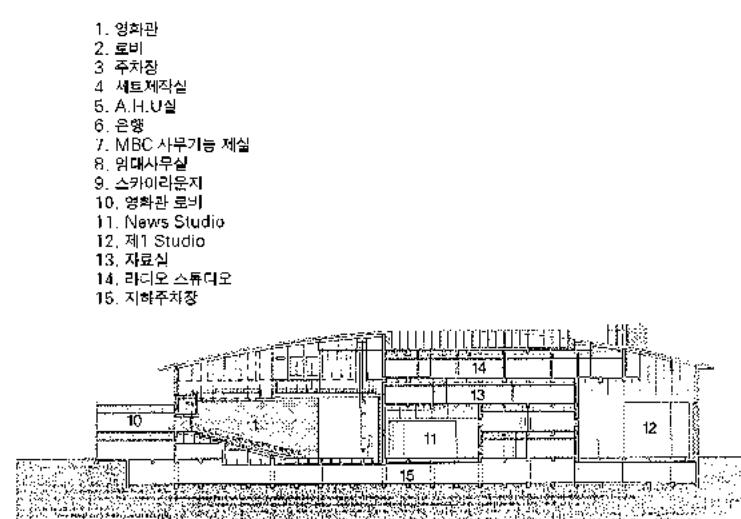


02 5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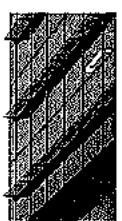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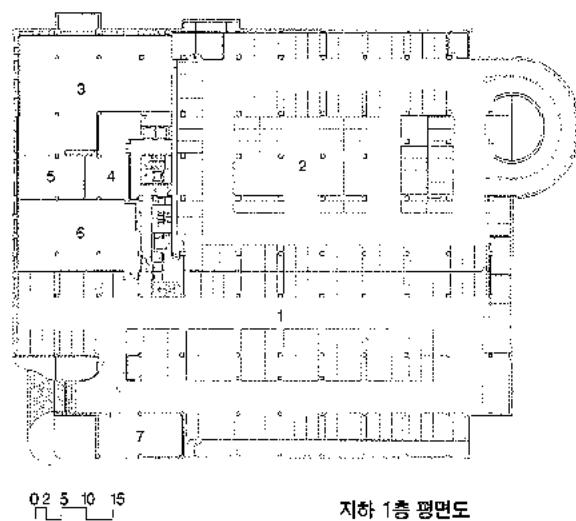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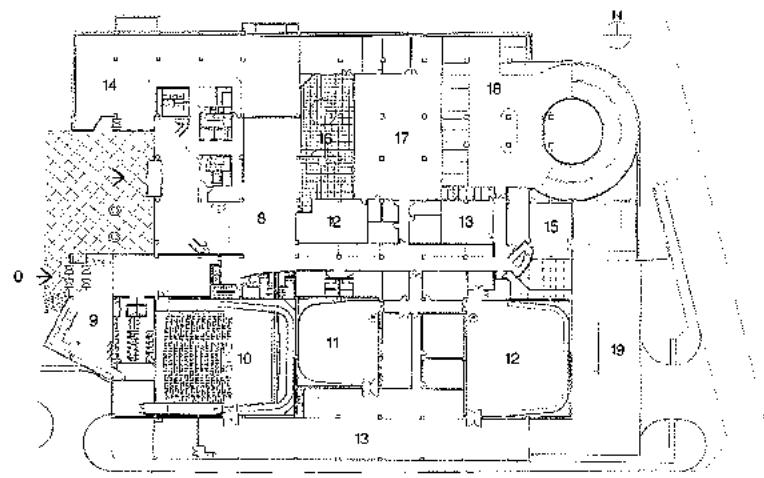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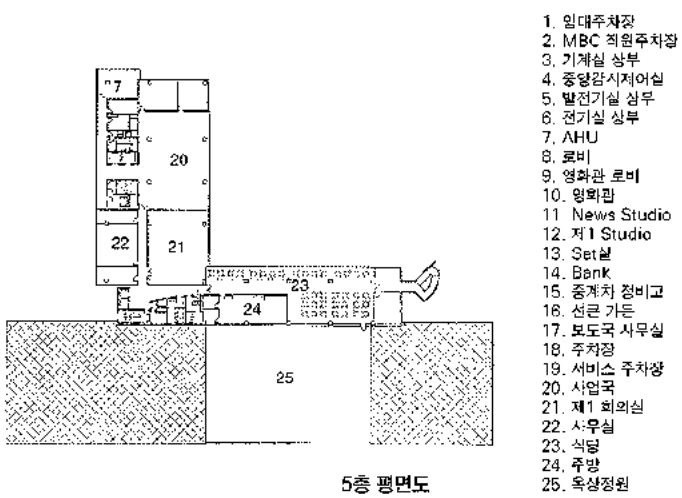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 도봉문화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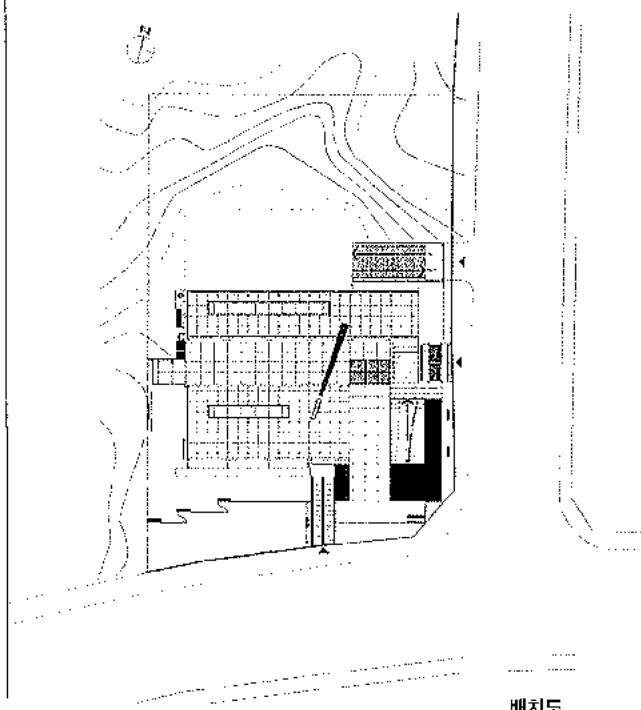
## Tobong Media Library

유방근 / 건축사사무소 시방  
Designed by You Bang-Keun

###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도봉구 창동 산 137-51외 4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균린공원
용 도	교육연구 및 균린공원
대지면적	4,351m <sup>2</sup>
건축면적	1,250m <sup>2</sup>
연 면 적	3,111.40m <sup>2</sup>
건 폐 율	28.73%
용 적 률	46.07%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대수	19대
최고높이	10.05m
조경면적	2,063.21m <sup>2</sup>
구조방식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알루미늄 복합패널, 갈비나이즈드 패널 복층유리(THK 18)
사 진	건축사 제공

(2001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부문 입선)



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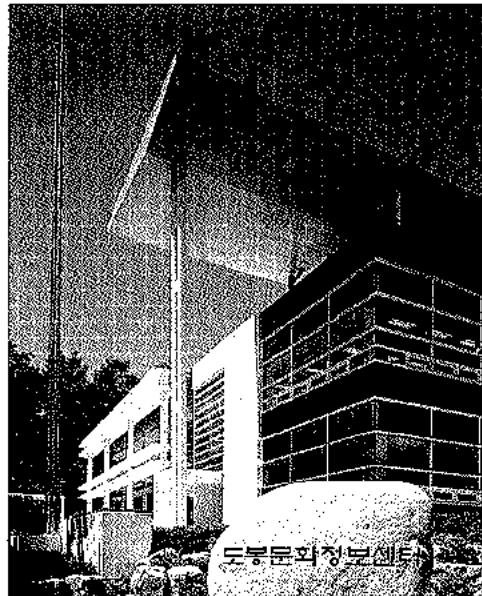
도봉구는 정보화, 지방학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정보제공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구립 정보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봉구 정보화도서관 설계경기를 실시하였다.

도봉구에 있는 도봉서원의 입구에 송시열선생의 금석문인 '도봉동문'의 문(門)자를 형상화시켜서 도서관의 주된 둉어리를 만들었다. 여기에 포함된 여러 의미를 현대화 된 도서관에 은유하여 표현하였으며 이는 도봉구의 상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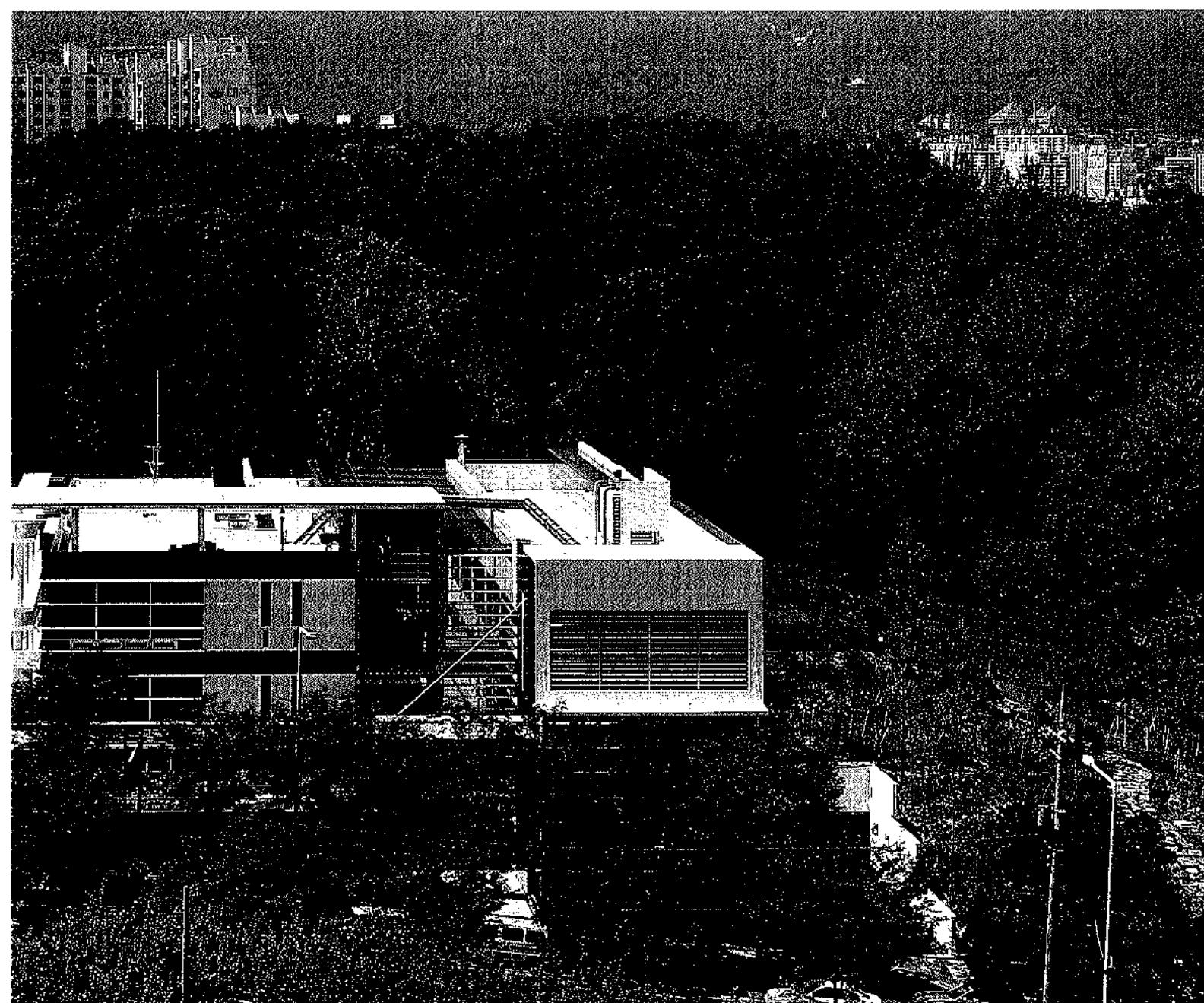
기능적으로 가장 완벽하다는 사각형태의 도서관 평면은 장서 및 열람의 효율성을 꾀하고 이러한 단순함은 원충된 아트리움과 그 속의 경사로, 계단 등의 동적인 평면으로 보완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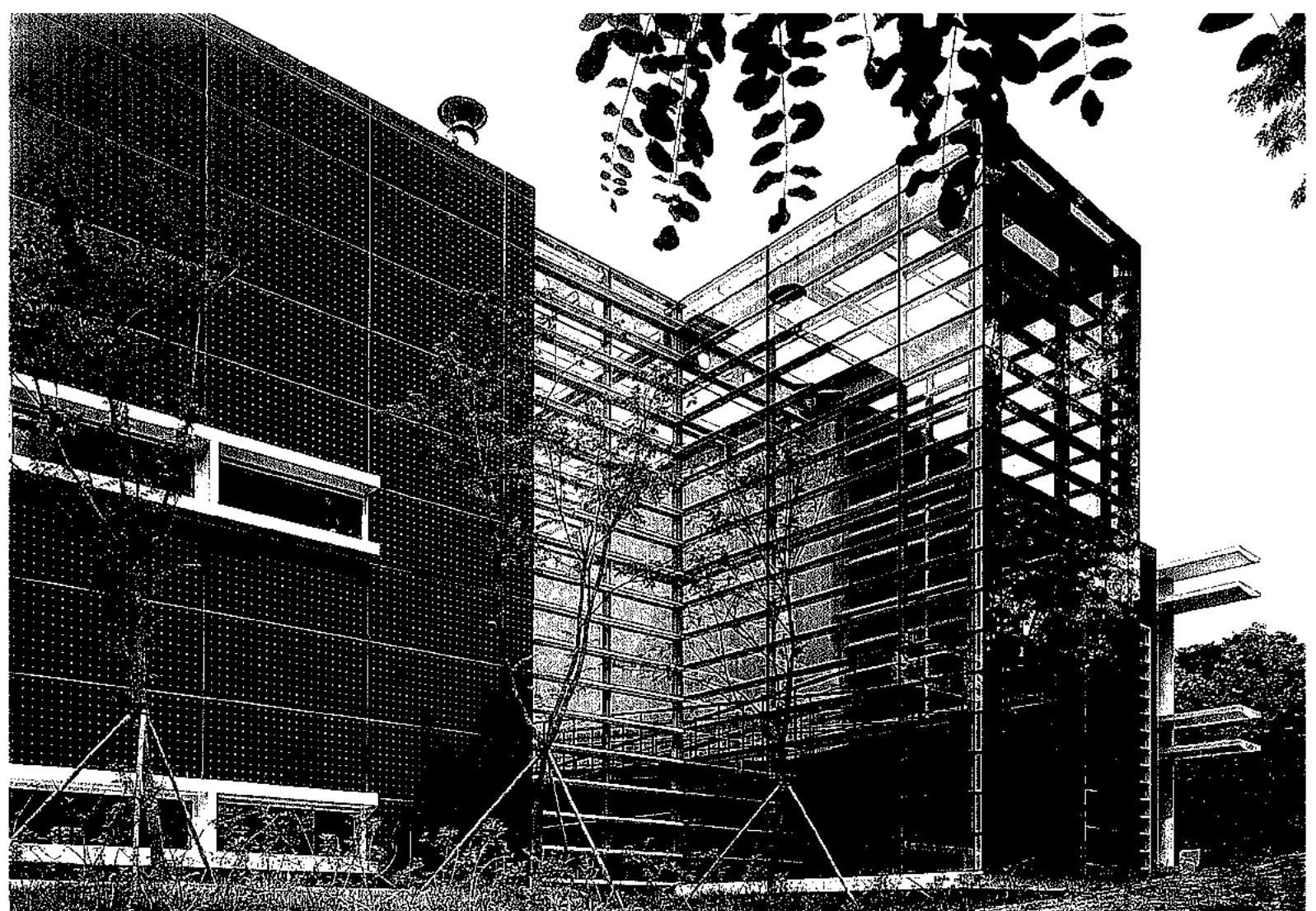
남향으로 열려진 열람실 전면의 이중 파사드로 직접체광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깊은실의 체광과 북측의 열람실은 천창으로 훼활한 내부공간을 만들었다.

교통의 분기점에 위치하고 초안산 균린공원과 접한 대지는 소음의 원화를 위해 균린공원에 면하며, 측면은 도로에 접하게 배치하고 기존 수립대를 보존하여 균린공원을 전면 공원으로 이용하게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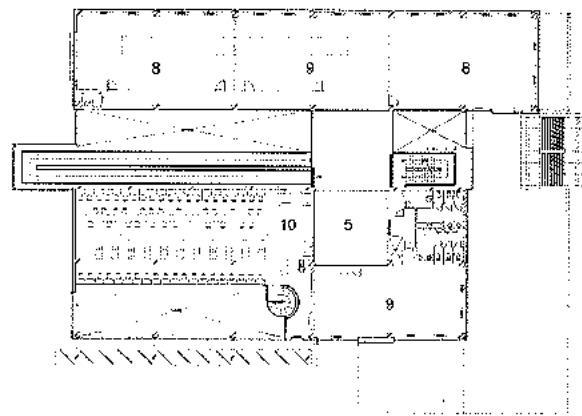


도봉동문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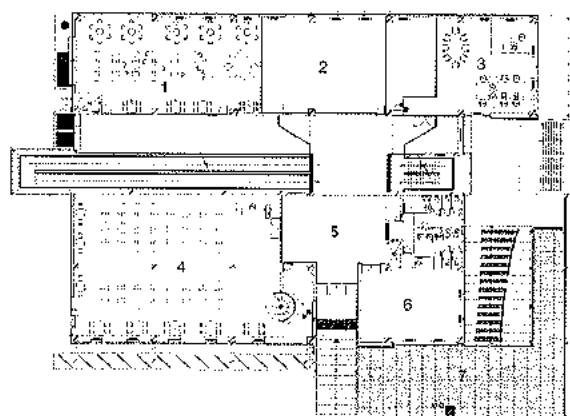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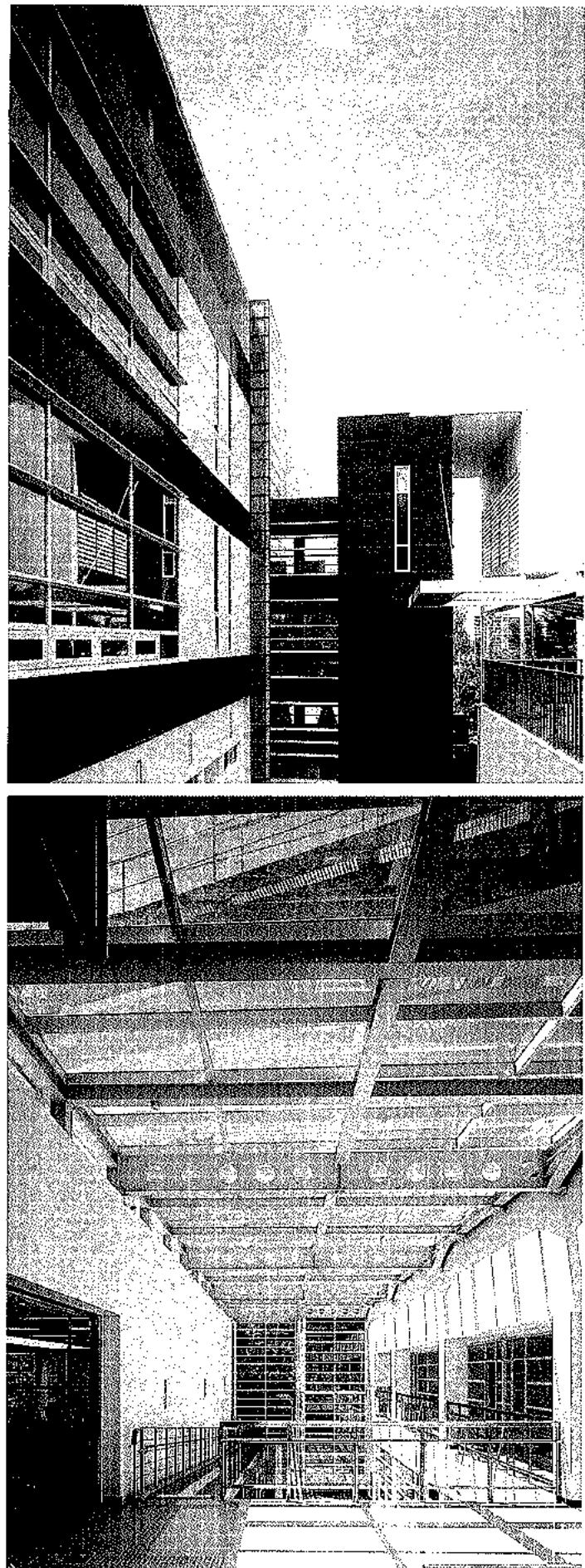
- 아동일관실
- 문자관람실
- 사무실
- 자유일관실
- 술
- 컴퓨터 교육실
- 데크
- 중고생일관실
- 성인일관실
- 문화시청작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월강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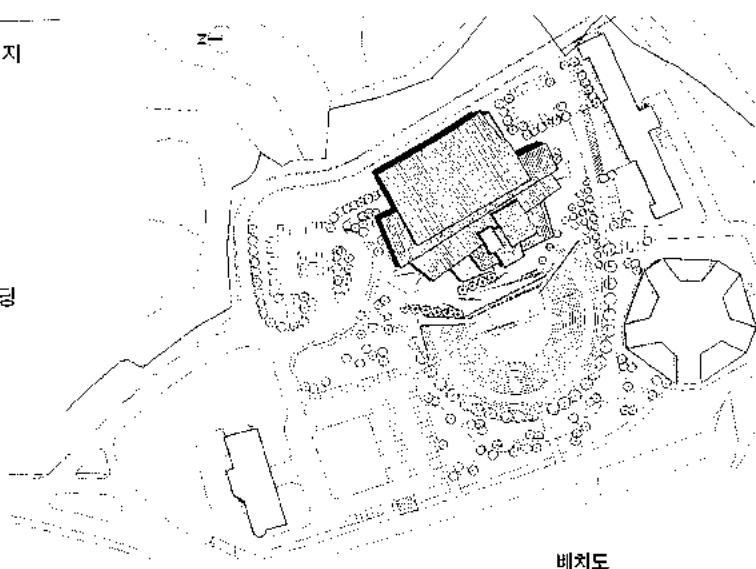
Wolgang Memorial Hall of Chungcheong College

유 건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상  
Designed by Yoo G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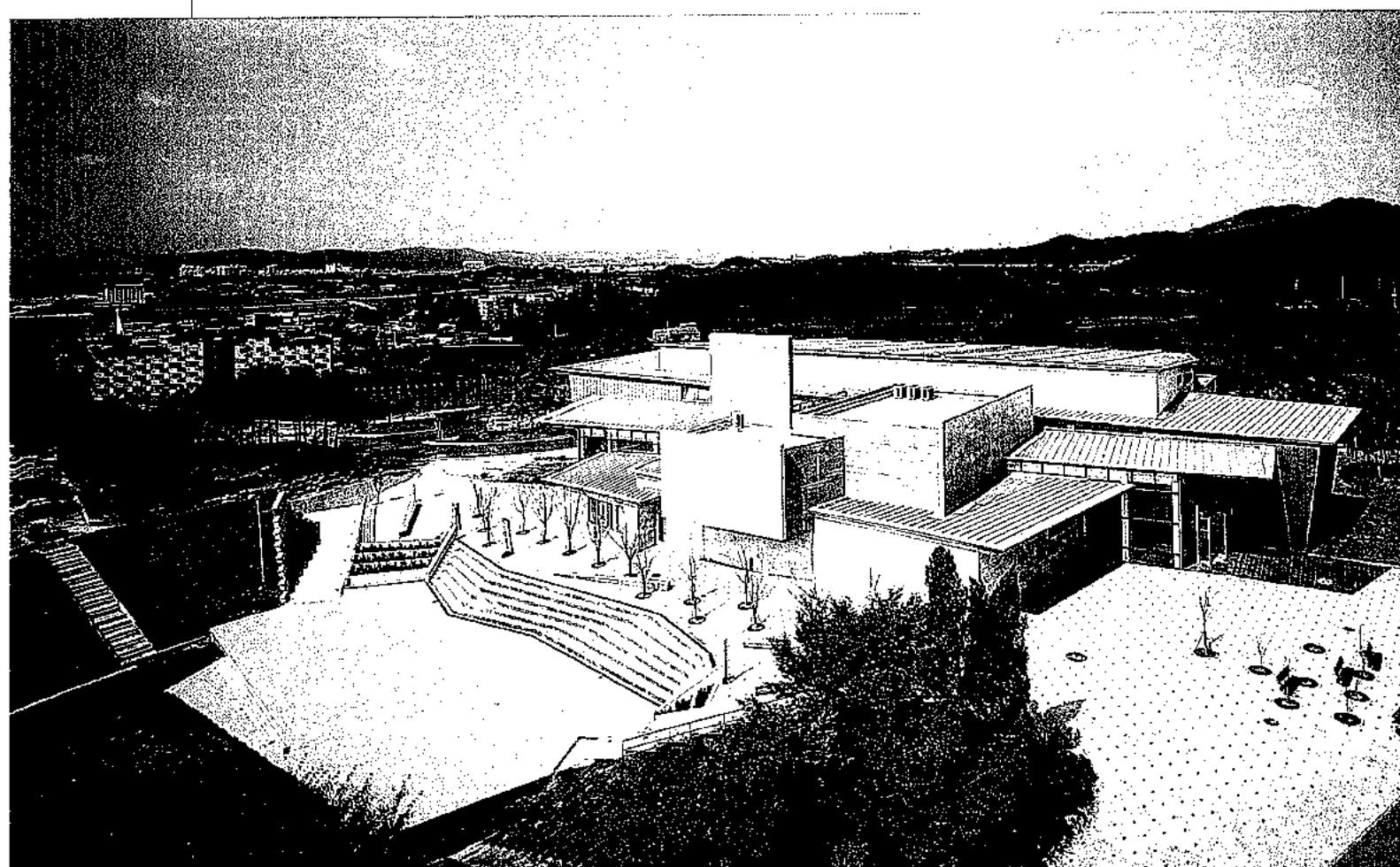
### 건축개요

위 치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313번지외 30필지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30,874.0m <sup>2</sup>
건축면적	3,953.13m <sup>2</sup>
연 면 적	4,934.75m <sup>2</sup>
구 조	철골조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외부마감	압출성형시멘트페널 / 티타늄 강판 / 시멘트사이딩
내부마감	화강석 / 천연슬레이트 / 석고보드위 비닐페인트
구 조	(주)동양구조
전 기	(주)뉴전기
기 계	(주)고도설비
시 공	(주)신라개발
사 진	건축사 제공

(2001 한국건축문화대상 춘공부문 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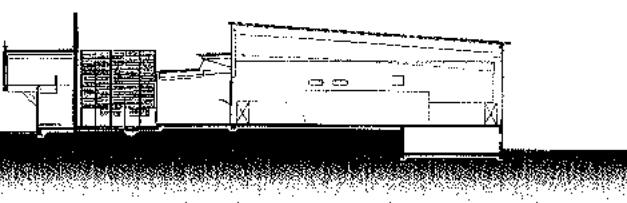


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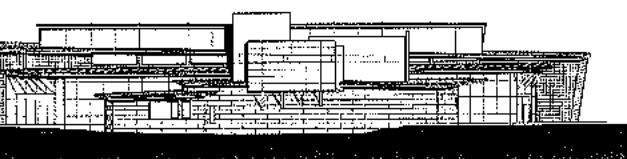


충북 청주에 위치한 전문대학 Campus 내의 설립자를 위한 신축 기념관으로서, 설립자 기념관 및 등상과 외부인 주용도인 2000석 규모의 Convention Hall과 인터넷 방송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외의 노천극장에 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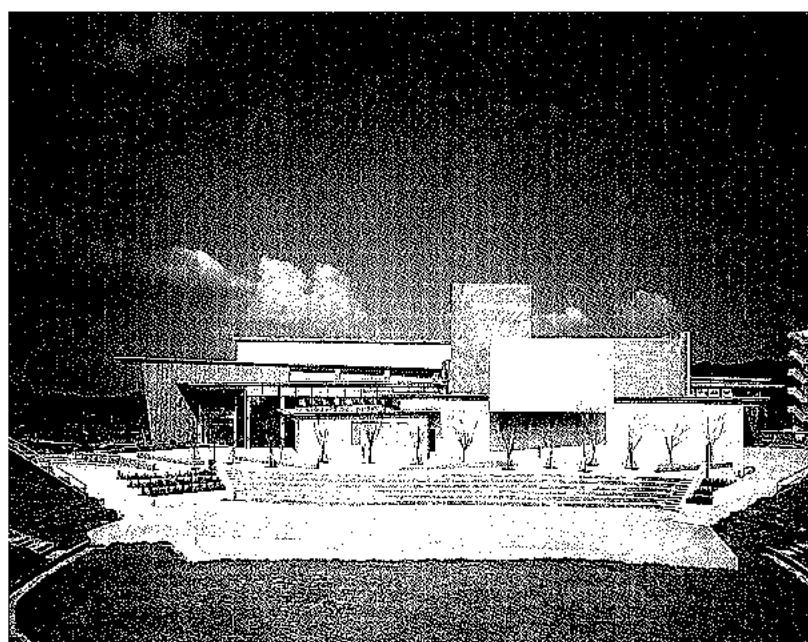
기존의 Campus는 Master Plan 없이 원만한 구릉지를 절토하여 그때 그 때 규칙적으로 건물을 배치하였으므로 다양한 학생문화와 형태를 수용하기에는 단순하며 경직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건물은 그 배경인 주변 자연의 시각적 비질서와 학생들의 비 일상성을 주제로 설계하였으며, 별도의 영역과 진입을 확보하여 학생들과 외부 이용객의 교차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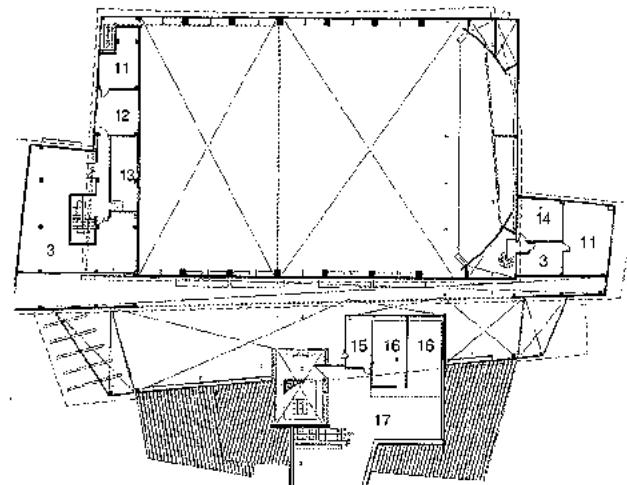
일면도



月周吳庭秀先生班 바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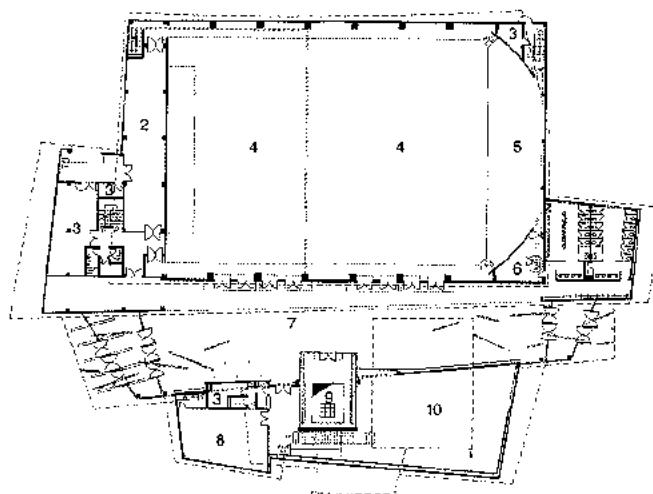
장교들은 64년 1월 1일에 전면적인 국방 체제로 전환되었고, 65년에는 국방부의 3000명의 장교들이 전역하였다.

物理结实、质硬而脆的物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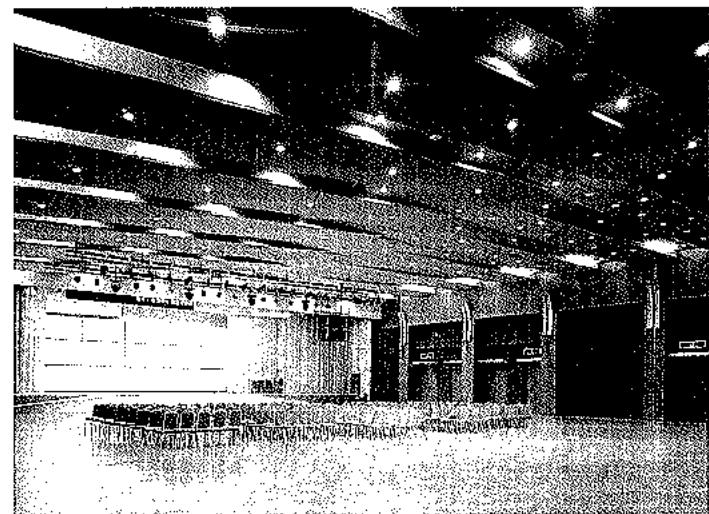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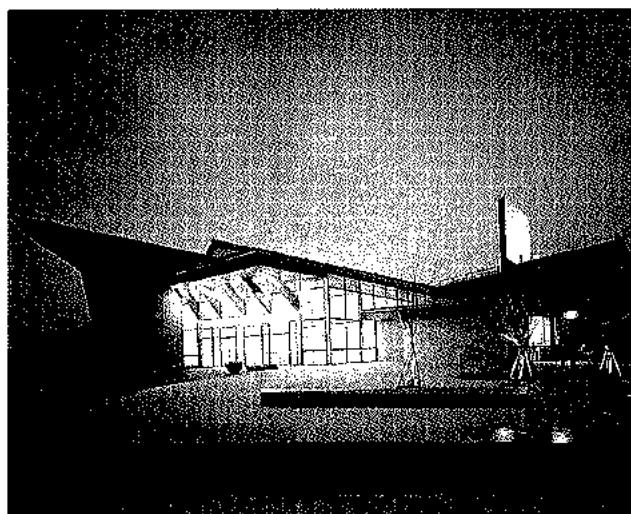


2층 평면도

- 1. 어동칸막이 격납고
- 2. 배선실
- 3. 창고
- 4. 회의장
- 5. 무대
- 6. 대기실
- 7. 로비
- 8. VIP실
- 9. 중정
- 10. 학교발전기념관
- 11. 공조실
- 12. 사무실
- 13. 조현실
- 14. 문장실
- 15. 향촌방습실
- 16. 전시실
- 17. 원강기념관



1층 평면도



# 은평구립도서관 - 안과 밖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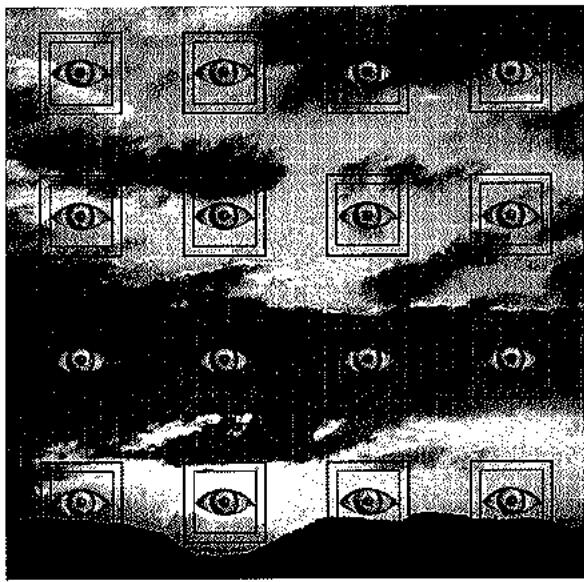
## Eunpyeong Library - Inner and Outer Record

곽재환 / (주)맥건축사사무소  
by Kwak J-H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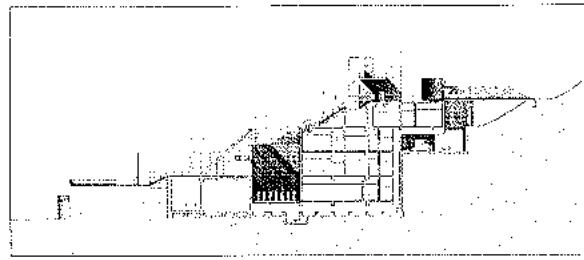
불광동의 오밀조밀한 산동네를 오르다 거의 벗어나는 지점에 도서관 부지가 있었다. 공원부지라고는 하나 전체가 서향에 면한 경사지로서 한켠에 보기 좋은 소나무가 일부 식상하고 있을뿐, 대부분 인근 주민들이 일구어 놓은 듯한 채미밭들로 점유되고 있었다. 왜, 이런 변변한 도로 하나 없는 산동네에 공공 도서관의 부지를 정했나? 그런 의문이 들었다. 그만큼 접근하는 길이 협소하고 미로와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올라온 방향으로 높아서서 산아래를 굽어보니 서쪽으로 전개된 도시의 풍경이 그런 생각을 끊고 시원스럽게 시야에 들어왔다. 방금 자신이 해마다 일상의 거리를 벗어나서 되돌아보듯 밭밭에 펼쳐진 삶의 풍경을 대하니 알 수 없는 우수와 온갖 상념이 일며 삶의 해묵은 물음들이 떠올랐다. 그 장소는 그렇게 생각에 잠기게 하는 어떤 마력이 땅에 잠재하고 있는 곳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불광의 힘에 내가 이끌렸던 것인지. 공공도서관의 입지로서 적지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무언가 깊게 사색하게 하는 곳이었다. 마침, 저물어 가는 해와 붉은 그늘을 드리우며 조용히는 도시를 바라보자니 그야말로 나는 삶에 대해 운동 성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어떤 자장에 흔싸이고 말았다. 비록 길게 누운 서향 햇살



도서관의 원경



이미지: 드로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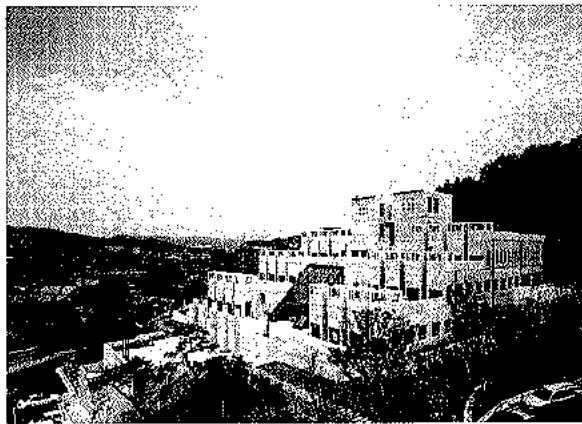
종단면도

과 자외선이 독서와 서가 보전에 바람직 한건 아니지만 이런 예지의 기운을 달리 어떻게 또, 무엇으로 이곳에 가능하게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 보라, 암울한 삶에 지친 도시의 고독한 심사를 파고드는 노을의 저 곁연한 빛과 아스라한 신비! 그리고 소멸하는 존재의 장엄한 메세지를! 나는 주저없이 이것을 모티프로 삼아 작업을 전개해 나갔다.

서향으로 면한 입지 여건의 부정적 측면은 내외부 환경의 물리적 장치를 통해 조율하고, 열린 조망과 노을이 주는 정신적 측면의 메세지를 강조함으로써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장소성을 구축하는 기반으로 삼았다. 그러나 고밀도 주거지에 입지하는 공공시설로서 기준 환경에 유익하게 기여하고 산동네의 평화로운 풍경과 화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선 지형지세에 순응하는 낮은 단형의 외적 형식이 요구되었다. 이 외적 요구는 도서관의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내외부 공간의 시스템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셋백된 옥상을 녹화하여 뒷산과 연결시킴으로써 땅의 잠재력을 높이되, 본래 땅이 지나고 있었던 성격을 회복하여 되돌려 주고자 하는 의도를 함께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지상의 본래 지면이 하늘로 솟고 그 하부로 도서관이 들어선 지하구축물과 같은 형국이 되었다. 이것은 자연과 합일을 추구하며 초자연의 세계로 의식의 측수를 들이대고 있는

나의 자연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산물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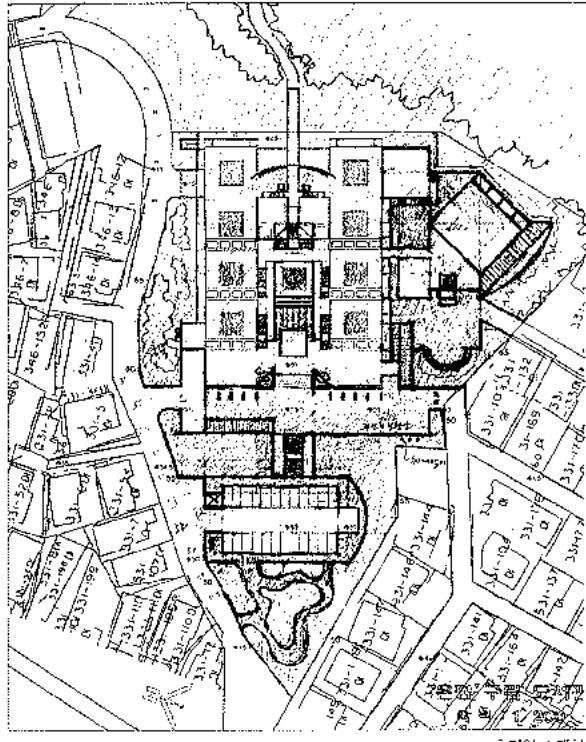
하늘을 지붕삼아 이루어진 도서관의 외부공간에 묘원의 기운이 감돌아 걱정스러웠으나, 어떻게 뜻이 전달되었는지, 감사하게도 설계공모에 당선(1997년6월)되었다는 통보가 왔다. 빙가움에 도상의 공간을 배회하던 마음은 어느새 완성을 떠올리며 내밀었으나 밖의 작업 사정은 시작부터 예의치 못했다. 용역비에 대한 비합리적인 처사가 심사를 긁으며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발주처와 대립하여 어찌겠는가 마는, 그냥 순순히 목과하며 지나칠 수는 없었다. 급기야 부당한 설계 용역비와 과도한 과업 범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았다. 담당관의 엄포성 계약체결요청 공문이 날아왔지만 기한을 2차례나 무시했다. 그렇게 4개월여가 지난 어느날(1997년10월) 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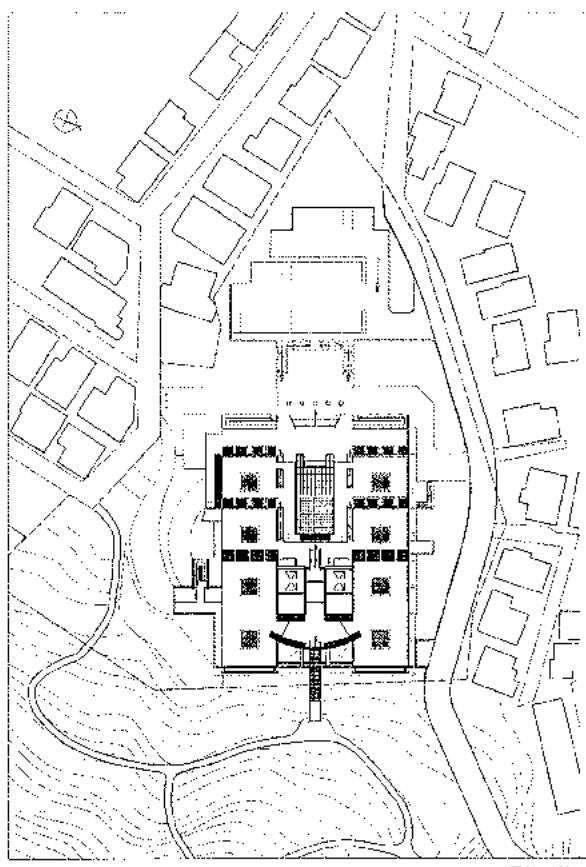
도서관의 선경

장으로부터 공문이 왔다. 본청의 설계비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만 더 이상의 예산책정이 어렵다는 해명과 차후 발주하는 설계용역은 건교부에서 정한 당해 년도 보수기준에 따라 시행하겠으니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시정하는 선에서 이를 수용하고 계약체결(1997년12월)에 응했다. 보수기준이 폐기된 지금 생각하면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말았지만 무원칙하고 안일한 행정편의적 발상에 경종을 주고 설계경기 운영지침과 보수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당시에 취해야 할 최소한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설계실에선 도서관의 제기능을 디자인으로 검토하며 차분히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모든 것을 관찰시키자는 못했지만 도서관을 위해선 잘된 일 이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실시설계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즈음, 설계 인에 심각한 변이 생겼다. 서울시의 공원녹지 심의에서 안이 부결(1998년3월)되었던 것이다. 승인받은 당초보다 건축면적이 크므로 기준녹지가 크게 훼손된다는 것이 부결의 이유였다. 그간의 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녹지훼손의 정황을 생각하면 수긍이 가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수순상 해당부서에서 임의 작



초기안 스케치



최종안 배치도

성한 계획안으로 승인받은 경우였기 때문에 재승인 틀줄로 여겼던 것인데, 난감한 노릇이었다. 수직으로 적층된 바닥을 기울여 단형으로 놓았으니 당연히 건축면적이 커질수밖에. 건폐율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그만 일이 꼬이고

만 것이다. 심의위원들에게 부지의 실태와 설계 의도는 중요하지 않았다. 설명할 기회도 없이 결국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심의를 통과(1998년7월)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당초의 건축면적에 맞추어 재계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단호히 거부하자 쉽게 부분 절단으로 결정이 나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당초 계획안의 한쪽 부분이 잘려 나가고 지금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참으로 씁쓸하고 아쉬운 일이긴 하였으나 그래도 이 도서관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던 개념이 훼손되지 않고, 도서관의 성격을 형성하는 주된 요소들을 대부분 살릴수 있어 다행이었다. 바로 외부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요소가 그것들인데, 그중 핵심적인 요소는 뒷산에서 도서관의 옥상으로 연결되는 석교다. 이것은 이 도서관의 개념을 가장 확연히 드러내는 장치로서 건축과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엮어 융화하게 하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특히 자연스럽게 접근할수 있는 옥상에서 뒷산으로 자유롭게 넘나들며 산책할 수 있게 작용하므로써 인간과 자연을 서로 소통케 함은 물론, 인간의 자유 정신을 향유케 하고, 나아가 고양시키고 있다. 또한 각층에 있는 응석대는 뚝뚝히 기립하고 있는 '모아이' 같은 존재로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장소이며, 진리를 추구하다 사라진 책의 혼과 저 심연의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한 응시의 메타포다. 이 요소는 군집된 형상으로 이곳의 독특한 이미지 형성에 강한 파장을 주면서 독서와 휴식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가능하게 하는 폭넓은



석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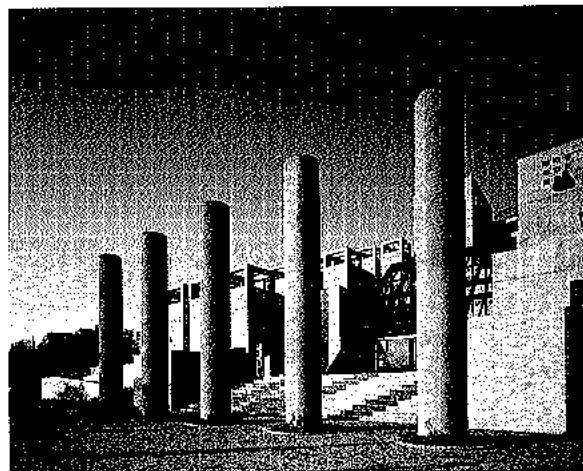
미스트/솔의 모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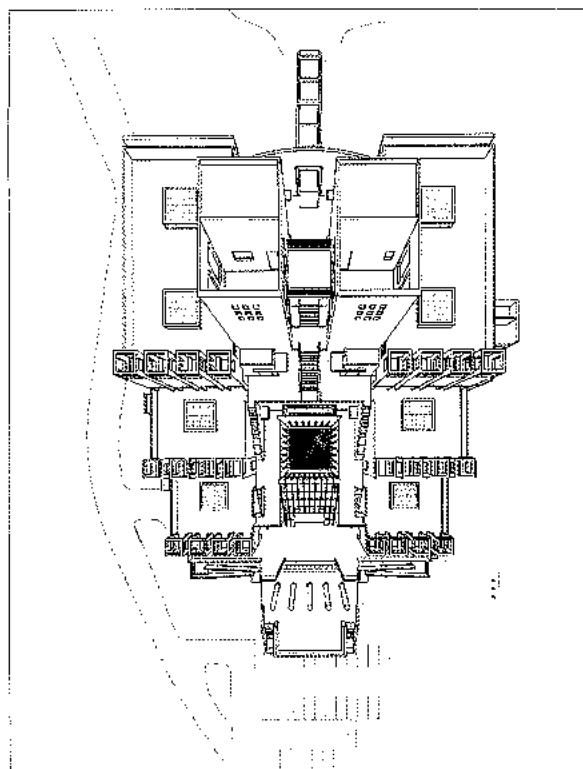
웅석대



반영정



전정의 혐주



조각도

영혼의 행렬이다. 한낮동안 천공을 향해 기립하던 열주는 해질 무렵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우리의 일상속에 신화를 전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후, 축소된 규모로 인해 전체의 프로그램이 조정되고, 이에 따른 내부공간을 일부 변경하므로써 4개월간 지연된 설계를 겨우 마칠(1998년9월)수 있었다. 그해 IMF한파가 밀여 닥친 거울, 드디어 공사는 예정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감리를 수임받지 못한 나는 가끔 현장에서 의견을 개진할수는 있었으나, 멀리서 공사진행을 그저 지켜 보아야만 했다. 법에서 정한 감리조직을 갖추지 않는한, 갖추었다 하더라도 낙찰되지 않는한, 자신이 설계한 것을 감리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설계자의 자긍심을 위축시키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일상화된 부실과 공업 제품과 다를바 없는 창작현실을 반복해온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건축을 단지 기술과 경제활동의 산물로 인식하고 있는 많은 정책 입안자의 편협한 시각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기술을 집약하고 시공의 품질을 향상코자 하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으나, 입찰에 의한 감리자의 선별은 제가치를 결국 경제논리에 의해 재단하고 마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건축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깊은 회의를 조성하고 있다. 더욱이 이를 법으로 공고히 하여 국가에서 선도하고 있으니, 문제의 차원이 근본적이다. 이는 일찰방식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설계자가 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건축은 다른 분야에 비해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만큼 더욱 참여가

쓰임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래서内外공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도모하는 한편,内外의 경계를 넘나드는 열린 사고를 지향코자 하며 온연중에 안팎이 하나임을 자각시키는 메세지를 전한다. 도서관의 중심에 있는 반영정은 이름 그대로 존재의 그림자를 투영하는 상징적인 요소이며 내면의 풍경을 비추어 보는 안(內)을 향한 성찰의 공간이다. 윤동주의 시 '자화상'에 나오는 우물이며, 그곳에 반영된 하늘과 구름과 달을 보며 자신을 비추어는 곳이다. 또한 전정공간에 수직으로 직립한 5개의 원주는 이 도서관의 프롤로그와 같은 요소로서 일종의 솟대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 도서관 그 자체가 하늘로, 일어선 수직의 존재이지만 열주는 하늘을 지향하는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는 표상이자 진리를 추구하다 사라진

필요하며, 자신이 작곡한 곡을 자신이 노래할 수 없거나 지휘할 수 없는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 설계도서에 한 날 기호로 모든 작의와 세심한 뉘앙스를 담아 전할 수 있으랴? 그래서 이는 원리상, 건축의 예술적 가치를 부인하는 제도이며 저급한 문화인식에서 비롯된 물지각의 소산이다. 이로 인한 자의적이고도 기계적인 오독과 왜곡은 우리 문화의 유현한 감성과 오묘한 지성의 세계를 능멸하는 비 문화적인 쳐사가 아닐 수 없다. 건축전문대학원이니, 학제개편이니 하며 건축교육의 틀이 변화하고 있다하나 척박한 문화 인식속에서 타율(외세)에 의해 출현하는 5년제 건축학과의 전도가 자못 비장스럽기만 하다.

타율에 의해 전수된 학습과 그 정보만으로 이루어진 교육의 미래는 종국에 정체성을 잃고 비전도 상실하고 만다. 스스로 성찰하는 능력과 상상력을 통한 창조적인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선 자율의지와 교육의 공간환경이 원천적인 문제 가 된다. 그래서 이곳이 단순히 첨단정보의 제공과 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창고형 마 같은 기능중심의 도서관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함께 융화하는 치혜를 이 장소의 환경이 일깨우는 성찰의 터전이 되길 바랬다. 이는 도서관이 스스로 삶의 이상적인 환경을 구현하고 있어야만 도서관의 존립이유인 정보와 배움의 필요에 대한 당위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내부 기능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인 장소성의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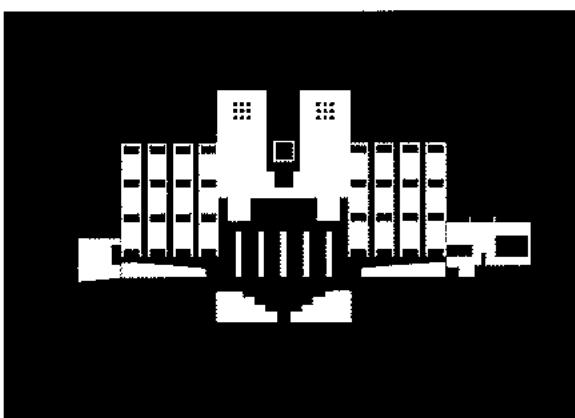
축에 근본적인 뜻을 두고 더욱 관심을 기울인 까닭이 있다.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으로 파악한 보르헤스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들며 모든 사물과 현상을 하나의 텍스트로 삼았다. 모든 경계의 넘나듬, 이를 가능케 하는 공간환경이 이곳에서 추구한 근본적인 장소성이었다.

장소를 구축하고 있는 모든 형상은 본질적으로, 형상이 존재하는 동안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에너지의 덩어리이며 빛의 결정체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언젠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새로운 빛으로 의해될 빛의 화신이고 응집이다. 그래서 형상을 이루는 모든 재료란 기본적으로 하나의 빛이다. 온갖 사물의 형(形)이 공간의 형과 물체의 형으로 나뉘어 불리우는 것은 빛이 지금 그곳을 통과하고 있거나 머물러 있는 현상의 반영이다. 노출 콘크리트는 이곳에 머무르며 도서관이 된 빛이다. 구법에서 비롯하는 물성의 순수한 이미지에 단색조인 무채색이 수묵화에서 느낄 수 있는 한아하면서도 번잡하지 않은 기운을 더하고 있어, 정좌하고 있는 장중한 형상을 짓고 석양의 붉은 빛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소재라 생각했다. 또한 이곳에 식생하고 있는 소나무 향기와 어울리니 더욱 제격이 아닐수 없었다. 이 빛은 철로의 낮고 무거운 음과 같은 소리로 우리의 일상을 비집고 시원으로부터 오는 신화를 전해줄 것이다.

쉽지 않은 노출 콘크리트는 어려운 공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기대한 만큼 나와 주었다. 어렵고 속상한 일도 있었으나 그런대로 2년여의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어느덧 준공이 임박해 왔다. 그런데 어느날, 현장을 방문하고 뜻하지 않은 광경을 접한 나는 착잡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 나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였다.

#### 구청장님께

(이전생략) 뜻선에서 도서관의 옥상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설계대로 설치된 것은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자칫, 다리가 부지 경계선 상에 걸쳐있으므로 해서 공사범위의 해석과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시공이 보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심



도서관의 빛과 어둠



석양빛의 도서관



도서관의 국기개양대

걱정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중략) 설치하고 보니 이 다리는 그야말로 구립도서관의 생명줄과 같은 것으로서 건축과 자연환경을 엮어 융화하게 하고, 단절없이 이곳을 소요할 수 있게 하므로 인간의 존엄한 자유정신을 고양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바로 귀청이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이 그대로 나타난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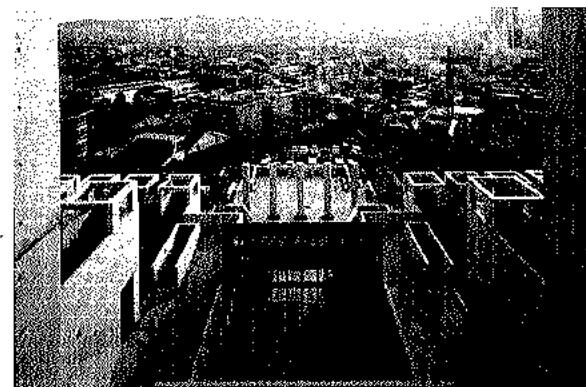
그런데 며칠전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장을 방문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이 도서관이 누릴수 있는 이러한 즐거움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알고 심각한 좌절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다른아닌 이동 배치된 국기 계양대의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설계도와 달리 정 중앙의 축선상에 당당히 배치된 국기 계양대는 이 장소에 펼치고자 했던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문화시민의 자유정신과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한 순수한 열망을 모살하는 치명적인 작용을 가하며 인간중심이 아닌 국가중심의 상징처럼,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의 상징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한켠에 있는 듯 없는 듯 있기를 바라며 노심초사했던 당초의 의도가 크게 왜곡되어 도서관 대신 국기 계양대가 이 장소의 주인으로 자리바꿈 하여 의기양양하게 주변을 제압하는 흑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이 장소가 예지의 정신을 일깨우고 마음을 자혜롭게 가다듬는 배움의 터전임을 생각할 때 두고두고 곤혹스런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 국기 계양대는 앞으로 이 장소를 이용할 학생과 시민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묵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략)

원하옵건대. (중략) 다소간의 번잡함이 있더라도 이와같은 절을 헤아려 설계도의 위치대로 또는 이 장소의 정신을 헤치지 않는 제3의 위치로 시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2001년5월)(이하생략) 그로부터 얼마뒤(2001년6월)에 다음과 같은 회신이 날아왔다. (이전생략)당초 국기 계양대의 위치는 옥외주차장 출입구 우측으로 건물 전면에서 왼쪽에 위치하여 위치 선정상 매우 좋은 위치였으나 주변에 변압기가 설치된 고압 전주가 설치되고 고압전주의 이동이 어려워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감안 하여 부득이 위치를 현재 위치로 이동하였습니다. 변경 위치 선정에 있어 대한민국 국기예관한규정 제17조(국기 계양위치)규정을 근거로 발주청, 김리단, 시공자의 의견을 모아 위치가 선정된바 공사진행중 위치이동은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이하생략) 혀탈하였다. 하여, 시정 요구는 멈추지 않고 그후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 되었다. 지성이면 김천인가! 드디어 9월 하순의 어느날 도서관 개관 준비팀장 으로부터 계양대를 이전 하라는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통보가 날아 들었다. 참으로 기뻤다. 그러나 어인 연고인지? 아직 국기 계양대의 이전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껏 기다려 달리는 답변이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옮겨지리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정식 개관(2001년10월)을 하고 난후 몇차례 도서관에 가 보았다. 작품의 의도와 표현과 실제간에 때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깃들면 밤 공기 속에 짐을 깐 공원의 요정들이 하나 둘 석교를 넘어오고 하늘에선 무수한 별들이 나와 하늘로 가는 이 산책로를 가득 채우리라!” 고 회구했던 그곳으로 향했다. 세상과 하늘로 향해 열린 도서관을 구축하고자 그렇게도 개방과 소통을 열망해 마지 않았건만 석교의 문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었다. 관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3층 옥상에서 출판들을 벌이고, 산책나온 주민들이 잔뜩 흙이 묻은 더러운 신으로 개와 함께 미구 열람실을 출입하니 어쩝니까? 꽉찬생께는 죄송스럽게 되었지만 관리상 도저히 감당할수 없어 부득이 개관 일주일 만에 폐쇄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열릴 그날이 오겠지요. 오, 이 도서관에 펼쳤던 자유의 정신이며! 공유의 정신이며! 보이지 않는 저 존재여! ■



개념드로잉-방영정의 초대



도서관의 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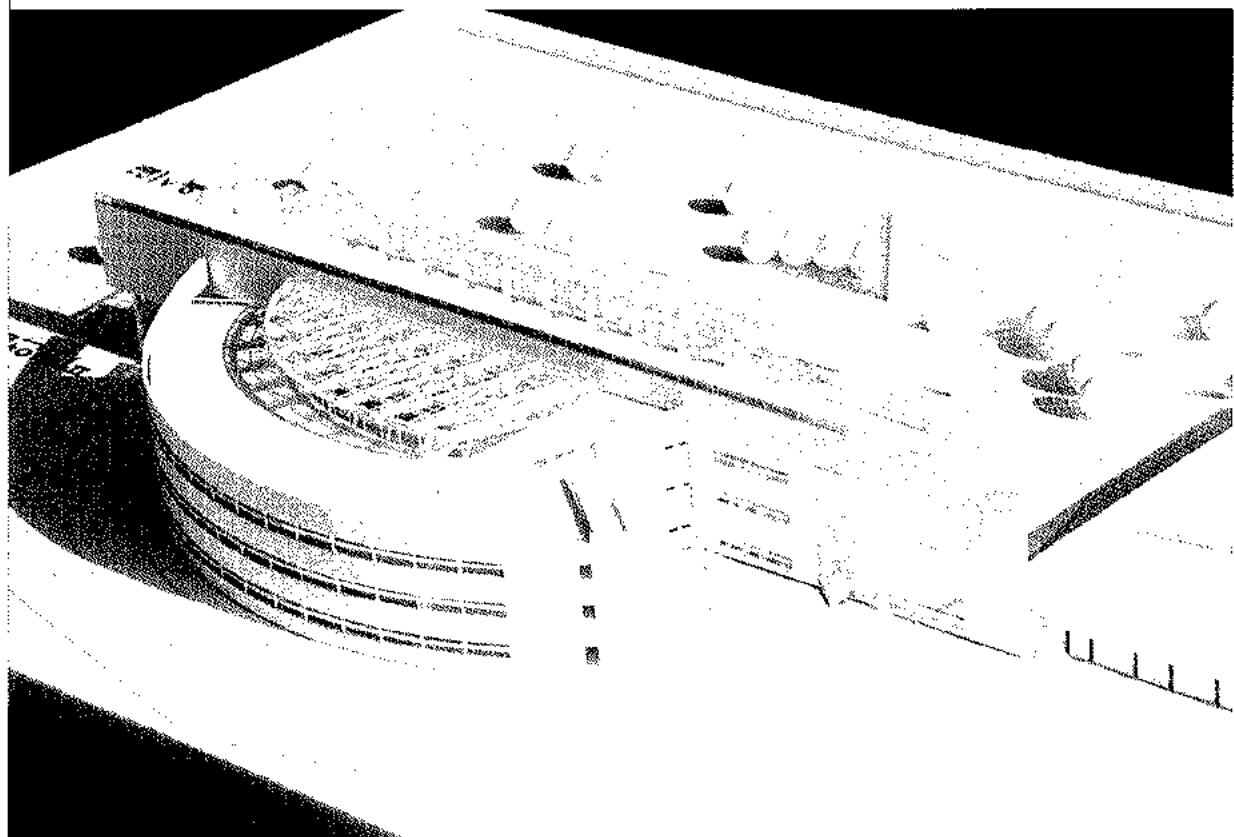
# 미래산업(주) 첨단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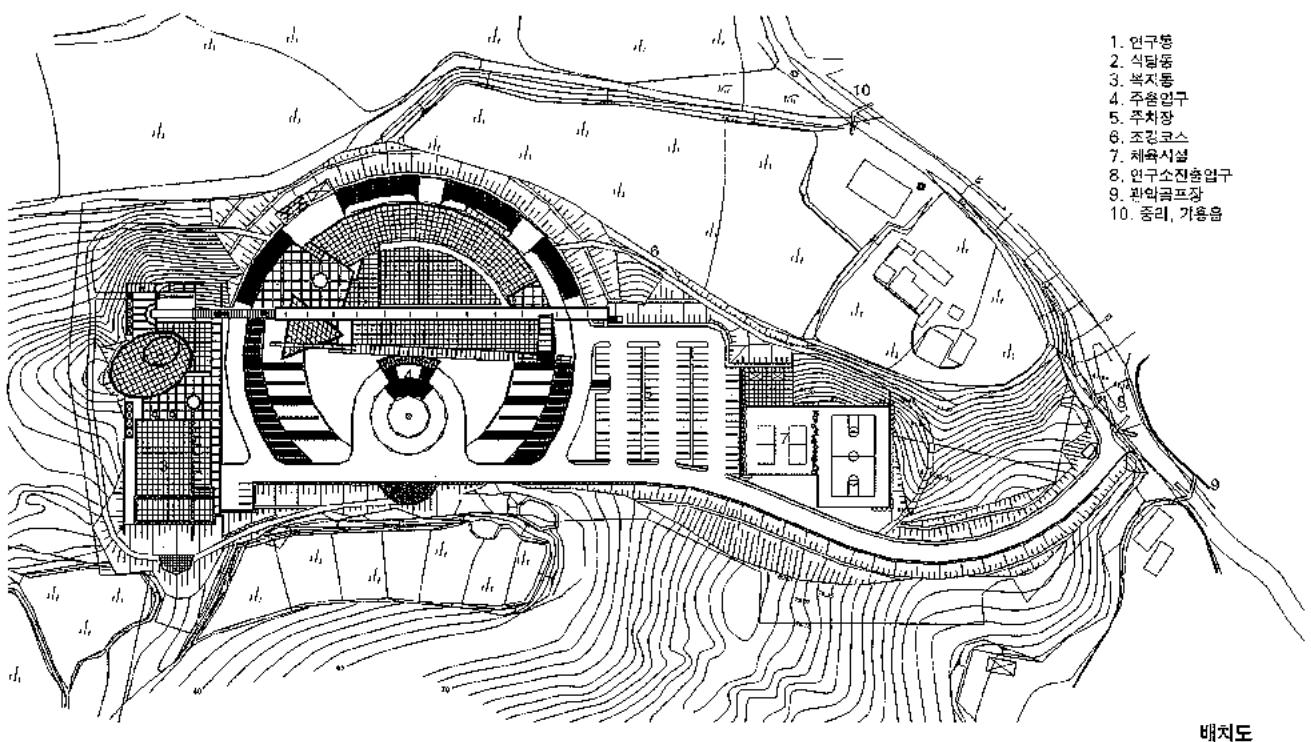
## Mirae High Technology Research Center

김상길 · 김희옥 /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ang-Gil, Kim Hee-Ok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산1, 산2, 산8-1, 산8-2
지역지구	준도시지역, 시설옹지지구
대지면적	38,413㎡
건축면적	5,596.92㎡
연 면 적	15,569.30㎡
건 폐 율	14.57%
용 적 률	29.09%
규 모	연구동 - 지하 2층, 지상 3층 / 실험실동 - 지상 1층 / 식당동 - 지상 2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철골조
주차대수	계획 : 142대(옥내 - 106대, 옥외 36대), 법정 : 41대
외장재료	THK4 알미늄복합페널, TH30 화강석 베너구이, THK18 컬러복층유리
설 계 팀	박충열, 박보원, 류창우, 김준희, 류상보
발 주 처	미래산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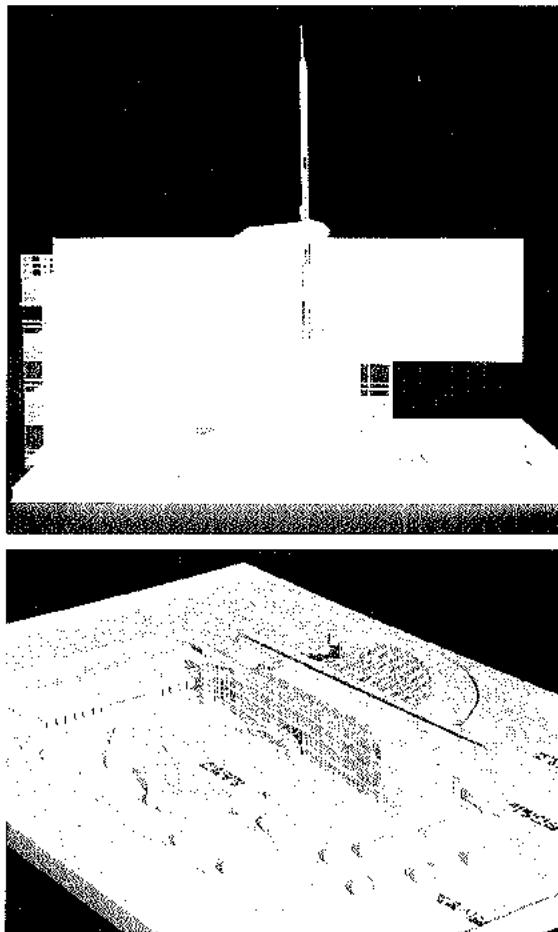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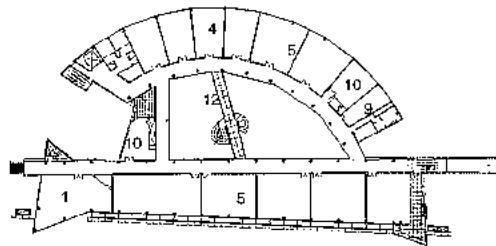
미래산업(주) 첨단연구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특특한 연구소이길 바라는 미래산업의 정문술 전 사장의 바램을 들으면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그 중심은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건물이 아니라 설계자와 사용자의 개성과 성격을 담는 강한 건물이어야 하며, 연구에 몰입하는 연구원을 배려하는 건축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곳은 경사가 급한 야산이었고 장차 남쪽으로 산업도로가 날 예정이라 현재 진입부와 미래 진입부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었다.

연구소의 평면적인 윤곽은 대지 내 진입 동선과 대지 경계선의 모양에 적응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정면의 double skin은 설비적 측면을 고려한 환경적 요인과 형태적으로 단순한 윤곽을 강조하는 섬세한 디테일을 고려하여 적용된 것이며, 이로부터 진입부에서 주출입구에 이르는 강력한 진입축이 형성되었다. 전면의 유리면은 후면의 반원형의 메탈 매스와 조합되어 입체적 힘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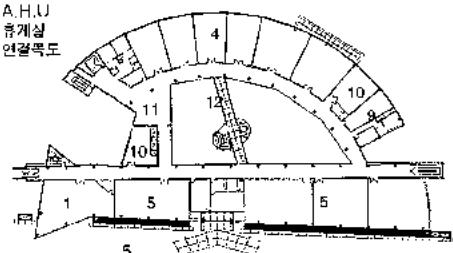
약 100m의 지루할 수 있는 긴 전면의 유리면에 삼각형 mass의 관입으로 형태의 긴장감이 생겨나고, 역동적인 내부공간구성이 외부적으로 나타났다. 전면의 긴 매스와 반원형의 후면매스의 조합으로 인해 생기는 중앙 아트리움은 연구소로서의 상징적인 공간구성과 사용자들로 하여금 조경시설과 어우러진 시각적, 정신적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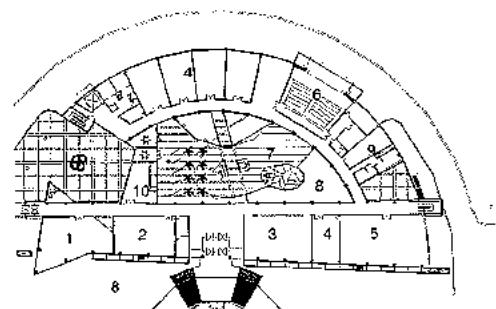


1. 회의실  
2. 사무실  
3. SHOW ROOM  
4. 실습실  
5. 연구실  
6. 강당  
7. 아트리움  
8. 주차장  
9. 전선실  
10. A.H.U  
11. 휴게실  
12. 연결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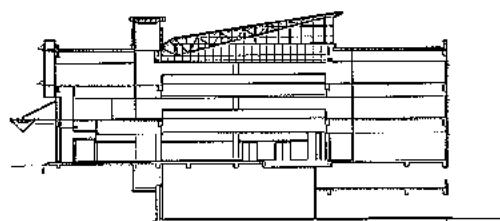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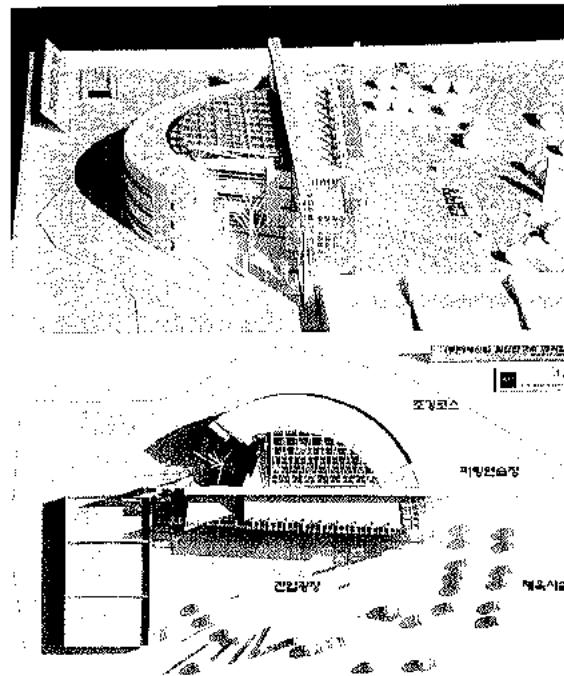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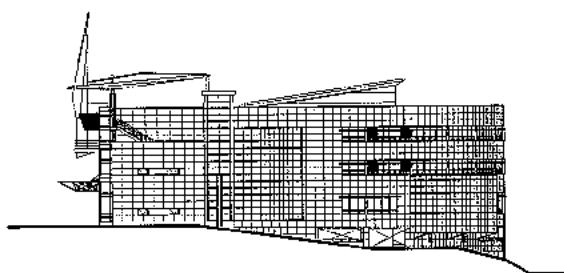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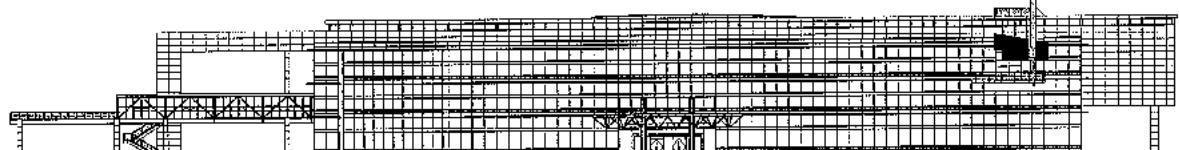


전면축의 갤러리의 확장으로 식당과 각 층의 연결동선을 확보하여 흐름을 원활히 하였으며, 중간중간에 휴게실을 두어 이동하면서 머물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계단장을 연장하여 만든 휴게실은 좁고 높은 공간에 시각을 제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고, 좌측 open된 휴게실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다른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도록 배려하였다.

공사비 문제로 처음 계획보다 많은 부분들이 변경된 점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지만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설계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해주신 마요왕 팀장과 정문술 전 사장의 겸허한 마음이 존경스럽고 감사하기만 하다.



우측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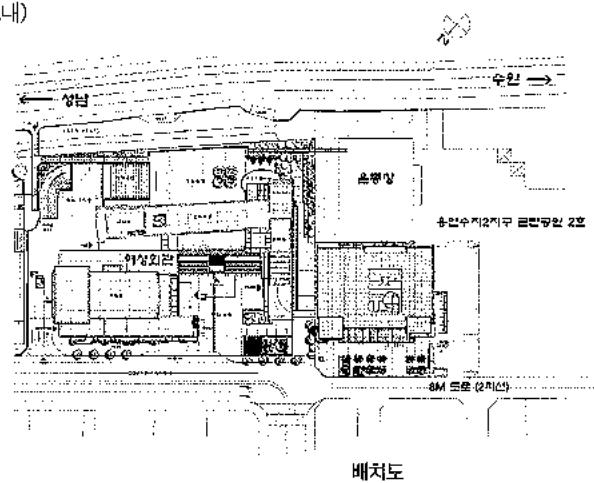
# 용인 공공도서관

## The Public Library of Yongin

김상길 · 김희옥 /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ang-Gil, Kim Hee-Ok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1088번지(용인수지2지구 근린공원 2호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15,538.5m <sup>2</sup>
건축면적	1,225.22m <sup>2</sup>
연 면 적	3,834.18m <sup>2</sup>
건 폐 율	7.89%(법정 : 20% 이하)
용 적 률	20.43%(법정 : 100% 이하)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주차대수	계획 : 29대(장애인용 1대 포함), 법정 : 13대(장애인용 1대)
외장재료	TH30 화강석 벼너구이, THK4 암미늄복합패널, THK18 컬러복층유리
기 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13인승 1대
설 계 팀	지용운, 정재선, 류참우, 김준희, 김영수, 김자선
발 주 처	한국토지공사



현상설계경기를 통해 건축가는 좋은 작품을 할 기회를 갖게 됐다라는 즐거움에 무엇보다도 애착이 생긴다. 그러나 막상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이 갖는 한계 때문에 커다란 벽을 느끼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된 좋은 애니 생겨나도 기술적 혹은 경제적 이유가 아닌 것은 고쳐지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용인 도서관은 무척이나 즐거운 프로젝트였다. 1차 현상설계안이 여러 이유로 면적이 대폭 커지고 시간이 많이 지남으로서 주변의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성격이 더 명확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설계안은 당연히 면적만 키우는 것이 아닌 새로운 애니 요구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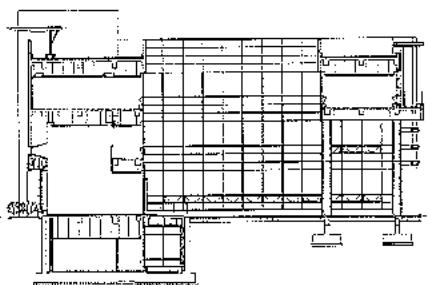
도서관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마음에 두고 있었던 공간들은 알바 알토와 한스 사로운이 설계한 도서관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트인 대규모 공간에서 각 공간의 성격을 바닥레벨로 규정하는 공간 구성 방식에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가급적 벽이 없는 대규모의 공간으로 구성되며 각 공간 단위는 융통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하는 근린 공공도서관을 충간으로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고려를 하였다.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도서관 사무공간과 주민 접합시설은 열람실 군으로부터 분리하고 열람실 군을 최대한 뮤어서 상호간 유기적인 연결기능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 결과 진입부에 면하는 중심공간은 오히려 비워진 중점이 면하게 되

고 좌측에 열람공간, 우측에 부대공간이 생기게 된 것이다. 열람실내의 계단과 창문부근은 책읽기 좋은 공간으로 빌트인 형식의 책상을 배치해서 즐거운 독서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3층의 넓은 열람실은 중정을 가운데 품고있는 밝은 도서관으로 독특한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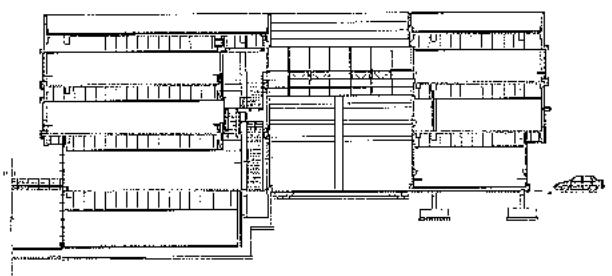
건물의 모든 창은 채광과 시선의 한정을 우선하여 계획되었으나, 그것이 입면에서는 건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요소가 된다. 보통보다 작은창과 바닥까지 닿는 큰창은 훨씬 공간의 성격을 풍부하게 만들게 된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공공건축물의 진행과정에서 느꼈던 답답함은 거의 느끼지 못했으며, 많은 부분에서 자유롭게 논의하여 결정하였고, 설계 과정에서의 ‘말하기’의 즐거움을 많이 누렸다. 소음을 고려해서 로비와 1층 열람실 사이에 문이 생긴것과 1층열람실과 2층, 3층 열람실 사이의 open된 공간이 많이 줄어든 것은 아쉬운 부분이 되었다. 당초 생각했던 큰 공간에 다양한 레벨로 배열되고 다양한 열람공간을 만들어 내고자 했던 것이 제대로 되다만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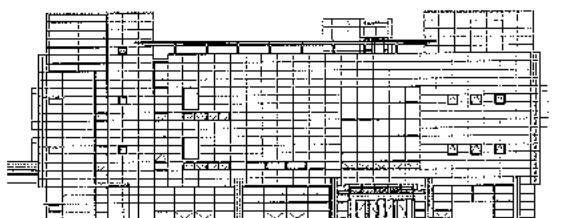
이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만났던 설계감독을 수행한 분들과도 많은 논의를 하였고, 서로 즐거히 하였으며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많은 자극과 배려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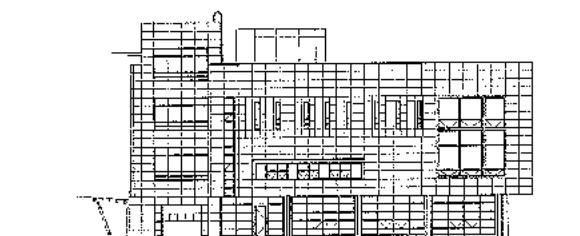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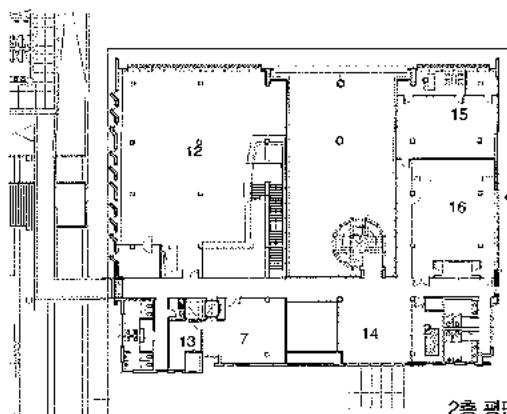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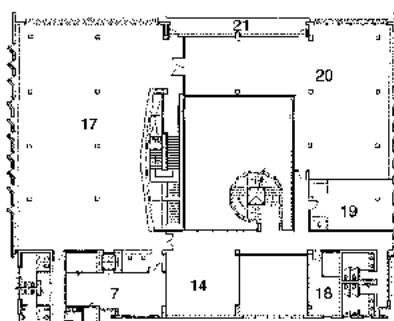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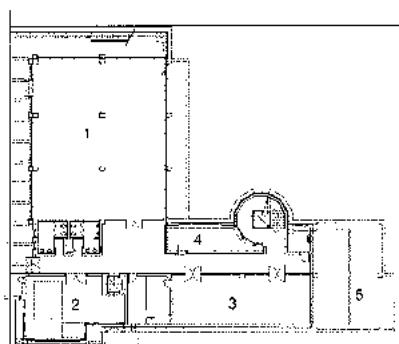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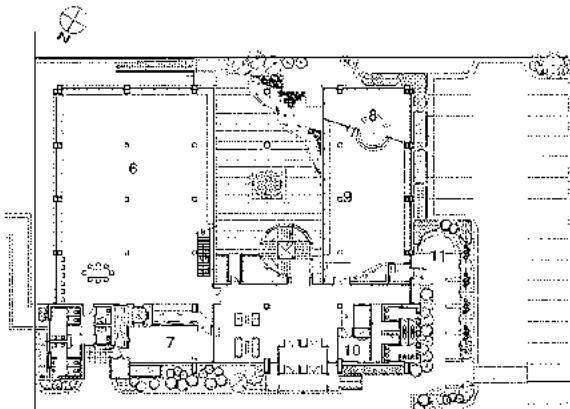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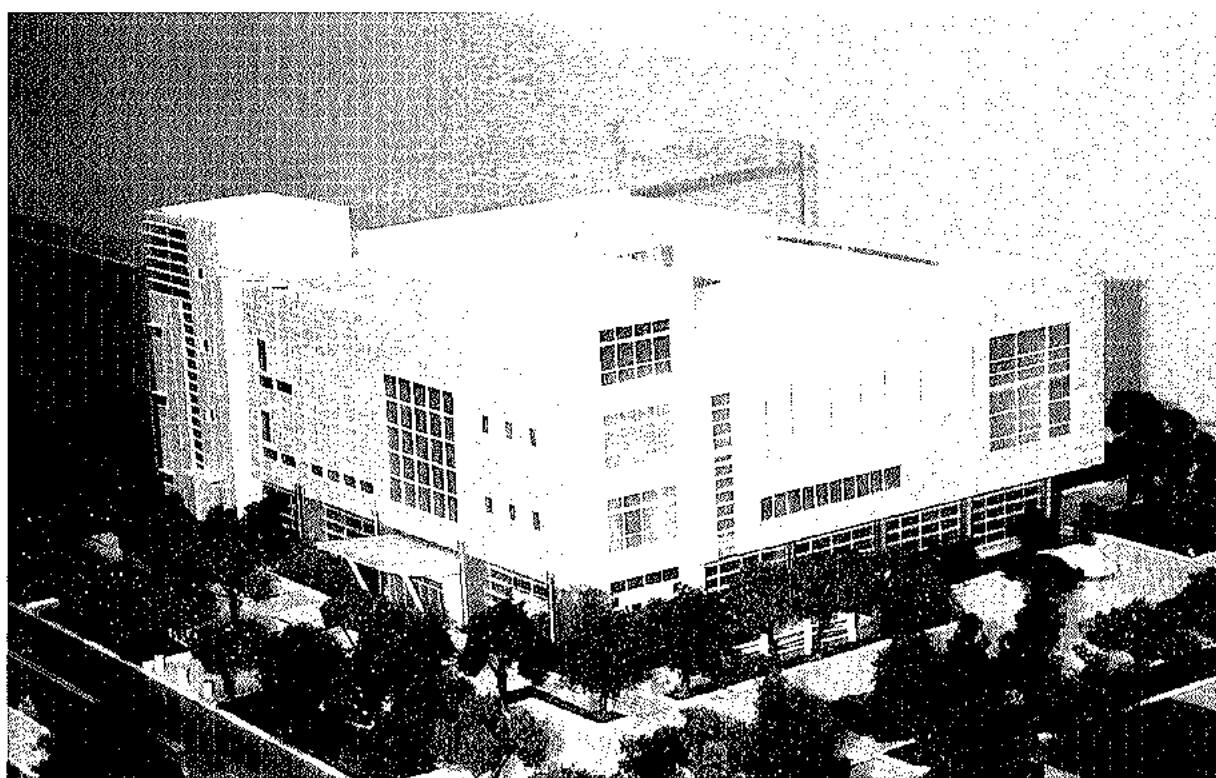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                 |              |            |           |              |         |
|-----------------|--------------|------------|-----------|--------------|---------|
| 1. 청소년상담실/양토전시관 | 5. PIT       | 9. 어린이열람실  | 13. 도서관리실 | 17. 개기/일반열람실 | 21. 밀코너 |
| 2. 공조실          | 6. 광고/정기간행물실 | 10. 관리/숙직실 | 14. 휴게실   | 18. 창고       |         |
| 3. 애진           | 7. 사서실       | 11. 부출입구   | 15. 사무실   | 19. 전자도서열람실  |         |
| 4. 선로           | 8. 뮤지엄룸실     | 12. 개가열람실  | 16. 시청각실  | 20. 일반열람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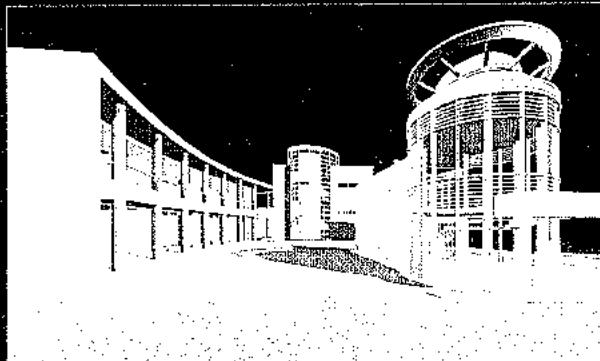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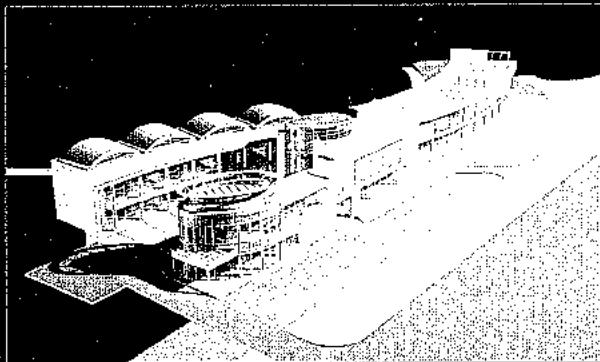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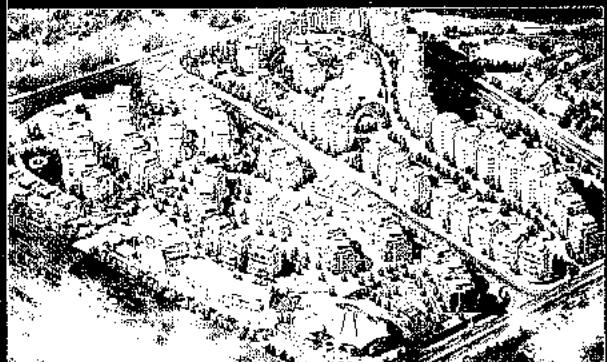
# 중국 건설시장의 현황과 전망(3)

## The Present and Prospect of Construction Market in China

청도시(青島市)의 경험을 중심으로

안길원 · 조민석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by Ahn Gil-Won & Cho Min-Seok

- I. 중국 청도의 도시와 건축
- II. 무영건축의 경험 (1)
- III. 무영건축의 경험 (2)
- IV. 중국 건설시장의 현황과 전망



복합적 가로건축물

## 프로젝트 소개

### (3) 복향곡 가로건축물

위 치 : 중국 청도시  
용 도 : 상가 + 사무실  
대지면적 : 2,012m<sup>2</sup>  
연 면 적 : 4,022m<sup>2</sup>  
규 모 : 지상 3층  
외부마감 : 알루미늄페널, 사암, 투명복층유리

복향곡 가로건축물의 대지는 해안가에 인접한 복향곡 주거단지에 위치하며, 폭이 50m에 이르는 향항동로에 접한다. 복향곡 주거단지에는 주거단지와 더불어 이미 주택전시관이 지어졌으며, 천태그룹 사옥은 원공 단계에 있다. 복향곡 가로건축물은 이 두 건물을 연결하는 동시에 상가와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대지후면 주거단지의 조망을 배려하기 위해, 3층 이하의 저층 건물로 계획되었고 잔디와 초화류를 옥상정원에 계획하였다. 또한, 후면 주거단지의 자연스러운 곡선의 흐름을 반영하여 건물 형태를 디자인하였고, 곡선형의 평면과 그 건물들 사이의 길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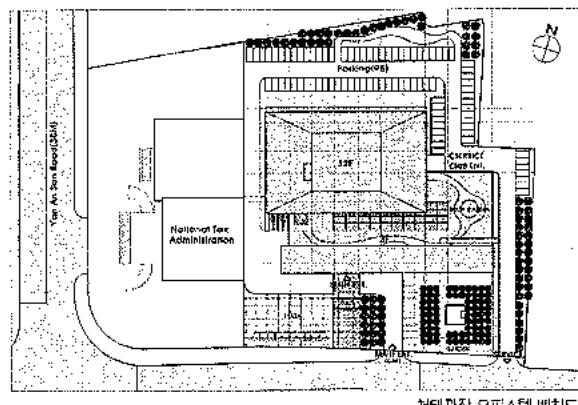
유립의 도시구조를 유추하여, 회랑과 머무는 광장을 연결함으로써 보행자에게 이동에 따른 다양한 공간변

화를 체험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점이 광장을 향하도록 계획하고 분수 등 다양한 조경요소를 도입하여, 단지의 쾌적한 공공 공간이 되도록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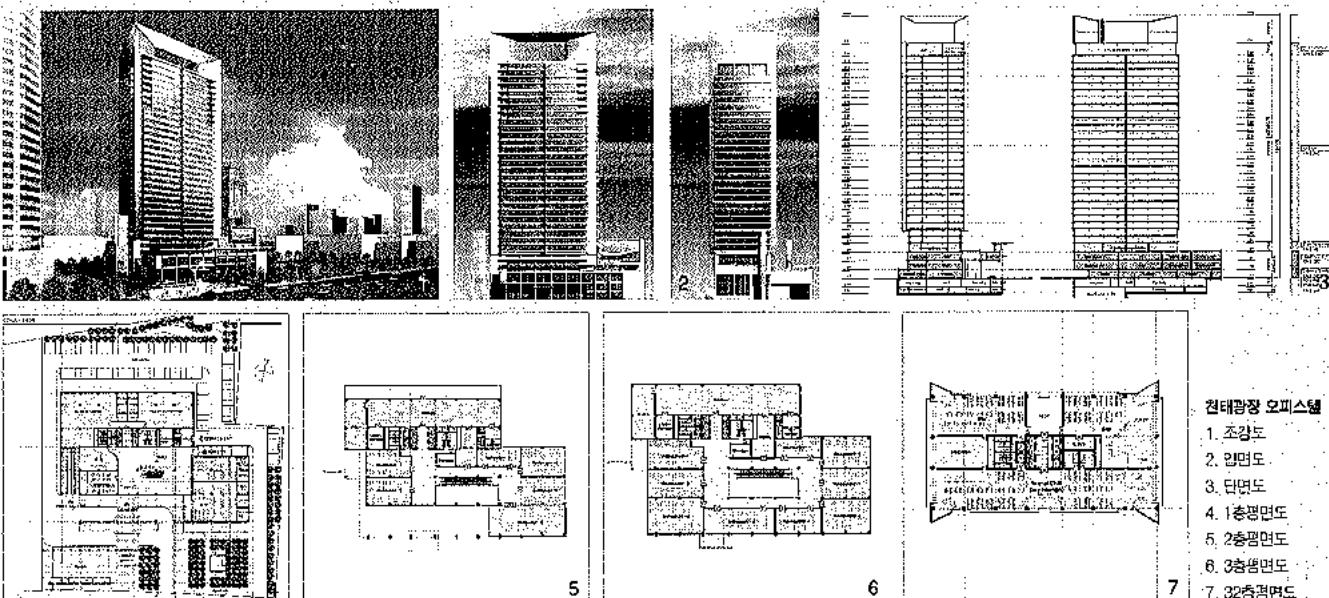
이 가로건축물은 대지의 양끝에 위치한 기존의 주택전시관과 천태본사를 길과 광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천태그룹의 특별한 소도시가 될 것이다.

### (4) 천태광장 오피스텔

위 치 : 중국 청도시  
용 도 : 오피스텔  
대지면적 : 3,838m<sup>2</sup>  
연 면 적 : 68,587m<sup>2</sup>  
규 모 : 지상 32층, 지하 2층  
외부마감 : 알루미늄페널, 투명복층유리



천태광장 오피스텔 배치도



천태광장 오피스텔

1. 조강도
2. 입면도
3. 단면도
4. 1층평면도
5. 2층평면도
6. 3층평면도
7. 32층평면도

청도시의 해안가는 저층형의 타운하우스, 산책로와 더불어 고층 건물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는 이러한 중심업무지역에 위치한다. 따라서, 주변의 건물과 구별되는 천태그룹의 품격을 드러내기 위해, 간결한 형태와 현대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특히, 청도시가 산동반도의 관문이며 항구도시인 점에 착안하여 '청도의 관문(The Gate of Qingdao)'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배치계획을 보면, 전면도로에서 건물을 후퇴시켜 광장과 정원을 계획함으로써 보행자와 건물 사용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상징적인 진입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건물 후면에는 주차장을 배치함으로써 뒷 건물의 일조건을 최대한 배려하였다.

기단부는 3층이며, 1층에는 은행, 증권사, 헬스클럽, 그리고, 2층과 3층에는 레스토랑을 각각 계획하였다. 또한, 오피스텔 사용자들의 사회적 수준을 고려하여, 4층에는 비즈니스룸과 회의실, 32층에는 사교클럽을 각각 배치하였으며, 차량동선계획에 있어서도 VIP 동선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저층부에는 아트리움을 계획하여 깊은 실내까지 자연채광이 들어오게 하는 동시에 시각적 개방감을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 (5) 국풍해양생물약품 공업원

청도시 최대의 제약회사인 국풍제약은 사세

의 확장에 따라 도심에 위치한 현재의 회사를 청도의 신도시라 할 수 있는 황도구로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신축부지는 약 15만평이며, 마스터플랜은 완료된 상태에서 행정동과 연구동을 계획하였다.

#### A. 행정동 계획안

위 치 : 중국 청도시 황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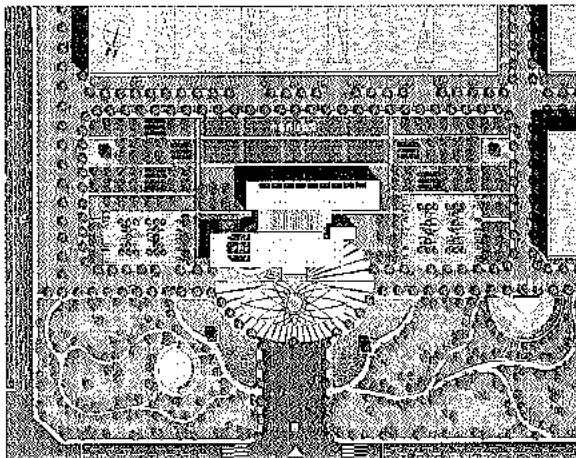
건축면적 : 3,421m<sup>2</sup>

연 면 적 : 8,039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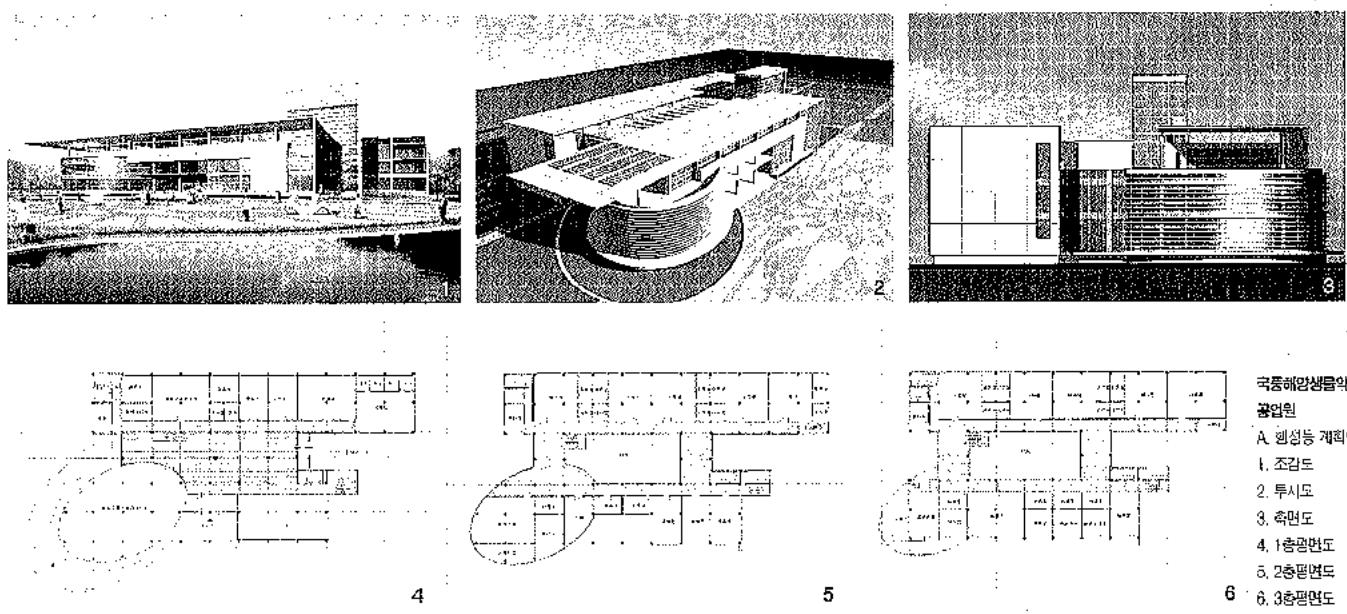
규 모 : 지상3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화강석, 투명복층유리



국풍해양생물약품 공업원 행정동 배치도



형태적으로는 국풍제약의 진취적인 기업 이미지를 담고 있어야 하며, 기능적으로는 밝은 사무환경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행정동 계획을 시작하였다. 중국의 건축물 현황은 아직 유리 커튼월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지만, 미리지향적이며 투명한 기업 이미지를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로 유리커튼월을 선택하였다. 유리커튼월의 행정동은 솔리드한 기존의 주변 건물들과 대비되어 투명하게 반짝일 것이며, 이러한 투명성이 일종의 상징이 되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내부공간 계획에 있어서는, 밝은 사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트리움을 도입하였으며,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사 사무시설이 연계되도록 계획하였다. 외부공간에는 약초원, 식물원 등을 계획하여, 약품을 만드는데 쓰이는 약재를 재배하는 동시에 일반인의 견학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B. 대강당 계획안

위 치 : 중국 청도시 황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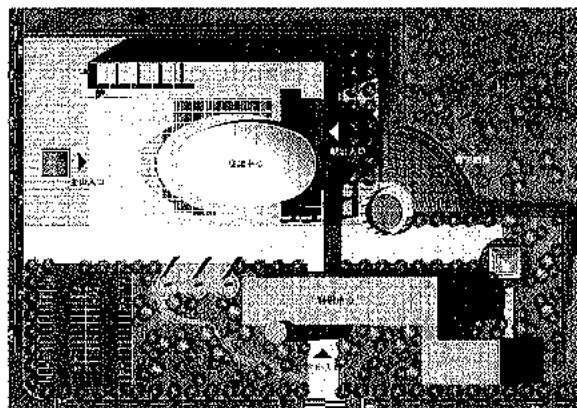
건축면적 : 3,853m<sup>2</sup>

연 면 적 : 5,256m<sup>2</sup>

규 모 : 지상3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화강석, 투명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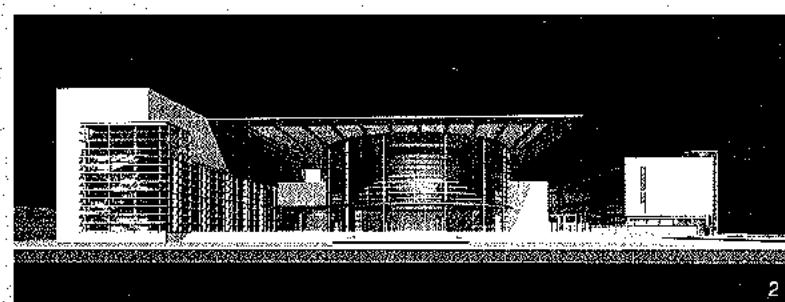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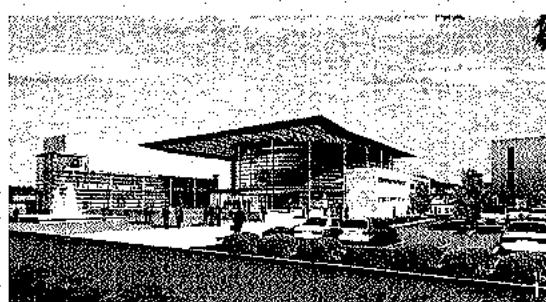


국통해양성동약을 공업원 대강당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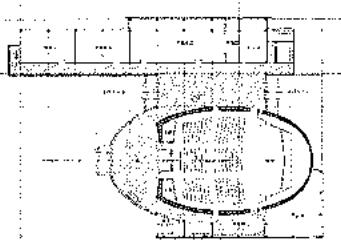
대강당은 약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주방을 별도로 설치하여 연회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홀로 계획하였다. 부대시설로는 중, 소회의실과 사장실, 접견실 등이 있다.

형태적으로는 중국 전통건축의 지붕 이미지를 현대적이면서도 과장되게 계획하여, 친근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또한 진취적인 기업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역동적인 형태 구성과 현대적인 재료 선택을 하였다. 특히 강당의 외벽을 유리커튼월로 계획하여, 지붕이 떠있는 듯한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내부인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의사소통의 장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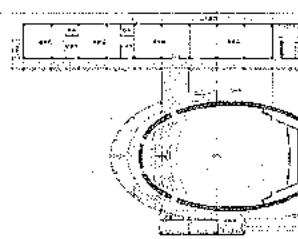
외부공간 계획에서 중요한 점은 강당 후면에 위치한 공원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옥외집회장을 계획하였다. 공원은 대강당 지반보다 약 8미터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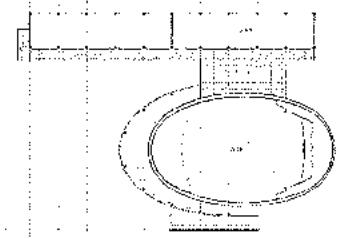
2



3



4



5

- 국통해양성동약을
- 공업원
- B. 대강당 계획안
- 1. 조감도
- 2. 투시도
- 3. 1층평면도
- 4. 2층평면도
- 5. 3층평면도

높은데, 이러한 지형차이를 이용한 옥외집회장은 단순한 통로로서 계단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자연스러운 연결 관계를 위한 공간적인 장치로 계획된 것이다.

#### (6) 황도해안 타운하우스+골프연습장

황도해안 타운하우스+골프연습장은 완만하게 경사진 해안가에 타운하우스와 골프연습장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며, 대지의 총 면적은 72,000m<sup>2</sup>이다. 타운하우스는 청도의 해안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주거형식이며, 골프연습장은 황도구에는 처음이지만 청도에서 점점 증가하는 골프 인구를 수용하기 위함이다.

##### A. 황도해안 타운하우스

위 치 : 중국 청도시 황도구

용 도 : 공동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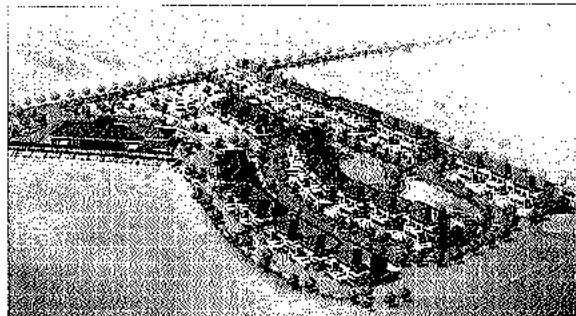
대지면적 : 19,627m<sup>2</sup>

연 면 적 : 10,193m<sup>2</sup>

용 적 률 : 52%

규 모 : 지상 2층~3층

배지계획의 주안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위세대의 조망/향을 고려한 단위세대 배치와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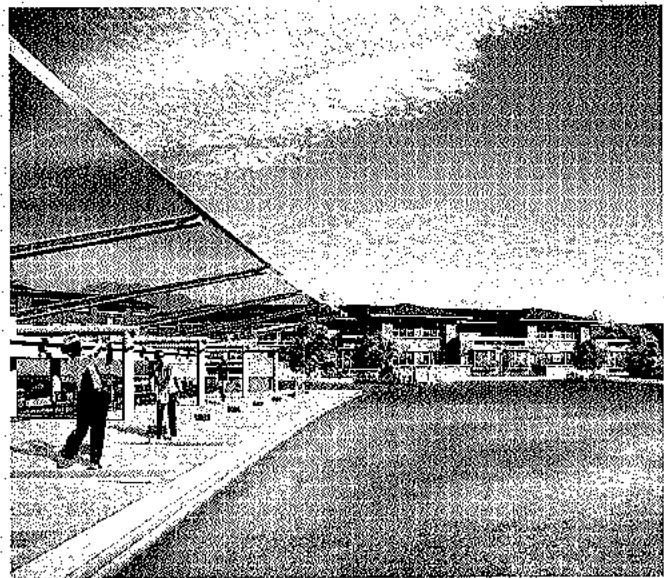


황도해안 타운하우스 조감도.

차적인 개발의 경계선을 활용한 진입로/내부순환의 동선 계획이다.

먼저, 단위세대의 배치에서 청도시는 기후적인 요인으로 예로부터 주거의 남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데, 장방형의 대지는 정남에서 서쪽으로 40도 정도로 기울어져 바다를 향하고 있다. 여기에서, 바다를 고려한 전망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남향의 배치는 토지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대안에서 발전시킬 수 없었다. 2층 또는 3층형 단위세대를 완만한 경사를 활용하여 배치함으로써, 모든 세대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한편, 이 프로젝트는 1, 2단계 개발을 계획하면서 동시에 추후 동쪽으로 3단계 개발을 고려해야만 했다. 따라서 1, 2단계의 경계선과 2, 3단계의 경계선에 근거하여 내부동선과 순환동선을 계획하였으며, 대지에 접하는 두 도로에 각각 진입로를 계획하였다.



황도해안 타운하우스, 골프연습장

단위세대 계획에서는 주차공간을 올타리 내부에 두는 것과 넓은 테라스를 갖춘 평/입면 계획을 우선으로 하였다. 이는 중국인들의 주거에 대한 인식, 즉 도심 외각지역의 고급타운하우스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요리 특성 상 주방과 식당이 분리되어 있고 주방은 비교적 작은 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주택전시관 답사를 통하여 아파트 주거문화를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 B. 황도해안 골프연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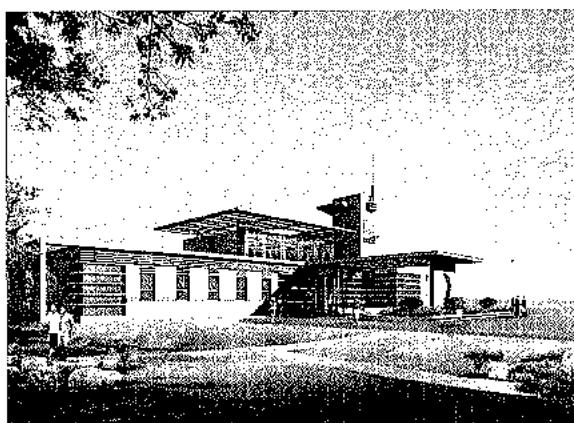
위 치 : 중국 청도시 황도구

용 도 : 공동주택

연 면 적 : 1,537m<sup>2</sup>

규 모 : 지상 1층

외부마감 : 알루미늄페널, 복층유리



황도해안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의 초기계획에서는 단지의 전체적인 조화를 위하여 벽돌로 외부마감을 하였으나, 도시계획국의 요청에 의하여 해안가의 현대적인 이미지를 반영해야만 했다. 이에, 알루미늄페널과 복층유리를 사용하여 벽돌의 무거움에 대비되는 날렵한 느낌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골프연습장의 계획에서 중요한 점은 연습거리 250m를 확보하여 안전망 시설을 계획하지 않는 동시에, 주거단지와 독립된 영역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순차적인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위치와 진입로, 타석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한편, 내부의 홀은 휴식공간이며, 동시에 티운하우스의 분양 및 모형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하였고, 홀과 타석을 중정으로 분리하고 개방 공간을 넓게 함으로써 해안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 TMI의 전망

현재 청도시의 연간 경제성장을은 약 15%에 달하며 도시의 곳곳이 한국의 70년대를 연상시키는 건설 현장으로 기득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양상한 골조물과 전혀 분양이 되지 않은 완성된 주거시설들이 즐비하다. 즉 엄청난 잠재력과 개발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중국을 움직이는 체계는 빈틈이 많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소위 틈새시장은 아니며, 오히려 중국시장에서 적응해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문화, 생활 방식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중국진출에 있어서 지향점을 중국현지화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무영건축이 천태그룹의 제안으로 선택한 TMI의 설립은 중국진출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설계능력만으로 중국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무영건축은 중국에 진출하여 너무 많은 것을 일구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계시장 개척을 통한 급작스러운 이익을 바라지도 않는다. 조금함은 중국 진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가짐이며, 중국인들 또한 이미 외국의 많은 기업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시작했지만 후에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초기에 외국기업의 투자와 회생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국내의 1970년대 셀러리맨의 생활과 2000년대 비즈니스맨의 생활이 공존하는 나라이 중국에 대한 도전,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로운 일이라 하겠다. ■

# 건물에너지성능인증제도 도입 및 시행

## Introduction & Enforcement of Building Energy Rating System

박효순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by Park Hyo-Soon

### 서론

현재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고 있는 에너지절약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약 97%에 달하고 있으며 건물부문의 에너지도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약 30%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급격한 유가상승은 이 같은 비율을 더욱 상승시킬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건물의 에너지절약 기술의 개발은 물론 정책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를 중심으로 국책연구소, 학계와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여러가지 에너지절약기술과 기법, 기준, 그리고 정책 등을 개발하므로서 건물에너지절약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도적 에너지 절약 기준과 대책들은 건물의 특성상 강제적 규정에 의한 의무화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시행상의 부작용은 물론 한계가 있어 이제는 건축주나 시설관리자에게 경제적 이익과 건축물의 내구성 및 가치의 상승효과를 인식시켜 에너지절약의 의지를 고취시키면서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케 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성능 평가기준과 제도가 수립·운영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축주나 건물주 등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의지가 건축설계시부터 값싼 자재, 저렴한 에너지설비 등의 선택으로 시공비를 낮추는데 주력할 뿐 준공, 입주 이후 건물사용 과정상의 막대한 에너지소비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절약과 효율개선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는 건축주나 건물주에게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에너지절약 의지를 고취시켜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공법의 채택과 에너지절약 설비의 도입 등을 유도, 종합적인 열성능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에너지성능인증제도와 같은 에너지절약정책 도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건물의 에너지성능인증제도 도입배경 및 필요성과 국·내외 동향, 아울러 산업자원부 연구비지원으로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성능인증기준·제도 및 보급촉진방안연구(2001. 9) 연구결과(단독, 공동주택, 사무소건물, 숙박시설)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산자부 고시 제2001-100호, 2001년 8월)에 의거하여 시행중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건물(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을 극대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에너지성능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 1. 기존 건물에너지절약 기준 및 정책의 한계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기준의 설정방법은 에너지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충족조건을 만족하는 부위별기준(Component Standard)과 건물 전체부하 또는 에너지소비의 상한에 대한 기준인 성능기준(Performance Standard)등 두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지며 규정준수를 의무화 혹은 권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위별기준 또는 성능기준과 부위별기준의 복합규제를 하고 있는 일련의 법제화의 추진 등 많은 에너지절약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기준치 자체에 대한 신뢰도 부족과 성능기준에 대한 인식부족, 설계와 시공시 문제 그리고 평가방법 문제 등과 의무화에 따른 강제적인 규정의 시행으로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와 같이 각 에너지절약기준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능동적인 에너지절약 참여라는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절약정책이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 2.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성능인증제도 도입의 필요

· 건물의 수요 증대, 건물의 대형화 · 고층화,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로 에너지소비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 기존의 에너지절약기준과 제도들은 건물의 에너지절약에 크게 이바지 하여왔으나 건물의 특성상 에너지효율향상과 제도적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기존의 에너지절약기준으로는 한계가 있다.

· 건물의 에너지절약 관련 제 기준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나 규제에 의한 강제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왔으나 이제는 건축주나 시설관리자에게 경제적 이익과 건축물의 내구성 및 가치의 상승효과를 인식 시켜 에너지절약의 의지를 고취시키므로서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케 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성능 평가기준과 제도가 수립 · 운영되어야 한다.

· 건축물은 개조 및 개축이 용이하지 않아 에너지절약 신축건물은 용도별로 설계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인증기준과 제도에 의하여 에너지소비를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외피, 설비 기기, 사무자동화 등 총체적으로 객관성 있는 건물의 에너지성능등급을 설정하므로서 에너지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인증기준과 제도적기반이 필요하다.

·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발적 노력을 통한 에너지소비절감과 생활환경향상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에너지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평가기준인 인증기준과 이에 따른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

## 국외 에너지성능인증제도 시행현황

선진각국은 1차 석유위기 이후 지원고갈과 공급안정성의 염려 때문에 에너지절약이 갑자기 각광을 받아서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후 세계의 여러나라는 경쟁적으로 에너지절약 정책을 강화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 강화하게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에너지 안전 보장적인 성격이 강하고 급속히 작성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타협적인 면도 있으나 에너지가격 상승이라는 경제적 요인이 뒷받침되고 소비자요구를 근거로하여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혹은 설계자에게 엄격한 요구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러나 다시 석유위기를 맞이하면서 선진각국은 그와 같은 불완전함을 해소시키는 여러가지 조치에 대한 개정이 진행되었고 거의 같은 시기에 지구환경문제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주목을 받게 되어 온난화 방지를 목표로 에너지절약 기준이 다시 검토되면서 에너지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충족조건을 만족하는 부위별기준(Component Standard)에서 건물 전체부하 또는 에너지소비의 상한에 대한 기준인 성능기준(Performance Standard)으로 발전시켜가면서 의무화에 의한 강제적 수단보다는 자발적 의지로 에너지를 절약케하고자하는 에너지성능인증제도 시행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선진각국의 건물 에너지성능인증제도 및 인증마크와 인증서 예이다.

### 1. 미국

#### 1) Energy Star Home/Building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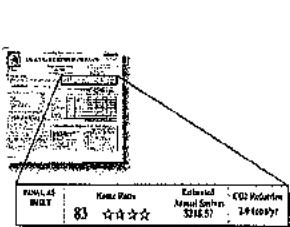
미국 환경청(EPA)과 에너지부(DOE)에서는 소비자의 판단으로서 지구를 살리면서 건물의 성능향상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주택개발을 목적으로 에너지스타홈(Energy Star Home) 프로그램을 1997년부터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스타홈(Energy Star Home)은 미국의 단열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모델에너지코드 보다 30%이상의 에너지효율적인 주택에 대해 연방정부차원에서 인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에너지스타홈은 2001년 상반기까지 약 35,000가구가 인증을 받았으며 2012년까지 1백만

기구가 인증을 취득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 HERS(Home Energy Rating System)

1990년부터 주단위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32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의 에너지등급인증제도이다. 이 제도는 에너지스타珉과 연계되어 일정등급(five star) 이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에너지스타마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그림 1] HERS 인증서의 예



[그림 2] 에너지스타珉 인증서



[그림 3] 에너지스타珉 인증증명판



[그림 4] 에너지스타리밸딩 인증증명판

## 2. 영국

1992년부터 영국의 환경교통지역성(DETR)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에너지절약 평가 및 인증제도로서 건축법에 있는 SAP(Standard Assessment Procedure) 계산표에 의해 에너지성능을 평가한다. SAP rating 80점 이상인 경우에 대해 "SAP 80+" site flag를 제공하고 있다.

## 3. 캐나다

### 1) R-2000, C-2000 인증프로그램

R-2000프로그램은 Natural Resources Canada에서 신축주택의 초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인증제도이다. 1982년에 시작된 이래 8000채의 주택이 인증을 받았으며 800개이상의 R-2000 인증 주택건설업체가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주택자재, 고단열창호, 에너지절약설비기기 등의 개발이 자연스럽게 유도되었다.

### 2) CBIP(Commercial Building Incentive Program)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적 차원(Natural Resources Canada)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서, 에너지절약을 통해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증명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이다.

현재의 에너지절약기준에서 보다 25% 이상의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4. 독일

에너지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GRE Energie Pass와 EnEV Energie Pass가 있으며, 에너지효율등급은 10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다. 평가는 0(kWh/m<sup>2</sup>/year)부터 400(kWh/m<sup>2</sup>/year)까지 40(kWh/m<sup>2</sup>/year)간격으로 나누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 5. 오스트레일리아 (NatHERS)

신축주택에 대하여 NatHERS(Nationwide House Energy Rating Scheme) 에너지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향후 모든 주택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도록 건축법규에 포함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 6. 일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999년부터 (財)住宅建築・省에너지機構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표시제도로서 사무소, 물품판매시설, 호텔 또는 여관, 병원 또는 진료소, 학교 및 음식점과 같은 건물용도에 대하여 신청을 통해 인증마크를 제공한다.

## 7. 덴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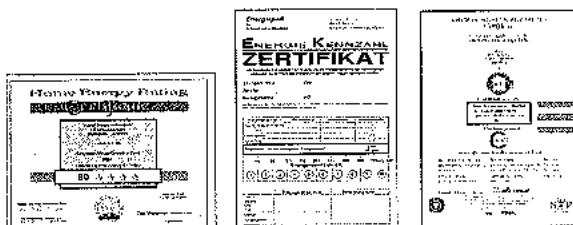
덴마크의 Danish Energy Agency에서는 건물구매자가 에너지소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1997년부터 소규모 모든 건물에 대해 Energy Label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 8. 뉴질랜드 (Energy-Wise Homes)

Energy-Wise Homes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인증제도로서 뉴질랜드의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uthority에서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감하였을 경우 주택건설업체, 제조업체, 건축가들에게 energy saver기금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림 5] 각종 인증마크 예



[그림 6] 각종 인증서의 예

## 국내 건물의 에너지성능인증제도 도입 및 시행

그동안 국내에서는 70년대 중반부터 건축법에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 조항이 제정되면서 부별 단열기준, 총체적 외피기준, 에너지성능기준, 에너지 사용계획서(EPI : 에너지성능평가지표), 목표 에너지원단위기준(유지관리) 등을 연구, 시행하므로 건물에너지절약에 크게 이바지 하여왔으나 이 모든 방안들은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자발적 참여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효율적인 에너지절약방안의 새로운 개념인 에너지성능등급 표시제도에 관하여 1993년부터 2년간에 걸쳐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연구 수행하였으나 개념정리와 에너지절약 가능성은 평가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등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에너지절약에 효과가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용대상 건물을 용도별로 확대(단독주택, 공동주택, 사무소건물, 숙박시설)하여 연구를 수행(1998. 8~2001. 9)하게 되었다. 이중 공동주택에 대하여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00호, 2001.8)이 법제화 되었고 이에 따라 시행 중에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효율등급인증제도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건설사업주체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정부(산업자원부)가 에너지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 인증을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효율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건물의

성능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 2) 인증획득시 이점

건설업체는

· 예비등급 2등급 이상 인증시, 저리 융자

지원 가능

· 건물설계단계에서 에너지절약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건물에너지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건물분양시 마케팅전략으로 활용

· 소비자들에게 에너지절약 및 쾌적한 실내 환경 관련 홍보자료로 활용

· 보일러 등 설비시스템의 용량 감소 및 최적화 시스템 구축으로 원가절감

### 3) 인증방법

■ 대상건물 : 18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 신청인 : 건설사업주체

■ 신청시점 : 신청서류 완비 시점

⇒ 건축공사의 인허가절차와 관계없이 별도

진행

■ 인증기관,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

- 인증기관 : 산업자원부장관

- 운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평가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 4) 인증내용 및 방법

■ 인증의 구분

① 예비인증

신청주택 완공 전, 소정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등급 인증

② 분 인증

신청주택 완공 후, 소정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등급 인증

⇒ 사용검사(가사용승인 포함)가 완료된 이후, 입주전에 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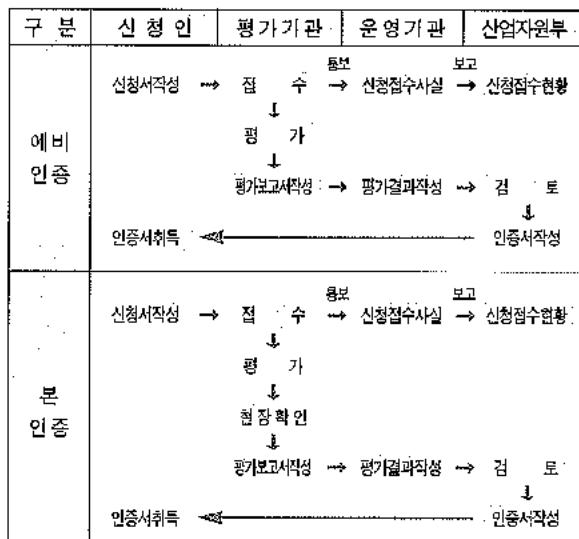
■ 인증등급 및 표시

① 인증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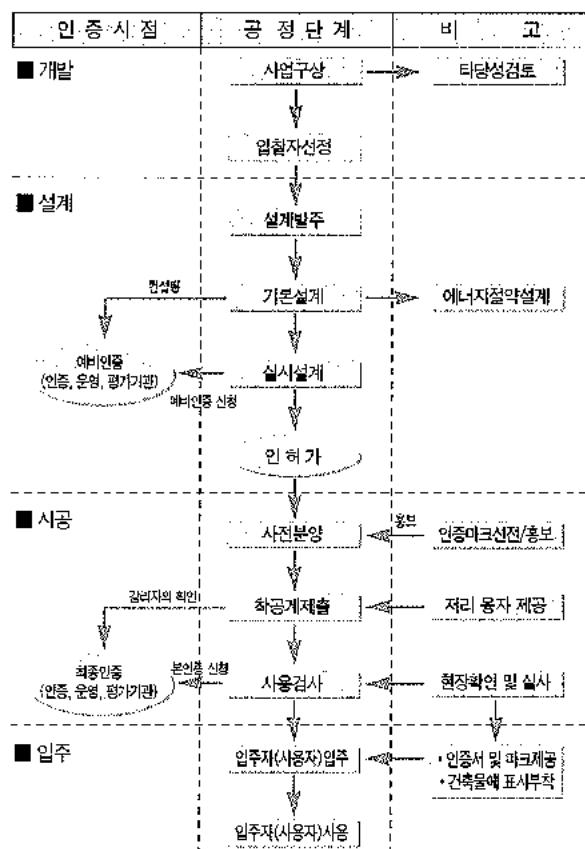
② 등급 표시 : 해당등급의 인증마크 사용

가능

### 5) 인증절차



### 8) 공정대비 인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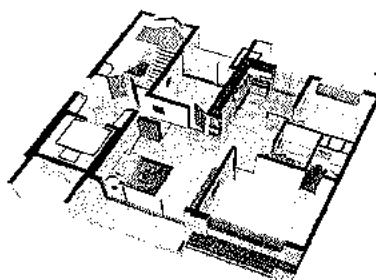
### 6) 제출서류 (인증시점에 따라 약간 다름)

- 에너지효율등급 예비(본)인증 신청서
- 설계도면 및 시방서 1부(Compact Disk 포함)  
(건축계획서, 배지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실내마감도, 건축 설비도, 벽체, 지붕 및 바닥의 부위별 상세도, 창호 및 출입문 상세도와 사용재료의 구체적 명세서)
- 에너지절약계획서 1부
- 최대부하계산서 1부
- 인증받은 실적의 목록
- 기타 필요 자료(성적서 등)

### 7) 등급평기기준 (에너지효율등급)

등 급	절 감 올
1 등 급	40% 이상
2 등 급	30%이상~40%미만
3 등 급	20%이상~30%미만

### 9) 에너지절감율 예시



순 위	절감항목	표준주택 조건	신청주택 조건	항목별 절감율
1	창호 열관류율	3.4W/m²K	3.0W/m²K	약 9%
2	보일러 효율	80%	88%	약 9%
3	창면적비	50%	45~47%	약 4~7%
4	건물 방위	동향	남향	약 3%
5	외벽 열관류율	0.47W/m²K	0.40W/m²K	약 2%
6	기산형적 절감율			약 8~10%
7	첨가율	0.5회/시	0.45회/시	약 3%
예비인증서 절감율				35~40%
본인증서 절감율				38~43%

## 10)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방법

1.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1등급(에너지절감율 40% 이상) 또는 2등급(에너지절감율 30%이상~40%미만)의 예비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2. 융자의 지원범위는 전용 단위면적( $m^2$ )당 31,000원으로 하되, 당해연도 지원한도액은 사업장당 30 억원, 사업자당 100억원 이내로 제한한다. (2001년 기준)

3. 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에 있어 공동 주택의 건축공사 착공시점에 예비인증을 기성고로 갈음하여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자금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의 본 인증을 해당사업의 추천일로부터 3년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사업의 총 공사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이거나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어 3년을 경과하게 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본 인증 취득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대출을 받은 자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의 본인증을 4)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금에 대하여 최초 대출일부터 연체금리를 소급 적용한다.

## 11) 인증서

###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이 건물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00호)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예비인증합니다.

\* 이 인증서는 2001년 8월 일 고시된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견본 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종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동시에 알려야 합니다.

등급		
분야별 평가결과	난방에너지소요량	MJ/m <sup>2</sup> · 년
	이산화탄소발생량(난방)	kg/m <sup>2</sup> · 년
	총에너지절감율	%
인증번호		평가기관
건물명		
소재지주소		

년 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 결 론

지금까지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국외 인증제도 현황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3개년(1998.8~2001.9)에 걸쳐 수행된 건물 용도별(단독, 공동주택, 사무소건물, 숙박시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연구 중 현재 법제화되어 시행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고시(산업자원부 제2001-100호, 2001년 8월)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였으며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도 당해연도(2002년)에 시행을 위하여 고시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에너지성능 인증 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축주나 건물주가 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함은 물론 설계자, 시공자 또는 운용, 관리를 담당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의 의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지구환경을 둘러싼 문제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로 지구온난화 방지책을 강구하는 등 21세기의 환경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종적인 에너지소비 감소와 환경부하 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성능인증제도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수행(1998. 8-2001. 9)한 에너지절약기술개발 연구사업인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성능인증기준·제도 및 보급촉진방안연구" (연구책임자: 박호순)의 성과물임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00호, 2001. 8. 29)

### 제1장 총칙

#### 제 1조(목적)

이 고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의 사용 및 종합에너지 시스템 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성능 이상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건물을 대하여, 효율등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물을 보급촉진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적용범위)

건설사업주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여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 제 3조(용어의 정의)

- ① 에비인증은 신청건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본 인증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인증기준

#### 제 4조(인증)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청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여 에너지절약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물에 대하여 이를 인증한다.

#### 제 5조(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 ①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 인증으로 구분한다.
- ② 신청건물의 에너지 효율에 따른 등급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 6조(에너지효율등급 평가기준)

신청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위한 효율등급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 7조(운영기관)

- ① 본 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규정을 수립한 후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한 에너지효율등급 내용을 공단에 통지하여 유지·관리케 한다.
- ④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본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매 분기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8조(평가기관)

신청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기술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한다.

#### 제 9조(운영절차)

- ① 인증은 신청서류 접수, 평기보고서 작성, 예비인증 및 본 인증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또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서류를 갖추어 평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평가기관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는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접수한 후, "공단"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평가기관장은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기준에 의거 신청건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⑤ 공단이사장은 신청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보고서에 의거 신청주택에 대하여 별지 제 3호 서식 또는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한 인증서(인증마크 포함)를 교부한다.

#### 제 10조(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활용)

인증을 받은 건물은 분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광고, 견본건물에 인증서 및 해당 등급의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때에 예비인증의 경우에는 건물의 완공 후 최종 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동시에 알려야 한다.

#### 제 11조(인증마크의 표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마크는 별표3과 같다.

#### 제 12조(에너지효율등급 인증건물에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건물을 보급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획득한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이용협회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 제 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조(작용범위 제한)

이 고시에서 건설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여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건물의 범위는 1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신청주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운영규정 제정(안)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00호, 2001. 8.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00호(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규정)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주택"이라 함은 신청주택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평가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서, 현재 가장 많이 설계되고 있는 일반적인 건물의 수

준을 말한다.

2. "신청주택"이라 함은 건설사업주체가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여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18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에너지효율평가기준" ① 신청주택의 에너지효율은 [별표 1]의 에너지효율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신청주택의 단위세대 에너지절감율은 표준주택의 단위세대 난방에너지소요량에서 신청주택의 단위세대 난방에너지소요량을 빼고, 이를 표준주택의 단위세대 난방에너지소요량으로 나눈 백분율에 신청주택의 단위세대 기산항목에 해당하는 절감율을 더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신청주택의 단위세대 에너지절감율은 (별표 2)에서 정한 에너지성능평가표에 의거하여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난방에너지소요율은 (별표 3)의 표준주택 설정기준에 따라 (별표 4)의 표준주택 에너지성능평가표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⑤ 단위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율은 단위세대 에너지절감율에 단위세대 전용면적을 곱한 힘을 단위공동주택의 총전용면적으로 나눈 절감율에 신청주택의 단위공동주택 기산항목에 해당하는 절감율을 더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신청주택의 단위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기산절감율은 (별표 5)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⑥ 신청주택의 에너지효율(절감율)은 단위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율에 단위공동주택의 총전용면적을 곱한 힘을 신청주택의 총전용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4조(신청서류) ① 예비인증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예비인증신청서 1부
- 설계도면 및 시방서 1부(Compact Disc 포함)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벽체·지붕 및 바닥의 부위별 상세도, 창호 및 출입문 상세도와 사용재료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 포함)
- 에너지절약계획서 1부(별표 5)
- 최대부하계산서(설비의 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부하계산자료) 1부
- 인증받은 실적
- 기타 예비인증에 필요한 서류

② 본인증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인증 신청서 1부
- 예비인증서 사본 1부
- 최종설계도면 및 시방서 1부(Compact Disc 포함)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벽체·지붕 및 바닥의 부위별 상세도, 창호 및 출입문 상세도와 사용자  
료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 포함)

4. 최종 에너지절약계획서 1부(별표 5)
5. 설계변경사항(예비인증시의 변경된 내용) 1부.
6. 기타 본인증에 필요한 서류

제5조(평가소요기간) ① 에너지효율 예비평가(예비인증용)는 신청서류 접수 후 30일이내에 평가를 원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 등의 보완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에너지효율 평가(본인증용)는 신청서류 접수 후 30일(실내공기정정 평가를 포함하여 신청시 40일)이내에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 등의 보완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인증마크의 표시에 관한 기준 등)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마크는 [별표 6]에서 정하는 인증마크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평가수수료) 평가신청자는 예비인증 평가 및 분인증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기관에서 정한 평가수수료기준에 의거 평가신청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지원) ① 예비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지침」에 따라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금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의 본인증을 해당사업의 자금추천 일로부터 4년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사업의 종 공사기간이 4년이상인 경우이거나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어 4년을 경과하게 된 때에는 운영기관을 통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인증 출득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에너지이율한り회사연비율지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내용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성능시험, 보일러 및 압력용기감정, 에너지관리 기술용역,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확인, 고 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심사 사업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심사사업,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평가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비용산출기준) ①비용산출기준은 정부에너지나이어링사업대가기준(에너지나이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 공고)중 실비정책 가산방식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7호 〈내용생략〉 <u>〈신설〉</u>	제3조(비용산출기준) ① 1~7호 〈현행과 같음〉 8. 건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비용 가. 직접인건비 : 정부에너지나이어링사업노임단가기준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을 적용하며, 특급기술자 1인, 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의 일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는 여비에 한하며 공단 예비규정에 따른다. 다.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를 한다. 라. 기술료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의 20%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비용환불) ~ 제6조(보칙) 〈내용생략〉 <u>〈신설〉</u>	제4조(비용환불) ~ 제6조(보칙) 〈현행과 같음〉 <u>부 칙</u> 이 규정은 200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건축계소식 archi-net

건축계소식 / 87

해외잡지동향 / 91

현상설계경기 / 96

세무안내 / 114

2001건축사자격시험합격자 / 117

신기술 신자재 / 119

2001 건축사지 총 목차 / 120

**2001건축사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자격증 교부**

642명 합격 합격률 13%

지난해 9월 실시한 2001건축사자격시험 결과가 구립 18일 발표됐다.

2001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은 시험과목과 시간 등 시험제도가 변경된 이후 시행된 첫 시험으로 총 5천3백22명이 출원하고 그 중 4천8백86명이 응시해 최종 6백42명이 합격해 13.14%의 합격률을 보여 작년 18.22%보다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2001건축사자격시험에서 최고득점자는 류형호(34, 홍익대졸, 디건축사사무소)씨가 차지했으며, 최고령자는 오정교(57, 한양대졸, 백송엔지니어링)씨가, 최연소자는 조성화(27, 신아경원건축)씨로 알려졌다.

또한 642명 합격자 중 52명이 여성으로 8%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합격자 중 건축사사무소 근무자가 561명(85.8%)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합격자에 대한 건축사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구립 27일에 우리협회 강당에서 교부하였다.

**조병수+박헬렌주현, ar+d  
Highly Commended  
Award 수상**

「우리마을 정신자체아시설」로

건축가 조병수(Interarchitect 대표), 박헬렌주현(헬렌박건축연구소 대표,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씨가 공동 작업한 「우리마을 정신자체아시설」의 설계로 「ar+d Highly Commended Award: Emerging Architecture2001」을 수상했다.

ar+d Award는 영국 건축잡지사 「The Architectural Review」와 덴마크의 d line TM International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으로 45세 이하의 부상하는 젊은 건축가와 완공 건물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번에는 7백점이 넘는 후보작이 전세계에서 접수되었으며, 그 중 26점이 수상하게 되었다. 대상과 우수상에 각각 4작 품씩, 그리고 입선 18작품이 선정됐다. 입선작품 중에 강화도 온수리 우리마을이 포함된 것이다.

시상식은 지난해 11월 29일 덴마크 코펜하겐의 Danish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선정된 작품들은 아키텍쳐럴 리뷰지(0112)에 게재됐다.

참고: [www.arplusd.com](http://www.arplusd.com)**안도 다다오, 2002  
AIA골드메달 수상**

오는 3월 워싱턴에서 시상

AIA(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가 매년 프로젝트, 건축사무실, 건축가, AIA25년상 부문으로 나누어 수상작 및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에게 수여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인 AIA골드메달의 59번째 수상자로 일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선정됐다. 1942년 일본에서 태어난 안도 다다오는 정규 건축과정을 밟지 않은 것으로 도 유명하며, 1970년 다다오 안도 건축 어소시에이츠를 개소하여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3월 워싱턴에서 있다.

### UIA 제4지역 국제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

우리나라 학생작품 8점 입선

UIA 제4지역 국제학생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리나라 학생작품 8점이 입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 출품은 중국 88점, 한국 50점, 베트남 11점, 북한 7점, 필리핀 3점, 오스트레일리아 3점, 싱가포르 3점, 타이완 3점, 말레이시아 1점, 일본 1점 등 총 170점이 접수되어 타이완의 Ch.Panrit Meenate가 대상을 차지했다.

참고: [www.far2000.com](http://www.far2000.com)

### 2002 「한국의 이론과 실제」 강좌

2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한국의 이론과 현장답사, 한국지기 실무에 관한 내용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관련 전문 강사와 질

의 응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토론 및 평가 시간을 가져 오늘날 한옥 전반의 여러 현상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문의: 02-562-0303 [www.hanok.org](http://www.hanok.org)

- 강사: 김대벽(사진가), 이상해(성균관 대 건축과), 김도경(공학박사, 강화 학사지), 이왕기(목원대 건축과), 김종현(베재대 건축과), 이희봉(중앙대 건축과), 권대훈(상곡당 혼장기사), 전봉희(서울대 건축과), 박명덕(동양공전 건축과), 정연상(성균관대 건축공학박사 과정), 양재영(고려대 건축공학박사 수료), 최원석(풍수지리학자, 지리학 박사), 유문용(기구디자이너, 전 문화재전문위원), 한동수(인하대 건축과), 윤대길(조선건축사사무소)
- 기간: 2002. 1. 3.~2. 22.(매주 목요일 10:00~17:30)
- 대상: 건축관련 실무자, 대학(원)생 (선착순 35명)

###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겨울강좌

분학과 예술에 숨은 건축과 공간

민예총 문예아카데미가 다양한 예술 속에 나타난 건축과 공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문화과 예술에 숨은 건축과 공간」이라는 주제로 예술가들이 연출한 공간과 그 해석을 살펴보는 이번 강좌는 1월 12일 개강하여 매주 토요일 17시에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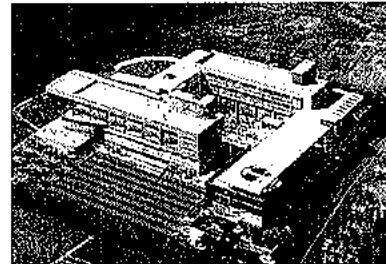
문의: 02-739-6854 [www.kpaf.org](http://www.kpaf.org)

- 1강: 시속의 건축과 공간
- 2강: 회화속의 건축과 공간/노성우
- 3강: 대중가요 속의 건축과 공간/이영미(한국예술종합학교)
- 4강: 영화 속의 건축과 공간/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

- 5강: 만화 속의 건축과 공간/이명석 (만화평론가)
- 6강: 게임 속의 건축과 공간/심경환 (디지털 드림 스튜디오)
- 7강: 시진속의 건축과 공간/김영수(민족사진가협회)

### 안양특수학교, 백궁고등학교 설계경기 발표

한건축(김한철)과 원형건축(손광민)안 당선



안양특수학교 당선작안 한건축의 안



백궁특수학교 당선작안 원형건축의 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안양특수학교와 백궁고등학교의 신축을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계경기는 새로운 교과과정에 부응하는 교육연구시설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치러졌다. 안양시에 위치하게 될 안양특수학교는 정신지체장애학생이 유치원부터 직업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학교로 시설의 복합화에 따른 건물의 기능 체계와 기능성을 심사의 주인점으로 삼았고, 성남시에 자리하게 될 백궁고등학교는 충분한 녹지와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기반으로 최근 교육내용의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학습공간을 제시하도록 요구되었다.

안양특수학교의 당선작은 한건축(김한철)인이, 우수작은 아래종합건축(이인호)의 안이 선정됐고, 백궁고등학교의 당선작은 원형건축(손광민)인이, 우수작은 전인건축(안명제)인이 선정됐다.

## 신간안내

### ◆ 요약·해설 건축제법규

이 책은 2002년 1월 현재 최근에 개정된 건축법·주차장법·도시계획법 및 건축관련 통합기준 등이 수록됐다. 건축법 및 주차장법, 도시계획법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해설하고, 질의·회신을 대록 수록했다.

요약·해설  
건축제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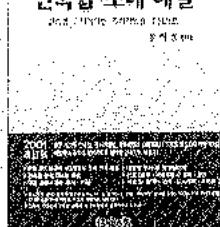


침동찬 저자/ 1,939쪽/5만원(CD-ROM포함)/  
기문당 발행(02-2295-6171)

### ◆ 건축법·조례 해설

이 책은 2002년 현재 최근 개정된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과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했다. 그리고 각종 건설교통부 고시·지침·대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례·질의·회신을 수록하여 실무에 편리하도록 정리한 건축 인의 해설서다.

건축법·조례 해설



윤학경 저자/ 2,176쪽/5만원(CD-ROM포함)/  
기문당 발행(02-2295-6171)

## 제20회 「서울시건축상」 공모

2월 28일까지

제20회 「서울시건축상」 응모작품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동안 건축지도과에서 접수한다. 준공건축물부문과 야간경관 조명부문 등으로 나눠 시상하는 서울시 건축상의 용모대상은 준공건축물을 부문의 경우 2000년 1월부터 지난 해 12월말까지 2년 동안 서울지역에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된 모든 건축물과 건축사가 설계한 대수선, 중·개축을 포함한 리모델링 건물 등이다. 또 이간경관 조명부문에는 작년 말까지 건축물, 문화재, 교량, 상징물 등 외부 경관조명이 설치된 서울지역의 모든 경관조명 시설물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문의: 02-3707-8252

이 기능해 여러 사람이 동일 사업의 건축 심의를 중복 신청, 건축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 조례는 또 인근 건축물 또는 간선도로 등과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건축할 경우 높이제한을 완화해주는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규정을 삭제했다. 시 관계자는 높이제한 완화로 인해 고층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일조권 침해 등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사는 그러나 개정조례 시행 전에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 신청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되 종전 규정에 비해 건축주 또는 시공자, 공사 감리자에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문의: 건축지도과 (02-3707-8253)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 기준 개정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서울시 건축조례개정안 공포, 시행

건축심의 때 지주동의서 제출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심의를 신청할 경우 건축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5일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토지분쟁 및 시전 분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건축대상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심의를 신청할 경우 건축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토록 했다. 이는 현행 규정은 토지소유자는 물론 건축업자 등도 건축심의 신청

건설교통부는 구립 26일 공동주택건설 시의 감리자선정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택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책임감리원의 등급을 상향조정했다. 예를들어 그동안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만 가지면 최상위 등급인 특급감리원이 되어 책임감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사 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도 10년 이상 건설공사 수행경력이 있어야 최상위 등급인 수석감리사가 되어 책임감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공회사의 기술자보다 기술 능력이 우수한 감리원이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시공자를 지도, 감독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가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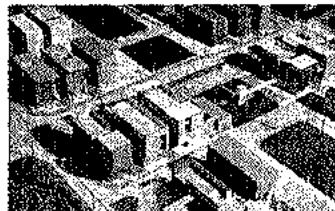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감리원의 잊은 교체를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시 감리원의 교체비도를 평가하여 왔으나, 이 교체비도는 감리원에 대하여만 평가하므로 감리회사에서 감리원을 일방적으로 교체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감리회사에 대하여도 교체비도를 평가하여 회사에도 불이익을 줌으로써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교체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감리원이 시공자를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이 향상되어 결국 입주자에게 질 좋은 공동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2-504-9135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서현(한양대)교수와 정기용(기용건축),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씨를 비롯하여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영국), 세지마 카즈요(일본), 카시 와로(일본), 자비르 데 고위터(벨기에), 창용허(중국)씨 등으로 시범지구 전시회에 비해 외국 건축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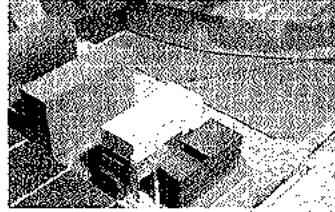
김명시 사옥, 김석월 이기만 건축도시연구원



데코+쌈지 시범지구 상가본부, 조성룡+최수인 팀51



삼호뮤직 사옥, 홍우하 | 송호상



서해문집 사옥, 최문규 기아건축

정정합니다



지난호(0112호) 113페이지 「건축가+술집」에 게재된 위 그림의 작가명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정영호 | 허공 | 서양희 | 72×90cm | 2001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017-3071·강동구건축사회/026-7475·  
강북구건축사회/023-3425·강서구건축사회/061-6099·  
단악구건축사회/024-0048·광진구건축사회/046-5244·  
구로구건축사회/024-5828·금천구건축사회/030-1588·  
노원구건축사회/020-5781·도봉구건축사회/054-1255·  
동대문구건축사회/023-6213·용적구건축사회/015-  
3026·마포구건축사회/023-5251·서대구건축사회/  
033-6411·서초구건축사회/0247-6100·성동구건축사  
회/029-5855·성북구건축사회/022-5117·송파구건축사  
회/023-0158·임천구건축사회/064-6040·영등포구건축  
사회/023-2143·용산구건축사회/017-6607·은평구건축  
사회/030-1496·종로구건축사회/027-3020·중구건축사  
회/021-5748·중랑구건축사회/037-0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6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1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1)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시의건축사회/(031)963-6902·광명건축사회/  
02-684-5645·구리시의건축사회/(031)563-2337·부  
천시의건축사회/032-664-1554·성남시의건축사회/  
031-755-5445·수원시의건축사회/031-241-7987~  
8·시흥시의건축사회/031-318-6713·안산시의건축사회/  
031-460-9130·안양시의건축사회/(031)449-2698·  
의정부시의건축사회/(031)876-0468·이천시의건축사회/  
031-635-0546·평택시의건축사회/(031)657-6149·오  
산시의건축사회/(031)375-8648·용인시의건축사회/  
031-036-0140·광주시의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시의건축사회/(033)652-0126·삼척시의건축사회/  
033-651-6705·속초시의건축사회/(033)603-0050·영  
월시의건축사회/(033)374-2659·원주시의건축사회/  
033-743-7290·춘천시의건축사회/(033)256-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94~6
- 청주시의건축사회/(043)223-3064·목천시의건축사회/  
043-732-5732·제천시의건축사회/(043)643-3388·  
충주시의건축사회/(043)38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1)252-1088
- 공주시의건축사회/(041)1854-3365·보령시의건축사회/  
041-924-3907·백제시의건축사회/(041)1805-2217·  
서산시의건축사회/(041)661-4205·천안시의건축사회/  
041-551-4551·충성시의건축사회/(041)631-2765
- 전라북도건축사회/(083)251-5040
- 군산시의건축사회/(063)452-2815·남원시의건축사회/  
063-631-2223·무주군의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384-7567
- 목포시의건축사회/(061)272-3349·순천시의건축사회/  
061-743-2457·여수시의건축사회/(061)662-7023·  
나주시의건축사회/(061)386-0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시의건축사회/(053)812-6721·경주시의건축사회/  
054)772-4710·구미시의건축사회/(054)451-  
1837~8·김천시의건축사회/(054)492-6698·문경시의  
건축사회/(054)593-1412·성주시의건축사회/(054)535-  
8975·인동시의건축사회/(054)853-0244·영주시의건축  
사회/(054)634-5500·영천시의건축사회/(054)334-  
8256·칠곡시의건축사회/(054)374-7025·포항시의건축  
사회/(054)244-6023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시의건축사회/(055)635-6870·거창시의건축사회/  
055-943-6020·김해시의건축사회/(055)334-6644·마  
창시의건축사회/(055)245-3737·밀양시의건축사회/  
055-355-1323·사천시의건축사회/(055)633-9779·양  
산시의건축사회/(055)384-3050·진주시의건축사회/  
055-741-6403·진해시의건축사회/(055)544-7744·동  
영시의건축사회/(055)641-4530·하동시의건축사회/  
055-1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048
- 서귀포시의건축사회/(054)733-5501

## 건축문화

a+u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e Record

## 건축문화

2002년 2월호

이번 호에서는 초기 근대 건축가 아돌프 로스 (Adolf Loos)에 대한 특집이 마련되었다. 장

석은 죄악이다.'라는 말로 너무나도 유명한 그를 현대의 상황에서 다시 읽어내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줄 메시지를 찾으려는 노력이다. 그의 대표작들의 사전과 도면, 그리고 모형에 의한 공간분석이 소개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로스와 현재의 건축적 담론들을 연관지어 논한 이소자카 이라타(磯崎新) 등의 에세이들로 꾸며졌다.

## ■ 특집: 아돌프 로스 再讀(Adolf Loos Again!)

▶아돌프 로스를 지금 이곳에 소환한다. 정체감이 뿌리깊게 자리나고 커다란 단절을 기다리게 되는 오늘만큼 로스가 필요한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근대건축의 시조중의 한 명인 로스의 가능성은 근대 건축 이후의 전개과정 중에서 소진되어 새로이 생성되는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즉 근대건축은 시대의 제약에 의해 그 본질을 획득하는데 실패하고 우리들이 서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전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로스 건축에 있어서의 표층/장식, 나이아가라움 플랜이나 재료의 문제 등 건축의 쟁점을 현대건축에 접속하는 이 작업은 '절단'에 관한 하나의 전망을 우리에게 던져줄 것이다.

▶이소자카 이라타와의 인터뷰: 지금이야말로 로스가 논해져야 할 때이다.' 이소자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가



로 20세기의 전반은 아돌프 로스, 후반기는 임즈를 꼽았다. 흔히 말해지는 대표적인 거장들을 제쳐놓고 그가 이 두 사람을 꼽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기디온의 저서를 기반으로하여 정리되어온 근대건축의 역사는 20년대에는 말하자면 지극히 비주류라 할 수 있는 근대건축의 아빙가르드들의 활동이 40년대에 그 패배를 맛보고, 2차대전후 헤게모니를 잡은 미국으로 망명하여 모더니즘을 부활시켜 주류를 이루게 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주류가 된 근대건축에 비해 덜 화려하고 패셔너블하지만 좀더 깊은 차원에서 지반적(地盤的)인 변동을 준비하여 그것을 구체적인 표현의 차원, 혹은 시상적인 표현의 차원으로 표출한 인물들이 바로 로스와 임즈라는 것이다.

로스는 반(反)도시적 인 사고를 지녔으며, 카탈로그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골라 건축을 완성한다는 임즈의 작업은 반건축적 인 것이다. 건축과 도시를 긴밀한 관계로 엮어 생각하는 것은 바우하우스와 그 이전의 보자르의 사상에서도 보여지는 생각이다. 그러나 로스는 도시를 건축의 적으로 보았다. 이는 건축을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과 연관시켜 작업하려는 30년대의 근대건축의 흐름과는 달리, 로스는 건축을 문학적인 영역으로 생각하였고, 건축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시를 적으로 삼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외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절된 내부를 구성하고, 이에 내부공간의 구성에 몰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어찌 보면 지극히 용기가 필요한 일로, 임즈의 반건축적 발상이 역으로 20세기의 도시를 만든 것처럼 로스의 반도시적인, 절단(切斷)적인 발상이 20세기 건축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고 이소자카는 평하고 있다.

따라서 로스를 '자루하고 범용화한 근대 건축의 원형'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며, 바우하우스나 고르뷔제가 근대 건축의 미학을 테크놀러지를 사용한 상

품생산과 연관지어 만들어 가려한 것은 오히려 세속적인 발상이며, 로스는 보다 개념적인 (장식의)제거를 해냈다고 그는 보고 있다. 장식은 죄악이다'라는 그의 말도 '오더는 절대 안된다'로 단순히 해석해서는 안되며, 장식이 거짓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라움플랜은 다양한 재질감의 표현과 어우러져 건축에서 신체의 문제와 촉감에 관한 감각을 불러일으켜 젬퍼의 이론과 같이 시각 중심으로 엮어진 건축의 이론들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준다고 지적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어느 작가의 작품을 보아도 어디선가 본듯한, 진정 새로움을 주는 작품이 없는 요즈음, 건축에 있어서 단절을 가져다준, 로스와 같은 발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소자기는 비추고 있다.

▶작품소개: 로스의 대표작들이 현장의 사진과 도면, 그리고 이해를 돋기위해 만 들어진 모형의 사진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물러 하우스(Mller House, 1930)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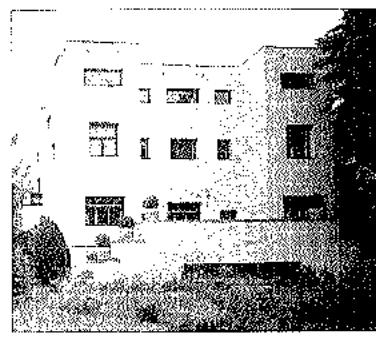


물러 하우스(Mller House, 1930)

그의 원숙한 라움플렌의 기법과 다양한 재질감의 표현, 단순한 외관 등 로스적 수법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으며, 유리를 사용하여 좁은 공간에서 무한정한 공간의 느낌을 시도한 아메리칸 바(American Bar, 1907)에서는 미국국기를 변용하여 입면을 구성함으로서 다분히 팝아트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슈타이너 하우스(Steiner House, 1910)은 단순한 입면의 처리로 모더니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으며, 빈 시민을 도발한 무표정한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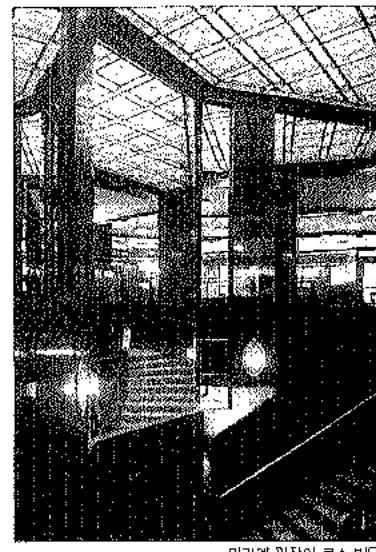


아메리칸 바(American Bar, 1907)



슈타이너 하우스(Steiner House, 1910)

으로 유명한 미카엘 광장의 로스 빌딩은 그의 주택작품에서처럼 단순한 입면과는 대조적으로 복합적인 내부공간구성을 보여준다. 이밖에 로스의 테라스형 태의 건축 중 유일하게 실현된 쇼이 하우스(Scheu House, 1912)와 점포 디자인인 크니세 신사복점(Knize Clothing Store, 1913), 다다이스트인 트리스탄 짜라를 위한 짜라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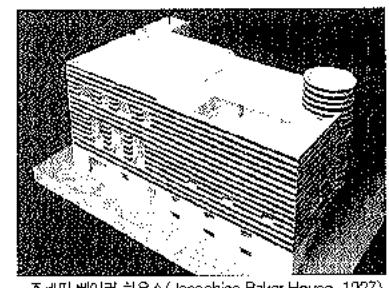
미카엘 광장의 로스 빌딩



몰러 하우스(Moller House, 1928)

(Tzara House, 1926), 라움플랜의 초기 실현작인 루퍼 하우스(Rufer House, 1922), 시선의 드라마가 교차하는 고밀도의 공간을 보여주는 몰러 하우스(Moller House, 1928) 등이 소개되었고, 계획안으로는 시카고 트리뷴사 설계 경기 공모작, 조세핀 베이커 하우스(Josephine Baker House, 1927)가 모형사진과 함께 소개되었다.

▶이 밖에도 오키자키 겐지로우(岡崎乾二郎)를 포함한 4명의 좌담회 "로스는 지금부터 점점 더 위협적이 되어가고 있다."와 코도우 티케시(後藤武)의 에세이 "동시성: 라움플렌에 대하여", 타나카 준(田中純)의 "파괴의 천사", 이시오카 료우지(石岡良治)의 "장식과 반복", 이시미츠 앤스오(石光泰夫)의 "프로이트와 로스" 등 로스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수록되었으며, 로스가 주로 활동한 빈의 20세기 건축MAP도 함께 보여지고 있다.



조세핀 베이커 하우스(Josephine Baker House, 1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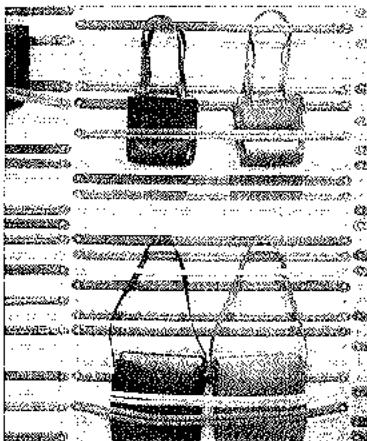
이번 호의 특집은 건축과 패션의 협동작업(Fashionable Collaborations)이다. 최근 세계의 대표적인 도시들에서 전개되는 패션업계의 브랜드 삼은 브랜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이에 패션업계의 브랜드 삼은 건축가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게 되었다. 세계 주요도시에 최근 만들어진 브랜드 삼들을 소개하고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테마들을 찾아보는 특집이다.



#### ■ 특집: 건축과 패션의 협동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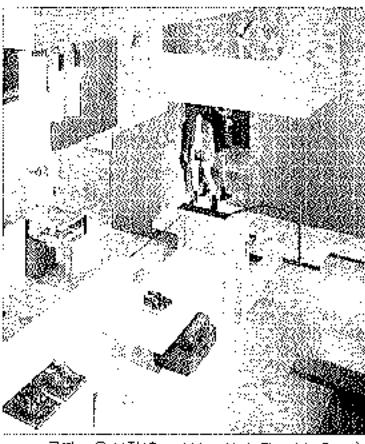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도쿄 등 자국적인 도시에 전개되는 브랜드 삼은 그 이미지의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그치지 않고 각 브랜드들의 표현의 장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90년대의 브랜드 삼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추구되어 세계의 어느 도시에 있어서도 동일한 컨셉의 삼을 전개하는 것으로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어필하였다. 그러나 최근 수 년간에는 보다 개성화하는 도시 속에서 역으로 보다 창조적인 건축이 요구되고 있다. 건축가는 이 매력적인 클라이언트, 매력적인 빌딩 타입을 매력적인 도시에 설계하기 위해 어떠한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인가. 패션 브랜드는 지금 가장 자극적인 현대 아티스트로서, 브랜드 아티스트와 건축가, 그리고 도시와의 자극적인 협력(collaboration)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NL 아키텍츠가 맡은 파리의 만다리나 덕 본점(Mandarina Duck Flagship Store)에서는 끈으로 만들어진 커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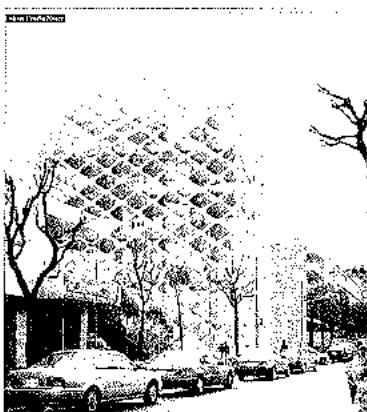
파리의 만다리나 덕 본점(Mandarina Duck Flagship Store)

사용해 틀의 실과 삶의 공간 분할 등을 시도하고 다양한 색조의 고무로 이루어진 벽면, 그리고 쇼케이스의 터널 등이 구성되었다. 스튜디오 소필드(Studio Sofield)가 디자인한 구찌 뉴욕 본점(Gucci New York Flagship Store)은 백색과 프랜치 그레이iton을 주조색으로 하여 매끈한 도장으로 마감한 패널과 트래버틴, 섬유, 목재, 금속 등 다양한 재료를 데 스틀적인 절제되면서도 다채로운 공간구성으로 통일감 있게 구성하고 있다. 벽면에서 쇼케이스, 조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직육면체의 통일된 조형언어를 구사함으로서 총체적 예술로서의 건축을 보여주어 데 스틀이 추구했던 바로 그 공간을 실현하고 있는 듯하다. 글럭맨 메이너 아키텍츠(Gluckman Mayner Architects)의 뉴욕과 도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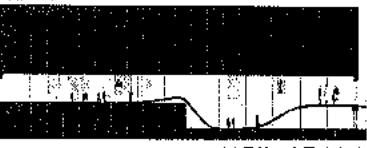
구찌 뉴욕 본점(Gucci New York Flagship Store)

마련된 헬무트 랭(Helmut Lang) 부티크는 절제된 모더니즘적 실내공간과 함께 전광판을 기둥과 계단의 난간 등에 사용함으로서 현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헤르조그 & 드 무론(Herzog & de Meuron)에 의해 디자인된 도쿄, 파렌체, 뉴욕, 알레조의 프라다(Prada) 삼은 가장 선세이션을 불러일



도쿄의 삼

으킬 만 하다. 도쿄의 삼은 그물과 같은 외벽에 렌즈와 같은 유리창들이 깨워져 건물 전체의 모습을 형성하고, 파렌체, 알레조에 세워질 건물도 형태는 다르나 독특한 형태의 외벽이 건물 전체를 감싸면서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굽이치는 바다면을 내부공간에 도입한 OMA의 램 콜하스의 프라다는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도 있으나 프라다는 모든 삼에서 가장 과감한 디자인들을 선택하고 있다고 있다. 이밖에도 존 포슨(John Pawson)이 디자인한 도쿄와 서울의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삼과 일본의 세 지역(오모테산도, 긴자, 나고야)에 세워진 아오카 준(青木淳)의 루이 뷔통



임 콜하스의 프라다 삼

(Louis Vuitton) 샹, 피터 마리노(Peter Marino)의 샤넬(Chanel) 오오사카 샹, 렌조 피아노(Renzo Piano)와 레나 듀마(Rena Dumas: 인테리어 담당)의 메종 에르메스(Maison Hermès) 등이 소개되었다. (번역 / 강상훈)

## Architectural Review

2001년 11월호

지역주의 건축에 대해 새로 조명해보고 그 특성을 잘 보여 주는 근작을 소개하고 있는 이 번 호는 아울러 이러한 건축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Aga Kahn Awards의 2001년도 결과를 보고한다.

### ■ 지역주의의 새로운 인식

최근의 정치적 이슈들이 지역주의의 어두운 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그 면의 의미는 아직도 유효하다. 세계화는 평균적인 삶을 보장하고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줬지만, 각 문화의 획일화를 초래하였다. 지역주의 건축은 토착 건축양식의 향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지역의 자연과 기후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현대의 기술을 가지고 각 지역성에 부합하는 건축을 이뤄내는 것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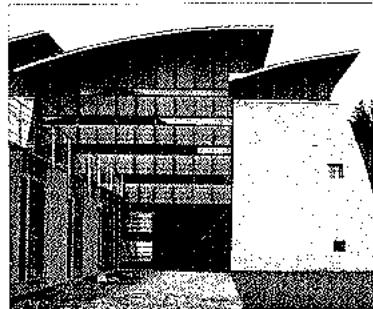


Mecanoo의 로테르담 Chapel

▶ Mecanoo의 로테르담 Chapel  
로테르담의 St Lawrence 천주교 묘지의 역사은 19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H. J. van der Brink가 설계했던 네오고딕 양식의 교회는 전쟁에 의해 소실되어 1963년 동판으로 덮인 원주형 형태의 근대 건축물로 다시 지어졌다. 하지만 이도 노후하여 새로운 교회의 신축이 요구되었다. Mecanoo의 Francine Houben은 보석 상자 같은 건물을 250년 된 석조 기초 위에 올려놓았다. 이 건물을 의뢰받기 전에 Houben은 베니스의 15세기경에 지어진 바ロック양식의 교회와 성당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그 형태가 당시의 유골함과 매우 닮아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이 교회의 디자인 전개에 중요 개념이 되었다. 금색의 불결치는 지붕은 바ロック적 감각을 표현한다. 그러나 내부공간은 정숙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발산한다.

▶ Szyszkowitz-Kowalski의 오스트리아 St Ulrich Im Greich 문화센터  
St Ulrich Im Greich는 와인을 생산하는 마을로 매우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 각종 페스티벌과 공연행사를 치를 수 있는 디목적 문화회관으로서 마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서부 블럭에 지어졌다. 언덕에 지어진 이 건물은 마을 중심의 서쪽 단부의 중요한 이정표를 이룬다. 다소 조용하고 일상적인 마을에 대담한 형태의 이 출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다. 조적조의 파일론은 네모서리에서 대지에 경사와 반대로 솟은 세 개의 곡면 지붕을 지지하고 있다. 파일론은 이 지역 특유의 생신품인 백색타일로 마감되었으며 중앙의 적색 판재는 이 지역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자연재이다. Szyszkowitz-Kowalski의 다른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축조방식의 시각적 겹침은 그 깊이와 재질감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 주 트러스가 노출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표현은 구조적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외부에서 건물의 주요 지지체로



Szyszkowitz-Kowalski의 오스트리아 St Ulrich Im Greich 문화센터

인식되는 네 모서리의 파일론은 실제 내부에서는 매시브한 고체라기보다는 실을 형성하는 벽으로 보여진다.

이외에 ▶ MBM Architect의 바르셀로나 Pompeu Fabra 법과대학, ▶ Judith Hilton, Nina Cohen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 박물관, ▶ Woodhead International의 호주 Karijini 관광안내소 등이 소개되었다.

### ■ Aga Kahn Award 2001

지난 1977년 설립되어 이슬람 세계의 건축물들에 주어지는 제9회 Aga Khan Award의 결과는 예상 외로 실망스러웠다. 1983년 수상작이던 Sherefudin의 유고슬라비아 Visoko 백색 모스크가 보여줬던 작품성 있는 경우가 드물었고, 중동에서 터키,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지어지기 시작한 상업 건축물에 대한 주목도 빠져 있다. 현대 과학과 자본주의 원칙 뿐 아니라 지역 문화와 역사를 독특하게 반영하고 있는 이들 건물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를 겪어온 Aga Khan Award의 시상 기준을 분석하면서 올해의 수상작들을 소개하고 있다.

### ■ 기타

▶ Aga Khan Chairman's Award를 받은 스리랑카의 건축가 Geoffrey Bawa와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그의 작품 세계, ▶ Foster and Partners의 영국 런던 Aldwych 대학 건물 인테리어, ▶ Ushida Findlay의 영국 수영장 등을 소개하고 있다.

2001년 11월호

이번 호는 과거의 건축 유산과 현대 건축간의 관계를 묻는 글들이 특집으로 실렸다. 근대 건축 유산의 리노베이션과 보존 문제 등을 건축사적, 기술적으로 조명하였다.



## ■ 의사 경험 중심 사회에서의 실재와 진위성

Louis Kahn이나 Carlo Scarpa의 근대 초기 건축물들은 우리에게 현실 그대로 이야기한다. 그것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설득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 이러한 실재성과 진위성이 이제 가상의 현실과 경험을 만들어내길 원하는 경제 논리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레스토랑들은 음식의 맛보다는 분위기나 서비스의 측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웨이터들은 배우가 되길 강요받는다. 공조시스템이 잘된 쇼핑센터는 로마의 변화기가 되며, 거대규모의 교외 서점들은 과거의 상류주택 서재로 바뀌었다. 궁전에서 영화를 보면, 어린이 병원은 회복을 위한 여행의 출발지가 되었다. 즉 모든 장소, 사물, 서비스, 이벤트들은 테마화되고 끝없는 카니발의 일부가 되고 있다. 건축가들이 이러한 변화에 쉽게 동화된 이유는 건축도 영화, 연극, 음악과 같이 쉽게 경험을 생산해내는 다른 문화와 경쟁하기 위해서이다. 건축은 자연과 문화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실재와 비실재의 양면성을 지닌다. 건축의 실재적인 문제는 기술적 물리적 요구의 측면에서 발현되어 왔다.

## ■ 보존주의자들의 족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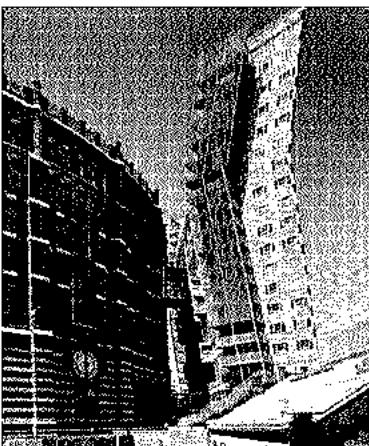
샌프란시스코 유니온 스퀘어의 Rem Koolhaas의 Prada Shop 분쟁은 지금 건축계의 핫이슈가 되었다. 진보주의자와 장식주의자 모두의 온상인 이 도시가 과연 미래지향적인 이 건물을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잘 보존된 과거의 그 모습을 유지할 것인가? 시의회는 도시 계획위원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었다. 이러한 작은 승리는 지난해 봄 캠브리지에서 있었던 매우 유사한 분쟁과는 대조적이다. 지역 문화재 위원회는 한스 홀라인의 하버드 스퀘어 사무동 계획을 반려하였다. 많은 건축가들은 무미건조한 미국의 도시 환경의 책임은 보존주의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보존주의를 반대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현재의 법은 과거를 성역화하는 것이지 역사의 본질인 변화를 억압하는 장치이다.

## ■ 과거와 현재간의 대화

다음 소개하는 작품들은 과거와 현재의 대담한 병치를 의도한다. 기존의 구조물을 재시용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건축가들은 단순히 반복하거나 재해석하기보다는 이전 건축물에 대한 경의를 취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 ▶ Coop Himmelb(l)au의 비엔나 가스탱크 B 프로젝트

1896년 가스탱크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거대한 조적조의 실린더 건물에 새로 주거 기능을 삽입시킨 이 작품은 옛 건물



Coop Himmelb(l)au의 비엔나 가스탱크 B 프로젝트

의 육중함과 대조적인 유리벽 매스를 더하기도 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례로, 나머지 3개의 실린더는 Jean Nouvel, Manfred Wehdorn, Wilhelm Holzbauer에 의해 재개발된다.

그 외에 ▶ Saucier+Perrotte의 캐나다 퀘벡 Collège Gérald-Godin, ▶ Wilkinson Eyre의 영국 Magna Project, ▶ Dan Hanganu, Provencal Roy의 캐나다 몬트리올 Centre d'Archives 등이 소개되어 있다.

## ■ 리노베이션

21세기를 맞아 지난 세기의 건축들도 이제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 가고 있다. 옛 건물들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그 용도를 개선해간 사례들을 소개한다.

### ▶ 미국 뉴욕 Corning의 Rarow 연구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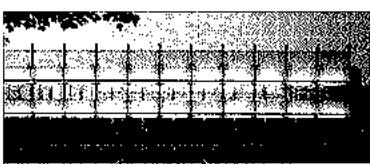
1960년대에 지어진 평범한 박스 형의 사무실 건물이 Bohlin Cywinski Jackson에 의해 새로운 도서관 건물로 재개발 되었다.

▶ 미국 텍사스 Fort Worth의 Amon Carter 미술관은 지난 1961년 Philip Johnson이 설계했던 것으로, 리노베이션 역시 Philip Johnson/Alan Ritchie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외에 ▶ John Hejduk의 1973년 설계했던 네덜란드 그로닝언의 월하우스, ▶ John Lautner의 1950년대 할리우드 저택 리노베이션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 ■ 기타

▶ 특별 리포트로 911 테러 이후 뉴욕의 복구 상황, ▶ 테러 지역 재건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 ▶ 세월에 의해 마모된 역사적 외관 보수법 등을 다루고 있다. (번역 / 최원준)



Rarow 연구 도서관

##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삼표산업 풍남동사옥 / 96

광나루초·중학교 / 98

천천고등학교 / 102

부천특수학교 / 106

송내고등학교 / 110

한국과학기술한림원회관 / 112

### 삼표산업 풍남동사옥

Sampyo Industrial Poongnap Building

#### ▶ 당선작 / 이로재건축사사무소 (승효상)

대지위치	서울시 송파구 풍납2동 309-6
지역자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3,741.00m <sup>2</sup> (1,131.7평)
건축면적	2,072.02m <sup>2</sup> (626.8평)
연면적	12,115.85m <sup>2</sup> (3,665.0평)
건폐율	55.4%
용적률	179.1%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대수	90대
주요외장	노출콘크리트, 금속패널, 투명복 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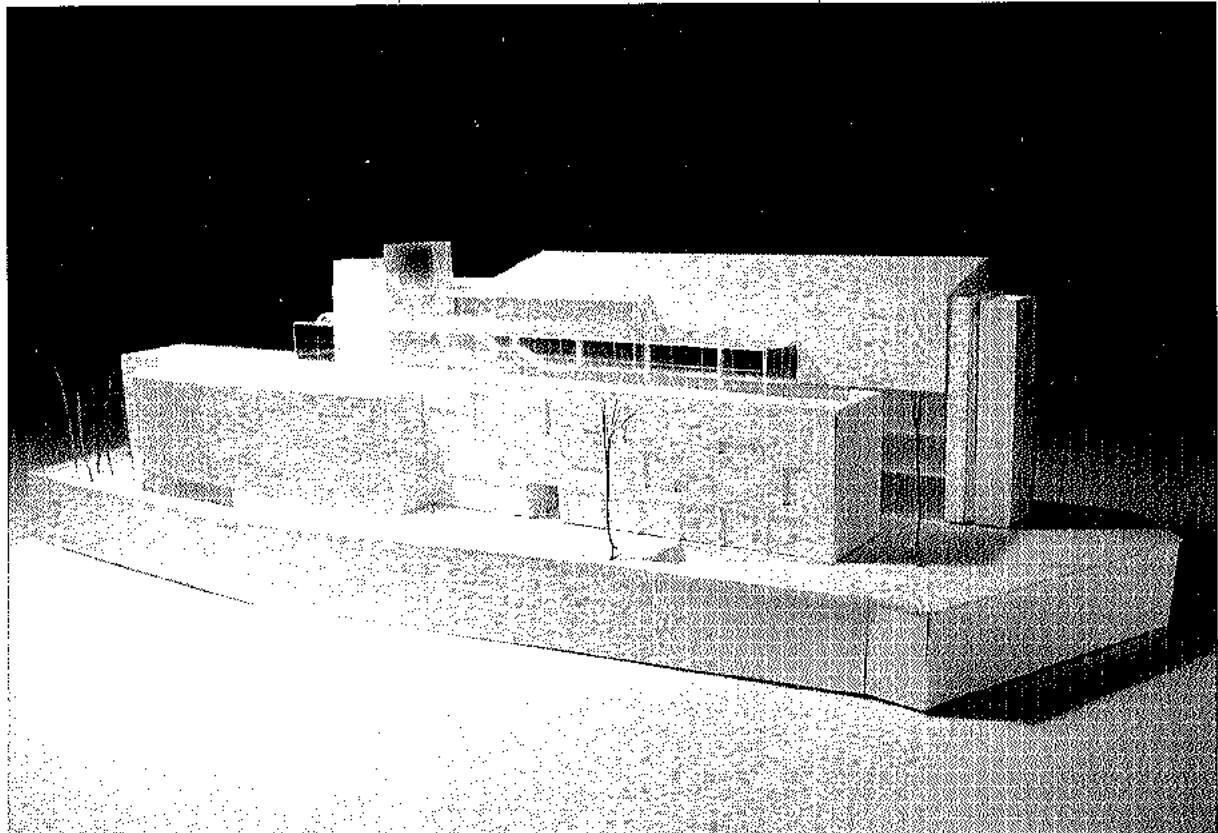
### Material(Concrete, Metal Glass)

외벽의 주재료는 오랫동안 굳건하게 기업 이미지를 지켜온 삼표산업의 기업 이미지와 통하는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반석과 같이 굳건한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상부층 재료를 포함하여 본 mass의 돌출된 부분은 최첨단의 금속판을 사용하여 가볍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살려 미래로 이어지는 삼표의 이미지를 담도록 하였다.

### Green Corridor(Culturescape)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역에 대하여 하나의 문화(culture)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러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장치로서의 green corridor는 각종 문화적 조경장치(culturescape)를 담고 있다. 이곳에는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그림이 걸린 전시장이 있고, cafe가 있고 음악이 있다. 쾌적한 공간과 문화가 어우러지



는 공간 이것이 우리가 만들고자하는  
삶표시록의 모습이다.

#### **Green Corridor(Ventilation)**

적정쪽으로 분할된 mass들은 각종 사무실의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상부천장을 통하여 green corridor 및 건물 전체의 환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공기의 흐름을 전체공간에 유도하여 폐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Green Corridor(View)

3층까지는 복원될 풍납토성 및 한강변의 방음벽으로 차단된 외부의 view대신에 내부의 green corridor로 open하여 내부의 확장된 open 공간내에서 view 및 activity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의 공간을 연출하였다. 상부 층에서는 한강의 좋은 조망을 위한 전면창을 두어 넓게 펼쳐지는 시선의 트임을 고려하였다.

### Green Corridor(Daylight)

여러 실험 data는 일반적인 천정높이의 방에서 창으로부터 4.5m 이상 떨어지면 자연광으로 실용적인 밝기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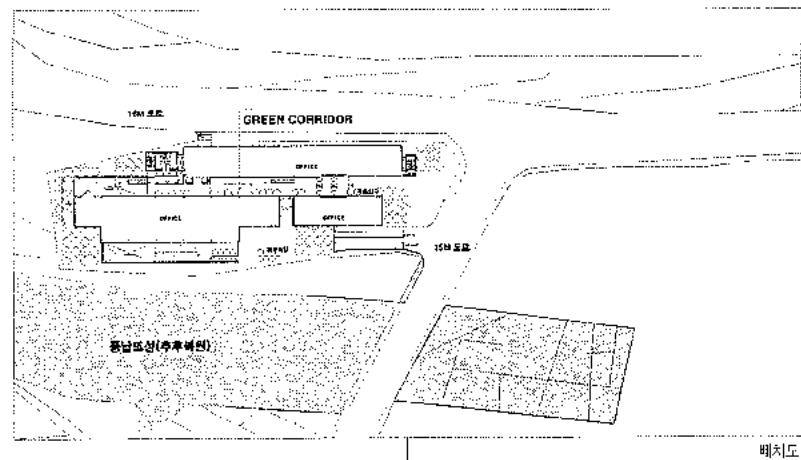
본 계획에서는 전체를 하나의 mass가 아닌 2개의 각각의 mass가 폭이 9m 이내인 mass로 분리, 사무실 어디에 서나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하여 쾌적한 업무공간조정 및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Green Corrid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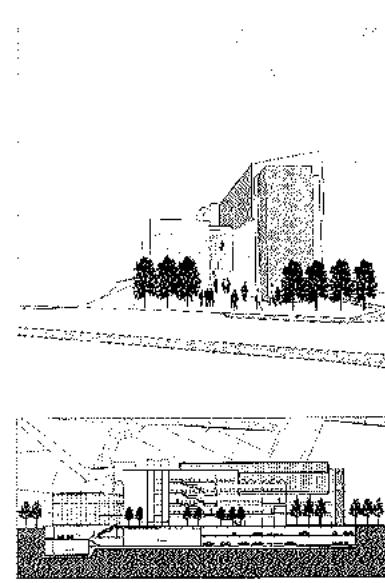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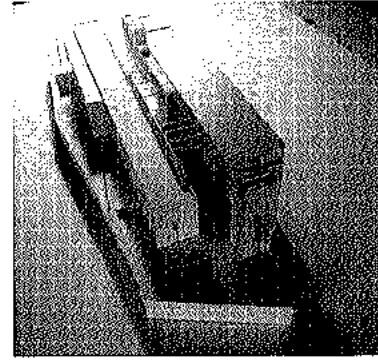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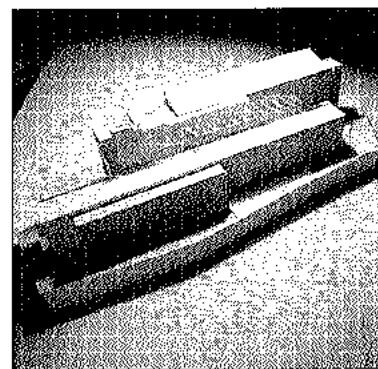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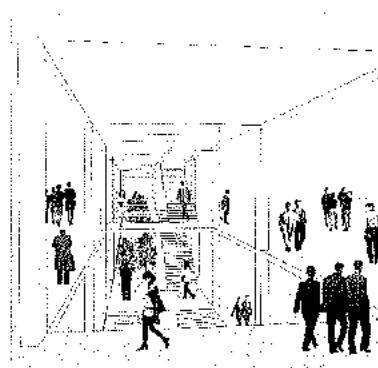
주어진 대지는 한강변에 위치한 대지로서 도심에 위치한 대지보다는 여려 가지 면에서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추후 복원될 풍납토성 및 한강변 방음벽으로 인하여 저층부(약 3층)까지는 원거리 view가 차단되는 불리한 점이 있다.

본 계획에서는 이러한 대지의 불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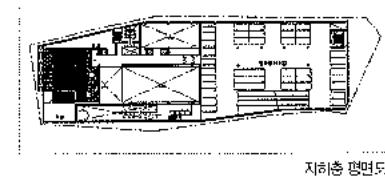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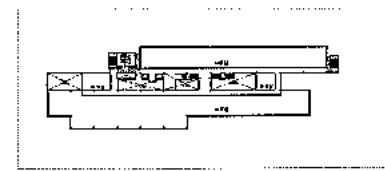
한계를 넘어서는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



점을 최대한 극복함은 물론, 최적의 사무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방형의 건물내부를 관통하는 green corridor 를 제안한다.



A schematic diagram of a microfluidic device. It features a central horizontal channel with a T-junction on the left. Two vertical reservoirs are positioned above and below the junction. A small rectangular region is labeled 'VME' at the bottom right. The entire structure is enclosed in a rectangular frame.



시이운 쟁반곡

## 광나루초 · 중학교

Kwangnaru Primary & Middle School

### ▶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이용선)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산 81-5번지와 27번지
지역지구	일비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대지면적	17,000 m <sup>2</sup>
건축면적	5,066.45 m <sup>2</sup>
연면적	25,821.79 m <sup>2</sup>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건폐율	29.80 %
용적률	5115.95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설계팀	이용민, 정석범, 김대홍, 박수민, 김명진

번잡한 도심에서 한걸음 물러난 계획부지는 뒷편으로는 멀리 이차산이 병풍처럼 들러쳐져 있으며, 그중 한 능선이 이곳으로 흘러내리고 있어 울창한 숲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우측으로는 공원으로 지정된 낙지막한 동산에 접하고 있으며, 30~40년은 족히 퇴직한 커다란 아카시아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 봄철 아카시아 꽃이 만개할 때면 가히 장관을 이룰 듯 하다.

워커힐로 이어지는 우측 12m 도로변에는 버드나무 가로수가 길을 따라 길다란 숲을 이루고 있어, 여름철이면 학교건물을 기려버릴 정도다. 또한, 부지 전면 남쪽으로는 멀리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으니, 背山臨水의 명당지리로 어린학생들이 공부하고 노는 곳으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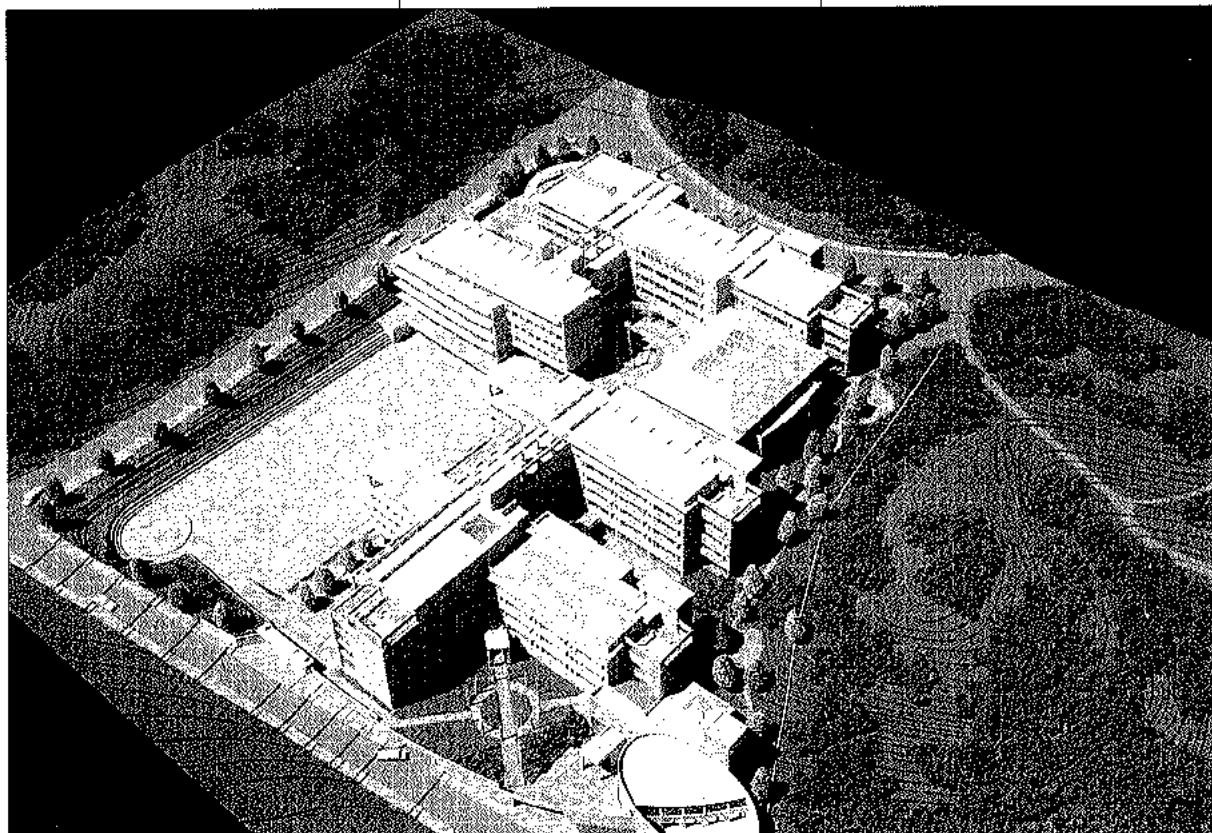
“숲속의 학교”가 될 성 싶다.  
현장을 다시 방문하여 측량을 하고, 나무의 위치, 크기, 밀도 등을 확인하고, 현황도면에 하나씩 표기하면서 건물의

배치를 머릿속에 그려본다.

꼭 살리고 싶은 나무 때문에 건물의 일부를 필로티로 띄운다. 그곳을 통로와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니 자연을 유혹하듯 숲이 교실 가까이 성큼 다가선다. 유치원/저학년/고학년/중학교 학생들 각각의 키에 맞는 아름다운 숲과 재미있는 놀이공간을 교실가까이 가져다 주고 싶다.

#### 배치계획

- 남쪽으로 경사진 지형이 갖는 시야 개방/조망 확보
- 교실의 동남향 배치로 풍부한 차광 확보
- 학생분포와 접근성을 고려한 주진입로 계획
- 서측도로로부터의 차량소음을 고려한 운동장 배치 등
- 대지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시설간의 영역성 확보 및 위계성 부여
  - 학년별(연령별) 균형있는 옥외놀이



### 공간의 제공

-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의 공동이 용시설을 시설의 중심부에 위치
- 인접 자연환경을 시설내로의 적극적 유입
- 보행자/차량동선의 구분은 물론 각 시설 이용에 편리한 내외부 동선계획이 되도록 한다.

### 평면계획

- 학생중심의 공간 구성
  - 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 영역의 구분
  - 별도의 놀이마당 구성
  - 주변 녹지공원과의 연계
- 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공동이용시설 계획
  - 식당/체육관 공동이용

- 시설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 및 이용 효율성

#### • 유치원

- 인접 녹지공원과의 연계
- 초등학교 저학년 영역과 연계 (놀이 마당 공유)

#### •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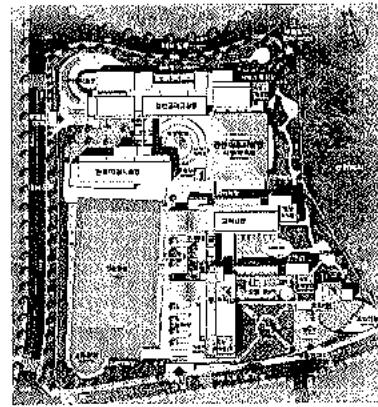
- 교과과정의 합리적 운영계획
  - 중/저학년 : 활동중심의 열린교실형 학습공간구성 (3개교실 단위)
  - 고학년 :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비한 교과교실 운영요소 도입 (수학, 영어, 과학)

#### •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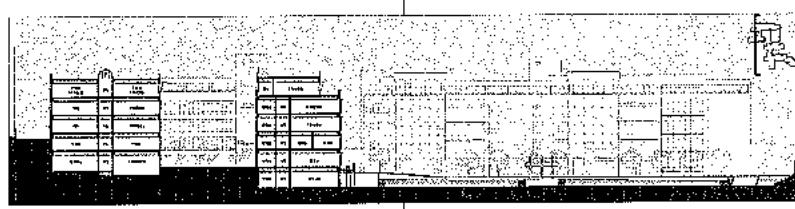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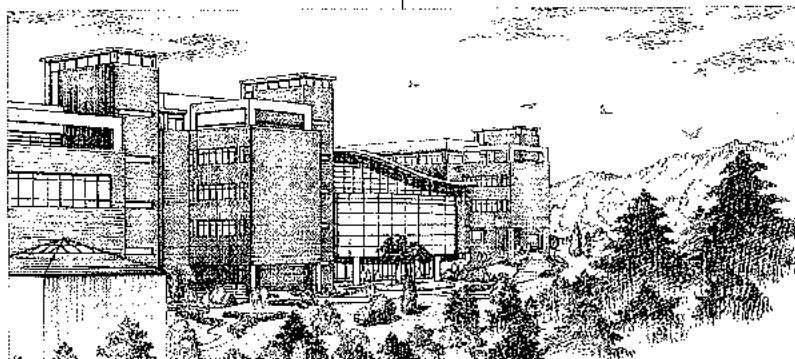
- 단계형/심화보충형 수준별 수업을 위한 교과교실의 구성
  - 흠페이지를 중심으로 한 교과교실군

### 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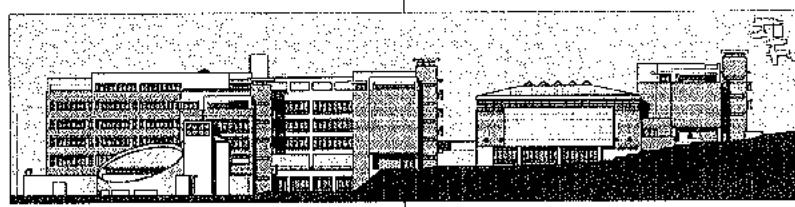
- : 이동수업에 대비한 효율적 동선체계 구축
- 특별교실군의 집중배치
- : 설비 및 관리의 효율성
- : 실습/실험교실과 이론수업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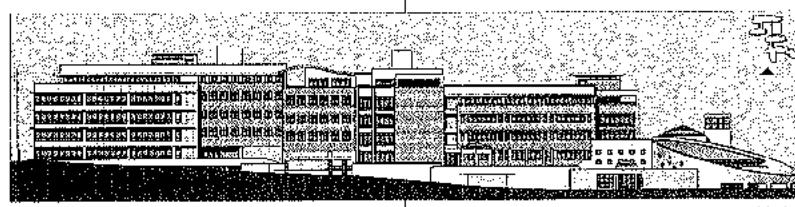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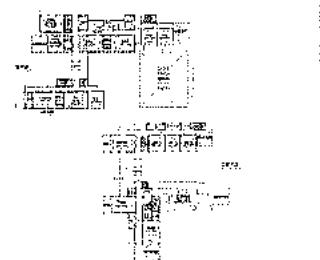
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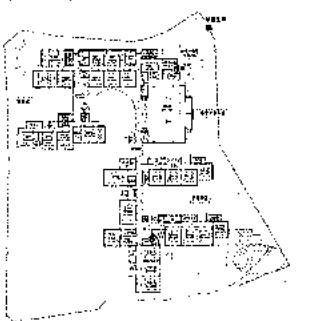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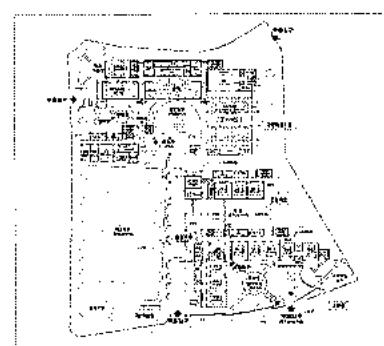
남측면도



5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 우수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한종언·정해상)

대지위치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산 81-5번 지외 27필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 자연경 관지구
대지면적	17,000㎡ (4,447평)
건축면적	5,067.70㎡ (1,532.98평)
연면적	22,872.30㎡ (6,918.87평)
건폐율	29.81%
용적률	102.20%
규모	중학교 - 지하 1층, 지상 5층 초등학교 - 지하 2층, 지상 5층
주차대수	124대 (법정주차 : 115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일부철골조)
외부마감	외벽 : 점토벽돌 치장쌓기, 드라이 비트, 시멘트 성형패널 창호 : T18 복층유리
설계팀	김학봉, 방인준, 배정민

## 계획의 목표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의 미래지향적인 학문의 터 제공
- 토지이용효율의 극대화를 통한 충분한 녹지 및 OPEN SPACE제공
- 신 교육과정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학교 공간의 창출
- 향후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대적인 학교시설 제시
- 교육시설의 첨단화와 지역사회와의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 담당
- 학생들의 기상과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공간 제공

## 계획의 기본방향

-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구성
- 정보화에 대응하는 학습 환경 계획
-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인간적인 교류의 폭을 넓히는 인격형성
- 지역의 상징성과 문화성을 표출할 수 있는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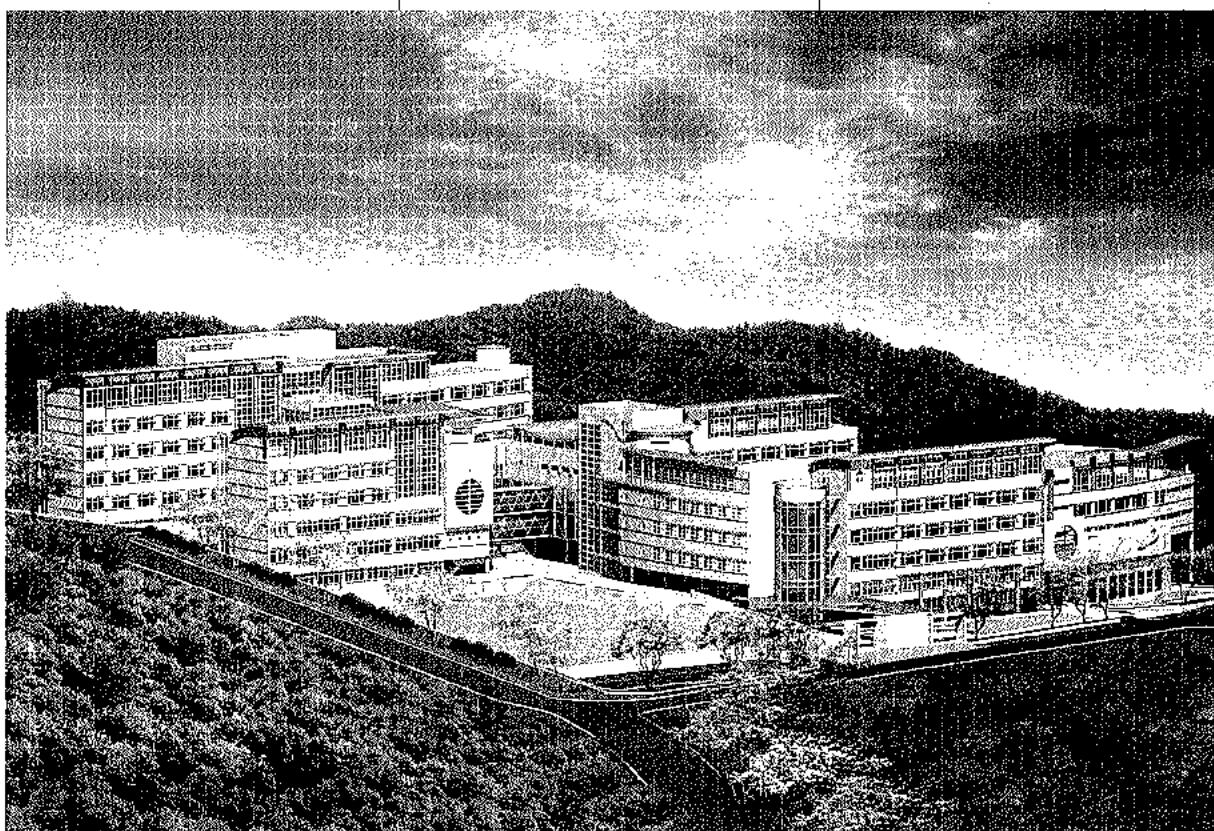
- 학년과 학급의 테두리를 넘어 학생의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영역 확대
- 개별화와 개성화를 목표로 하는 창의적인 공간 계획

## 평면계획의 주안점

- 학습공간의 합리적, 효율적 기능 계획
- 각 동의 영역별 특성에 따른 기능, 동선, 공간의 명확성 부여
- 명확한 Zoning으로 공간 활용의 경제성 및 집중화 고려
- 주요실의 특성별 향 배치에 의한 일조권 확보 및 환기, 통풍 고려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연계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유연한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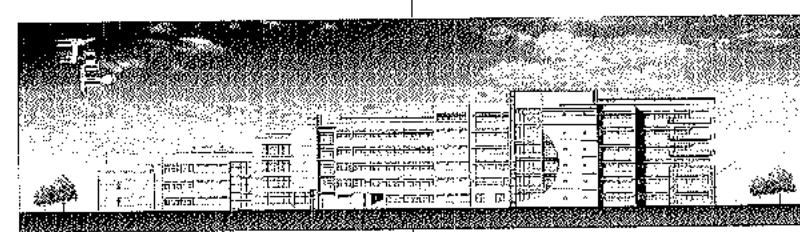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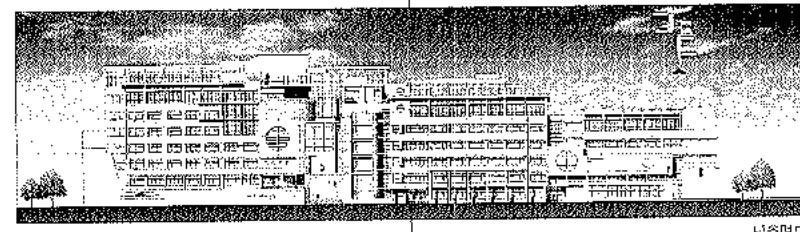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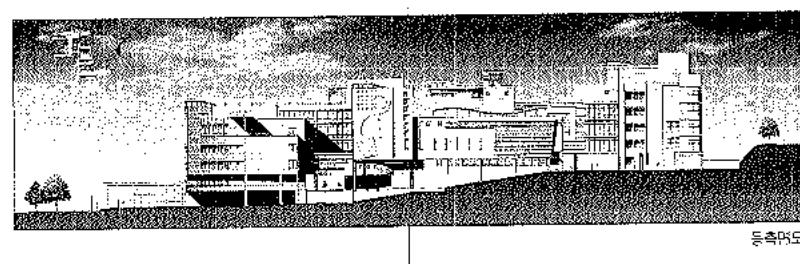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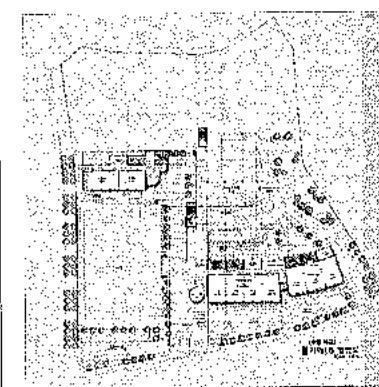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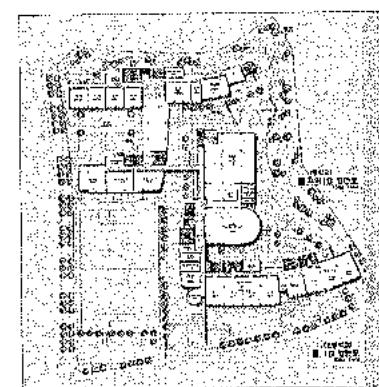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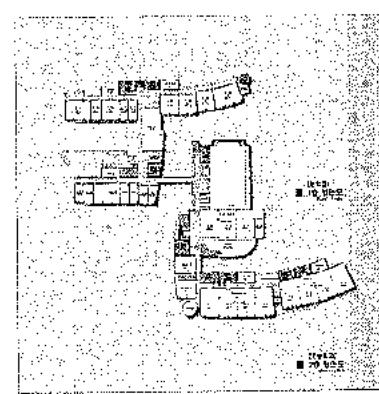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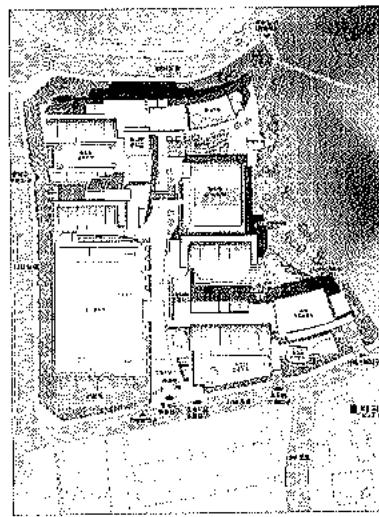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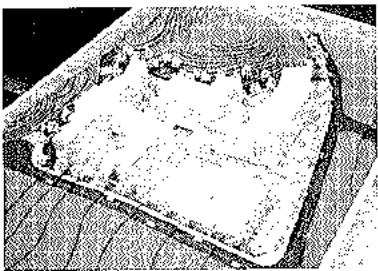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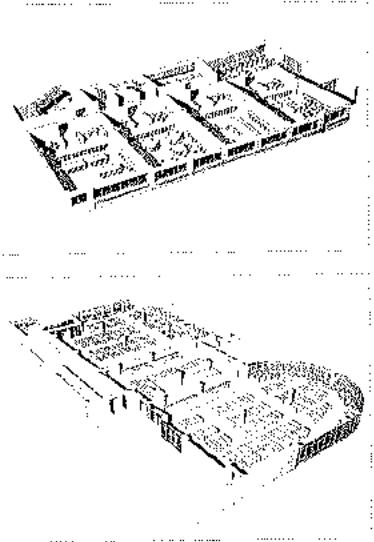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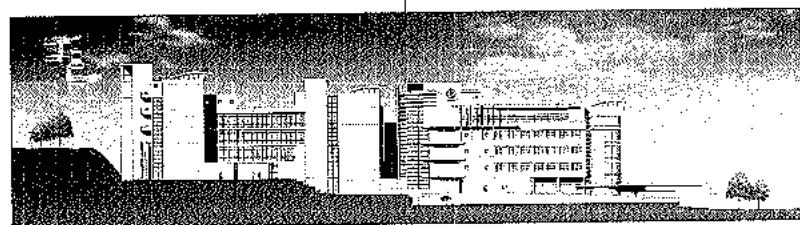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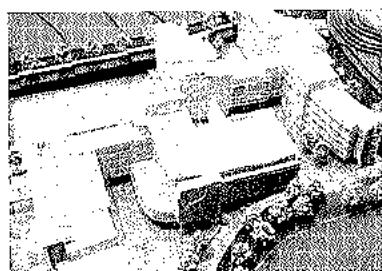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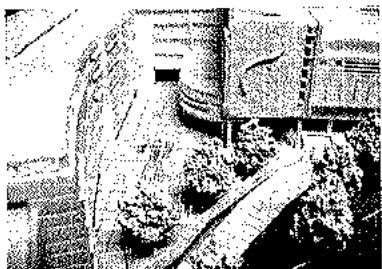
## 평면계획의 기본방향

- 모듈의 설정을 통한 융통성 있는 SPAN 확보
- 초등학교군과 중학교군의 학습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다목적 공간 계획
- 학교별, 학년별 기능상호간의 연결통로



### 를 이용한 동선구성

- 시설별 그루핑에 따른 명확한 기능화보 및 상호 유기적 연계
- 관리동의 중심배치로 관리의 용이성 및 교사동과 Community Center와의 조율 역할 고려



## 천천고등학교

Cheoncheon High School

▶ 당선작 / (주)유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김환성)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천천2지구 26-2 블럭
대지면적	13,900m <sup>2</sup> (4,204.75평)
건축면적	2,757.41m <sup>2</sup> (834.11평)
연면적	11,644.71m <sup>2</sup> (3,522.52평)
건폐율	19.84%
용적률	83.77%
구조	철골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외부마감	적벽돌, 메탈파널, THK18컬러복 층유리+알루미늄바

설계팀 김종규, 박운덕, 김현성, 반광호,  
박제환, 송은열, 이용재, 황인국

### 기본개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학습공간과 첨단화 시설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며 지역사회와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계획방향

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 설계  
- 교과목별에 따른 조정계획  
- 신교육과정의 편재와 수준별 과정을 도입한 실별배치  
- 교육정보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시설 계획

지역사회에 열린 학교  
- 지역주민의 여가 총족 및 문화적 육

### 구중족의 장소로서의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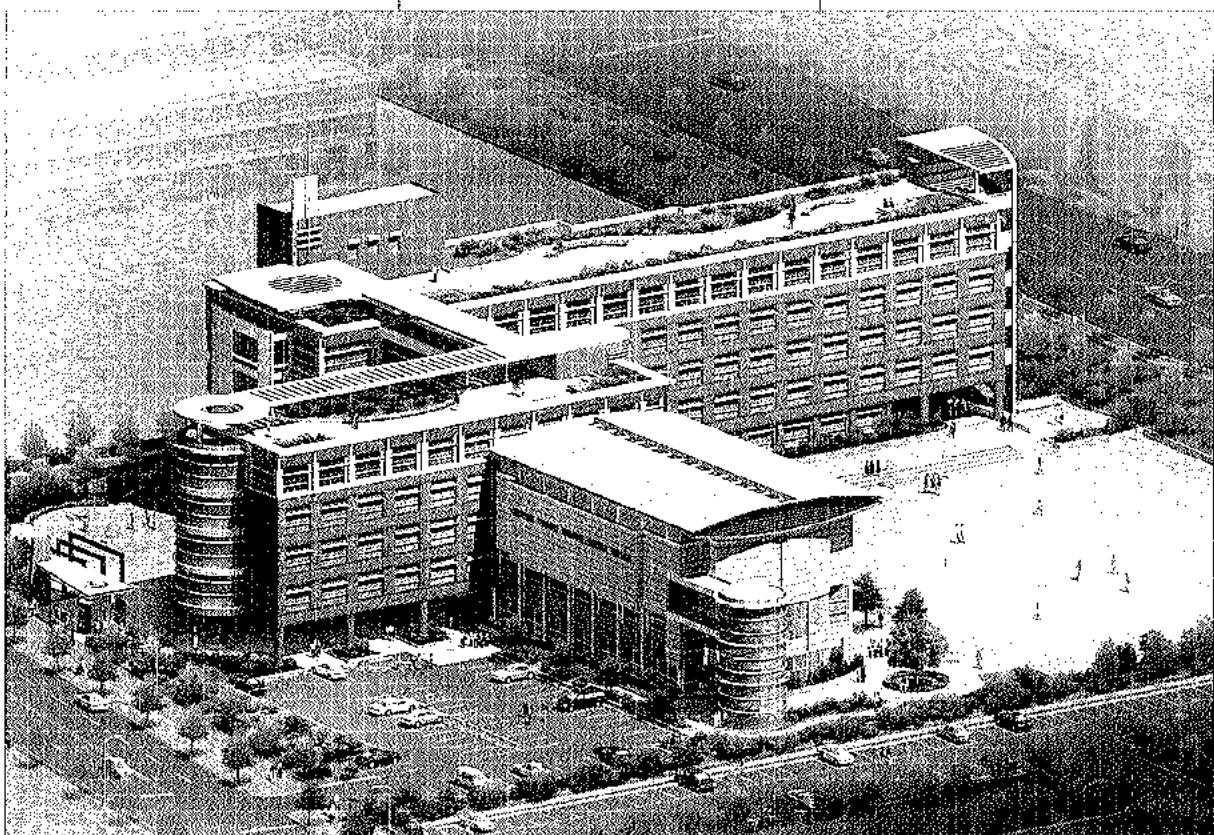
- 주차장 가까이에 식당, 체육관, 특별 활동실(시청각실, 컴퓨터실)을 인접 배치하여 지역주민에 효과적으로 개방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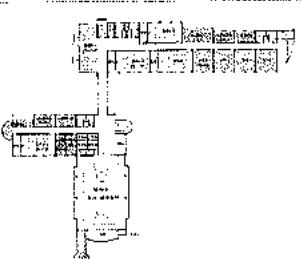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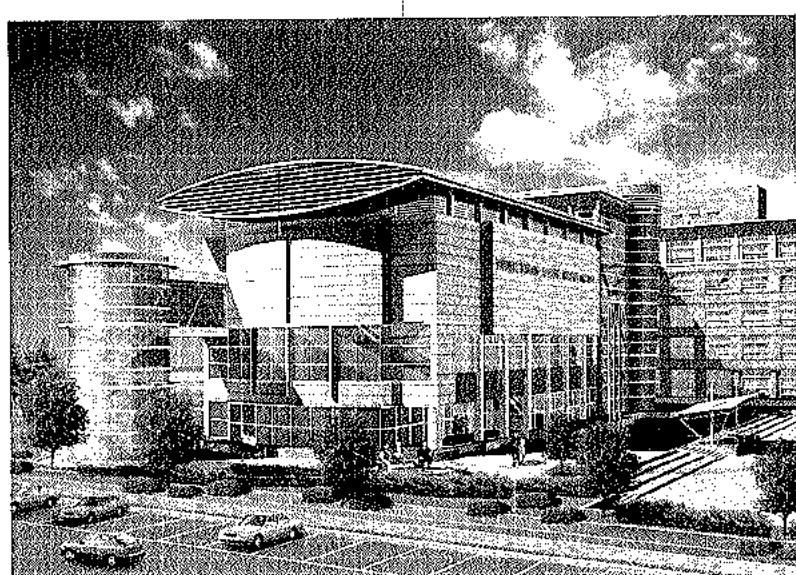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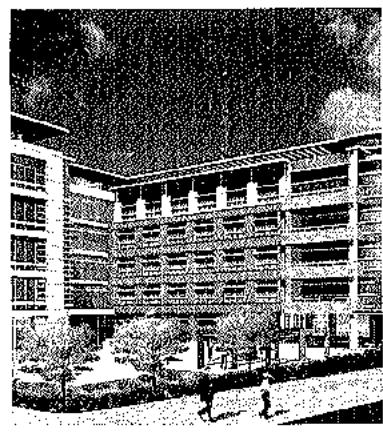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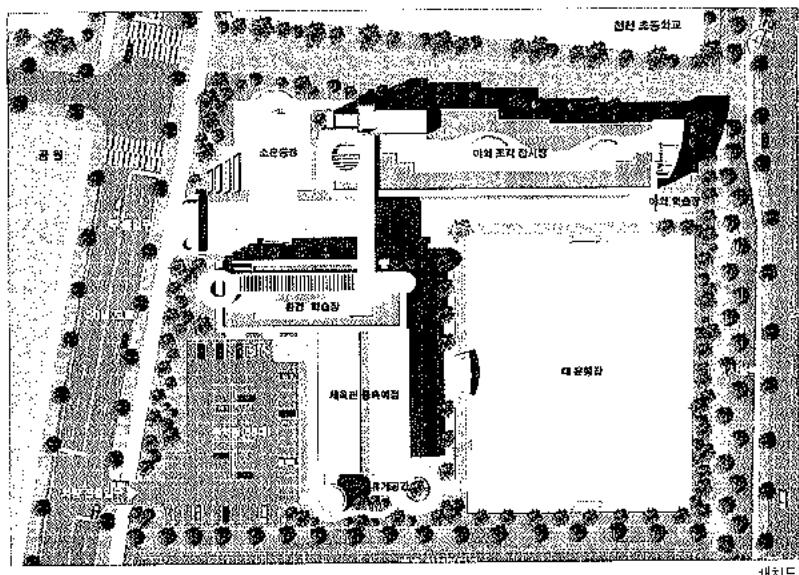
### 内外 다양한 공간 조성

- 다양한 외부공간을 부여함으로서 학생 및 지역주민의 정서활동공간으로 활용  
- 건물군의 유기적인 배치를 통해 특징적인 공동체공간을 조성하여 학교생활의 공동체적 특성을 도모  
- 충분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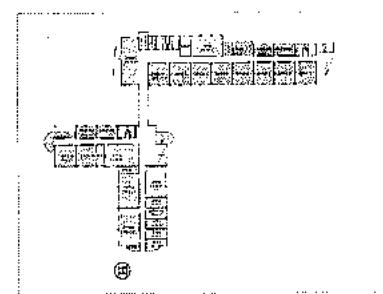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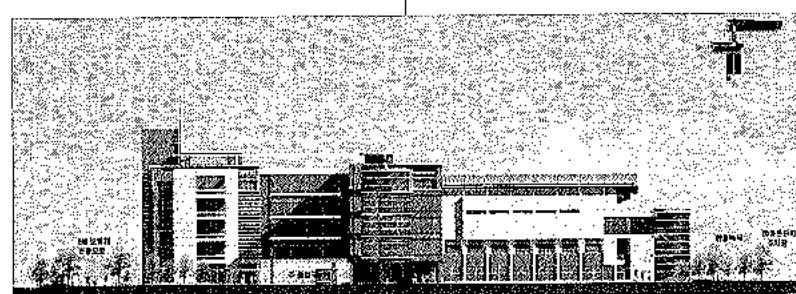
###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

- 내부 엘리베이터 및 외부동선에 경사로 설치  
- 장애인용 주차장, 화장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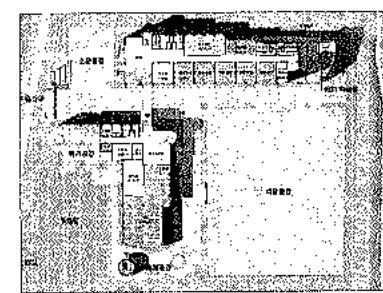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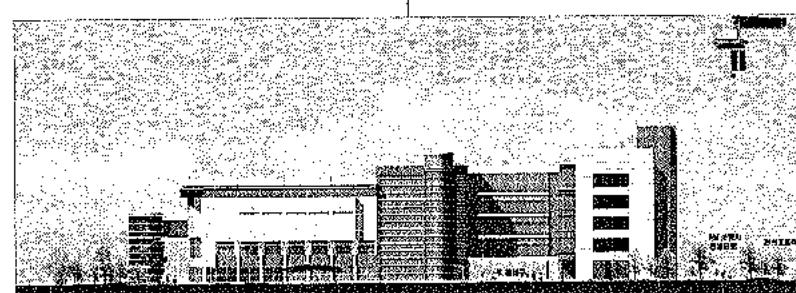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 우수작 / (주)예전 건축사사무소 (최동호)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천천2택지지구 26-2블럭
지역지구	택지개발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3,900㎡ (4,204.75평)
건축면적	2,765.51㎡ (836.57평)
연면적	11,318.22㎡(3,423.76평)
조경면적	2,945.84㎡ (891.12평)
건폐율	19.90%
용적률	76.39%
주차대수	57대 (장애인주차 2대 포함)
구조	철골구조
외부마감	입출성형 시멘트페널위 불소수지 도장, THK16 복층유리

역사와 전통의 도시 속에 세워지는 학교

### ■ 수원화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서있는가?

화성은 우리 옆에 당당하고 의젓하게 존재한다. 술한 어려움 속에 이겨내려온 그 세월의 벽만큼이나 고고하게 역사의 공간을 지켜내려 왔다. 세월의 성 벽으로서 서있음은 물론이고 성의 미학을 드러내는 아름다움이 감동으로서 다가온다. 화성은 수원이라는 도시가 지향하고 성장 발전하는 에너지의 기준이 되는 미래의 마스터플랜의 좌표 설정에 그 요체가 있다. 수원화성은 그 축성이 벌써 이백년이 넘는 고성이다. 와롭게 저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와 상관없는 성이 아니라 도시와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의 성이다.

### ■ 수원(화성)은 고유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다.

화성을 단순히 성곽도시로만 보아서는 안되고 수원이 갖고 있는 역사의 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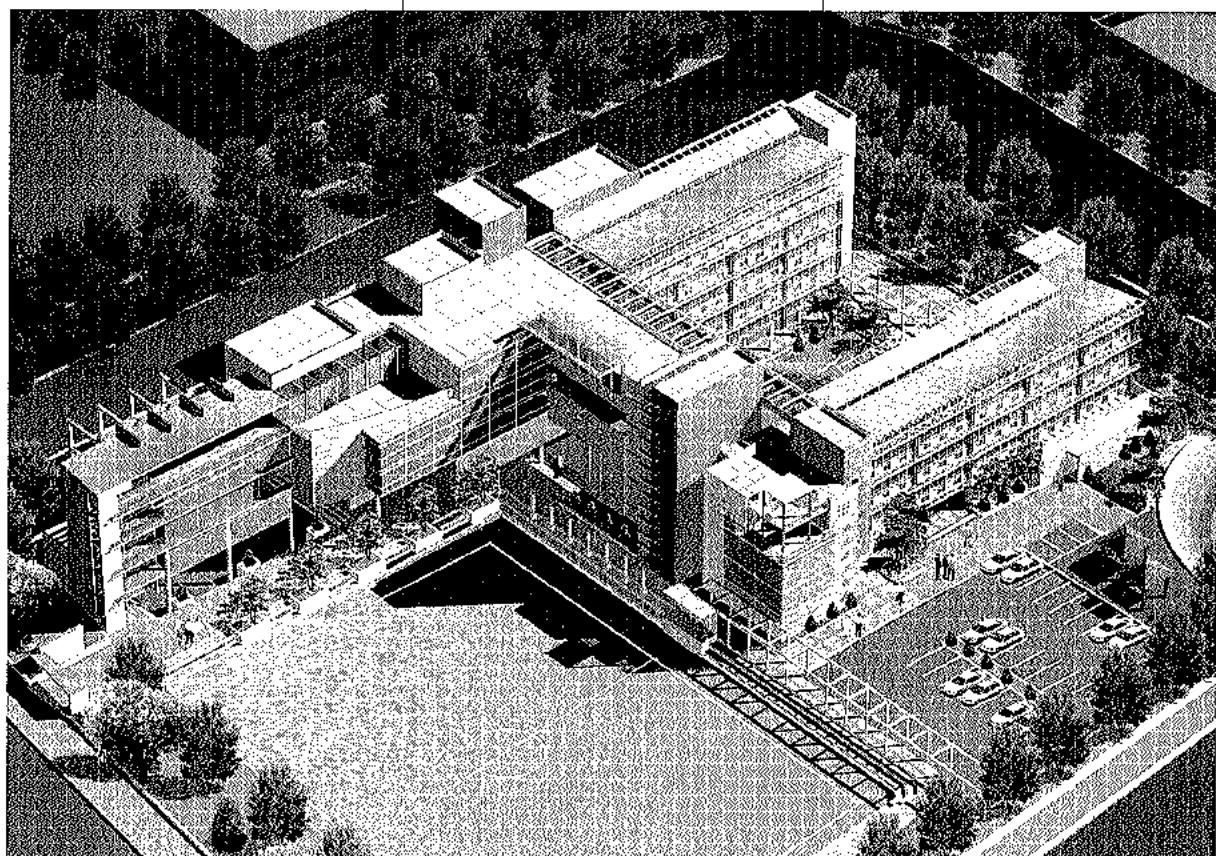
를 읊어야 한다. 또한 자긍심을 갖는 소중한 보물이다. 본 계획에서는 학교 중앙부에 공심돈을 Identity로 하여 계획하였다. 이러한 상징성을 수원만이 갖는 학교로서 그 전통과 역사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워지는 “천천 고등학교”는 역사도시의 문맥에 걸 맞는 건물이 되어야 하는 과정을 갖고 있다. 전통과 조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화성의 역사성과 그 맥락을 연결 지어야 한다.

### 안마당이 있는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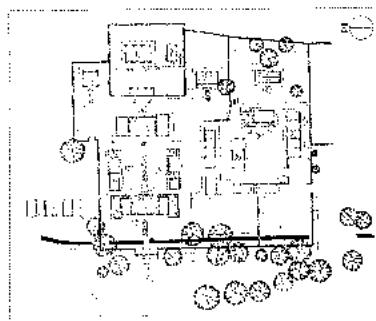
이 학교가 자리잡은 위치는 이미 택지 개발 당시에 계획된 부지로서 기획보된 상태에 있었다. 학교의 주변은 아파트 지구이며 대체로 소음이 적은 곳에 위치한다.

### ■ 안마당이 학교에 자리잡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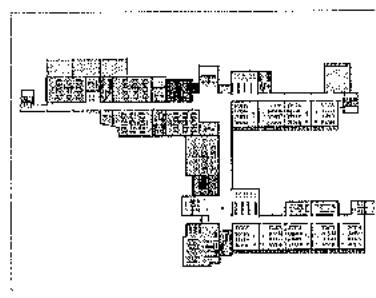
전통적인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학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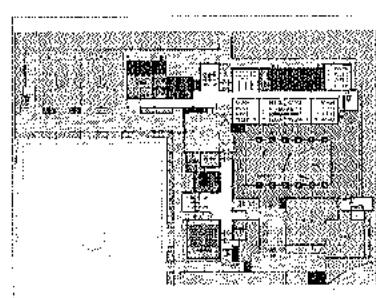
서원을 보면 대체로 건물(학교)로 감싸게 되어 내부는 비어있는 마당이 되어 □자 형태의 배치방법으로 되는 것이 많이 있다. 그 예로서 옥산서원이나 안동의 병산서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서원의 자리잡음이 빼어난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곳에 그 입지를 선정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산수가 뛰어난 곳을 고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배치방법에서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좋은 대안을 제시 할 수도 있다. 천천 고등학교는 사색의 공간과 창의력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마당 내부가 □자가 되는 위요 공간으로서 계획하였다. 전통적인 위요된 형태의 계획방법이 한국은 물론이고 대부분 건축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전통건축 만이 갖는 특징이다.



옥산서원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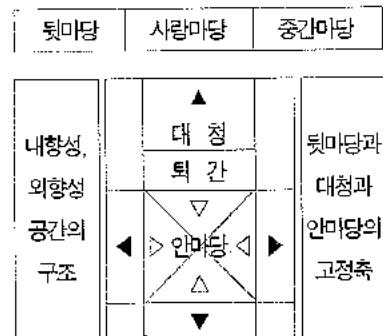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오픈 스페이스로서 안마당이 있는 교육공간 일반교실동과 특별교실동 사이를 연결하여 □자형으로 위요하는 천천 고등학교는 그 가운데에 안마당을 두어 이 학교의 중심이 되어 구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마당은 한국의 전통적인 외부공간으로서 전통기록에서는 정신적인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마당은 체와 더불어 분화되어 체에 딸린 마당으로 이루어지는 한국 전통적인 마당 구성원리를 갖는다. 안마당의 크기는 폭과 길이가 24m × 40m로서 외부공간의 규모로서는 적정하게 계획하였으며 채광의 효과는 물론 그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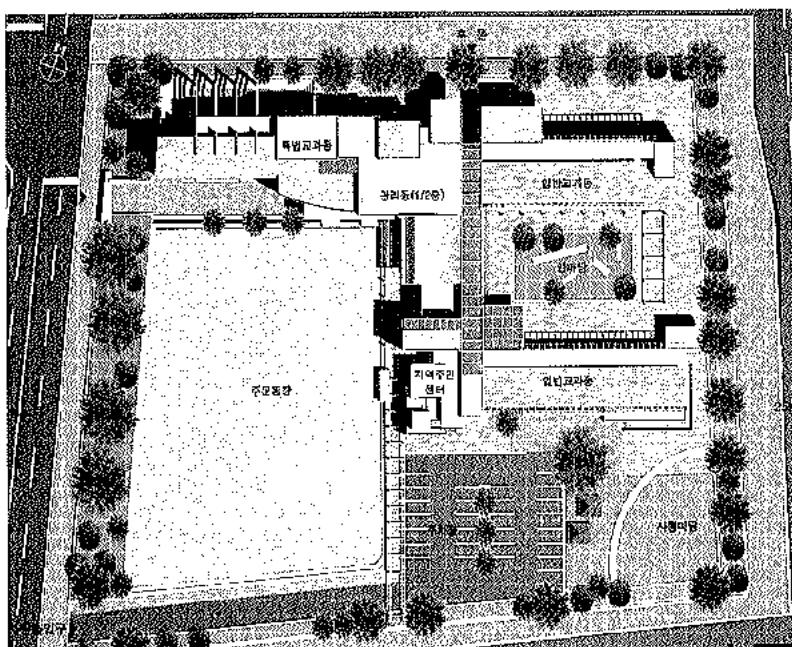
본 학교의 안마당은 이곳을 향하여 내향성을 그리고 안마당에서 밖을 향해 외향성을 갖는 이중성의 상징적 중심이

되어야 한다. 1층의 주 진입구의 피로티에서 안마당을 향해 보는 틀은 마치 전통 마당에서 대청을 통하여 뒷마당을 바라보는 것 같은 평화로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글 : 최동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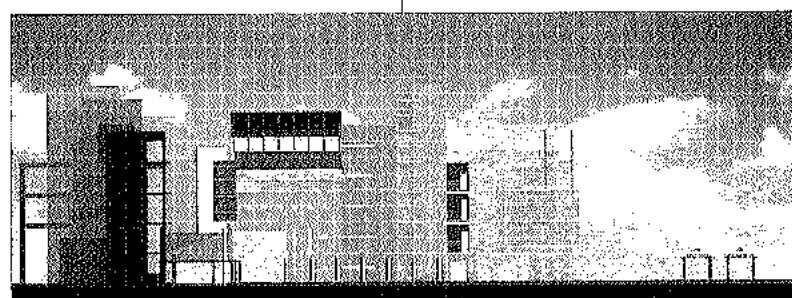
### 자연



〈전통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내·외향성〉



베지도



횡면도

## 부천특수학교

Buchon School for the Disabled

### ▶ 당선작 / (주)엄&이종합건축사 사무소 (조의수)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지역자구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
건축면적	12,667.00m <sup>2</sup>
건축면적	2,521.54m <sup>2</sup>
연면적	7,872.69m <sup>2</sup>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마감	치장 벽돌 + 뽕칠재 마감
설계팀	신용욱, 남태우, 한 철, 황 은, 정상현, 흥영준

### 계획의 전제

특수학교 교육의 최종 목표는 학생의 교육, 재활,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상태를 개선하여 사회 통합과 사회인으로서 자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는 -장애영역과 학교급별 구분없이 장애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여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강조하고, 무학년제 개념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장애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며  
-발달단계에 따른 기능적 생활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학습자 중심의 직접적인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초등부 1학년부터 고등부 3학년까지 12년동안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건축적인 사항은 학교, 기정, 지역사회의 기본 요소의 삼박자를 갖추면서도 '수용'이라는 기준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사회 통

합의 의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시작하였다.

### 배치개념

BLOCK에 의한 Cluster-Type을 기본으로 전면 도로에 인접하여 열린 광장에 의한 사회 통합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전면 블럭은 일반학교의 장애 학생의 순환 교육에 필요한 직업 훈련실과 치료실, 관리/행정실을 배치하고 후면의 두 블럭은 학교 고유의 기능인 학생을 위한 교실을 남향 배치하였음. 또한 일반 관리동선과 셔틀버스에 의한 학생 동선을 분리함으로 장애 학생의 교실 진입동선을 단축하여 배치 계획하였다.

### 평면계획

1층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배치하였으며 2,3층으로 중·고등부 교실을 남향 배치하고 동선의 중심부에 특별교실군, 양호실, 식당 등을 계획하였다. 또한 각 블럭마다 고유의 출입구를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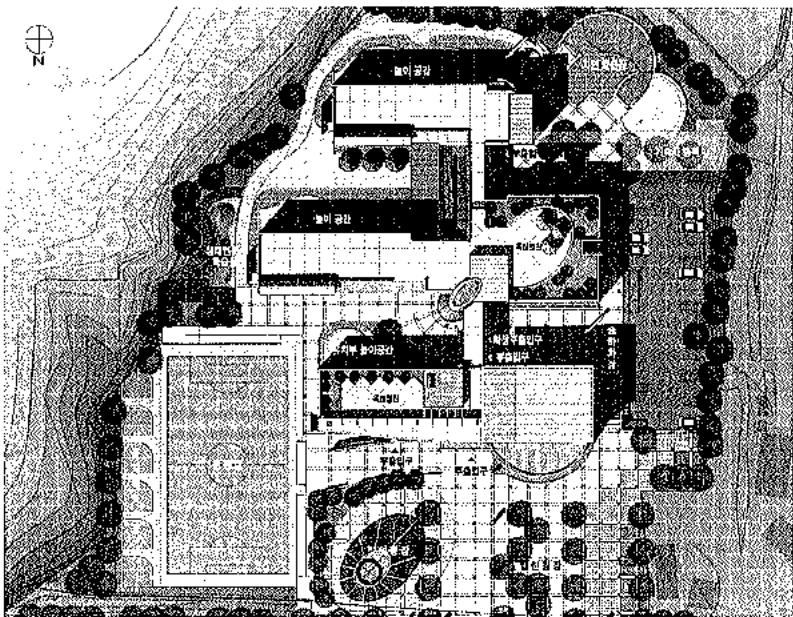
하여 독립성을 줌과 동시에 중심 경시로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동선의 통합을 의도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 UNIT에는 내부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일 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일면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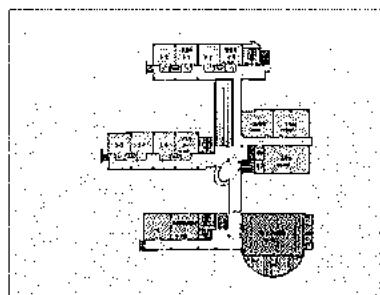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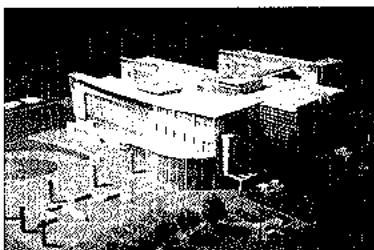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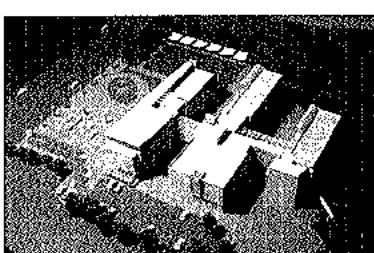
전면 도로에 대한 정면성 확보와 커턴월의 개방성에 의한 열린 이미지에 밝은 칼라톤을 엑센트로 사용함으로 일반인들의 선입견으로부터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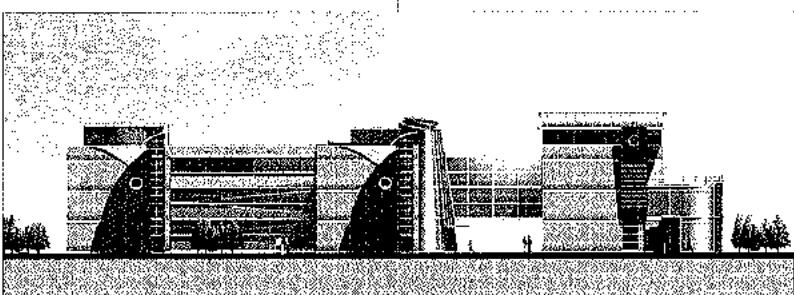
장애라는 것은 장애자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양손에 물건을 들고 출입문을 열려 할 때 일시적인 장애를 겪는 것처럼, 장애인을 위한 건축이 특수학교 및 일부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이 편리한 시설이 모두가 편리한 시설이라는 전제하에 앞으로 계획되어지는 건축에 세심한 배려가 부여 되기를 바란다. 당초 정신지체 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본 설계에서는 지체 장애 학생을 추가하여 계획을 일부 변경하기로 한 것도 그러한 전제하에서 보면 더 큰 걸음을 옮기는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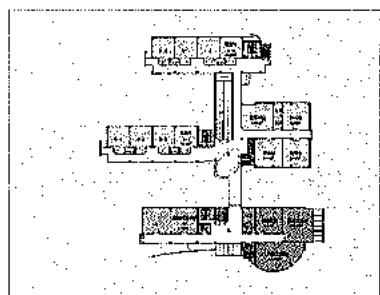
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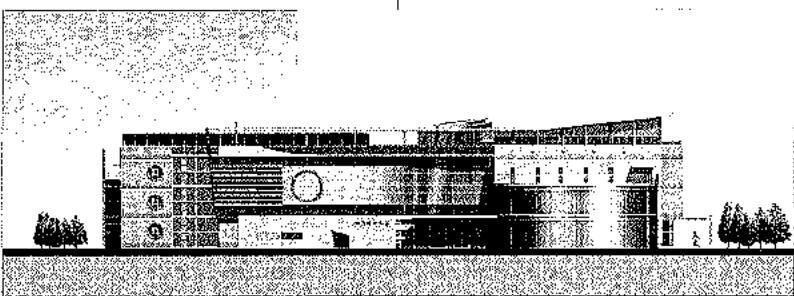
3주제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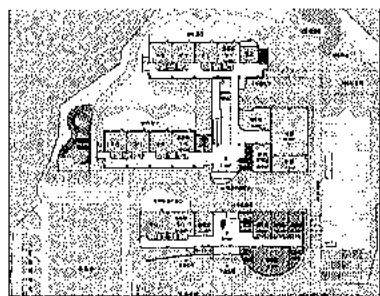
독립영화



2층평면도



도장면도



1 총평연도

## ▶ 우수작 / (주)윤종합건축사 사무소 (윤덕찬)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58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
대지면적	12,677.00㎡(3,831.75평)
건축면적	2,997.94㎡(906.87평)
연면적	8,152.98㎡(2,466.27평)
건폐율	23.67%
연폐율	62.75%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주차대수	옥외주차 37대 (장애인용 2대 포함)
외부마감	벽돌치장 쌓기+노출콘크리트 합성수지

### 주변환경

부지의 동서남쪽은 경관이 양호한 산림으로 둘러쌓여 있고 북쪽에 22M 주도로가 인접하여 있고 본 부지 위치는 계단식 경작지로 북쪽으로 약 5% 정도 경사진 땅이다.

생관리의 융통성을 고려하였다.

- 체육관 및 식당을 교실에 인접배치함으로 특수학교에서 요구되는 지원시설의 사용효율을 극대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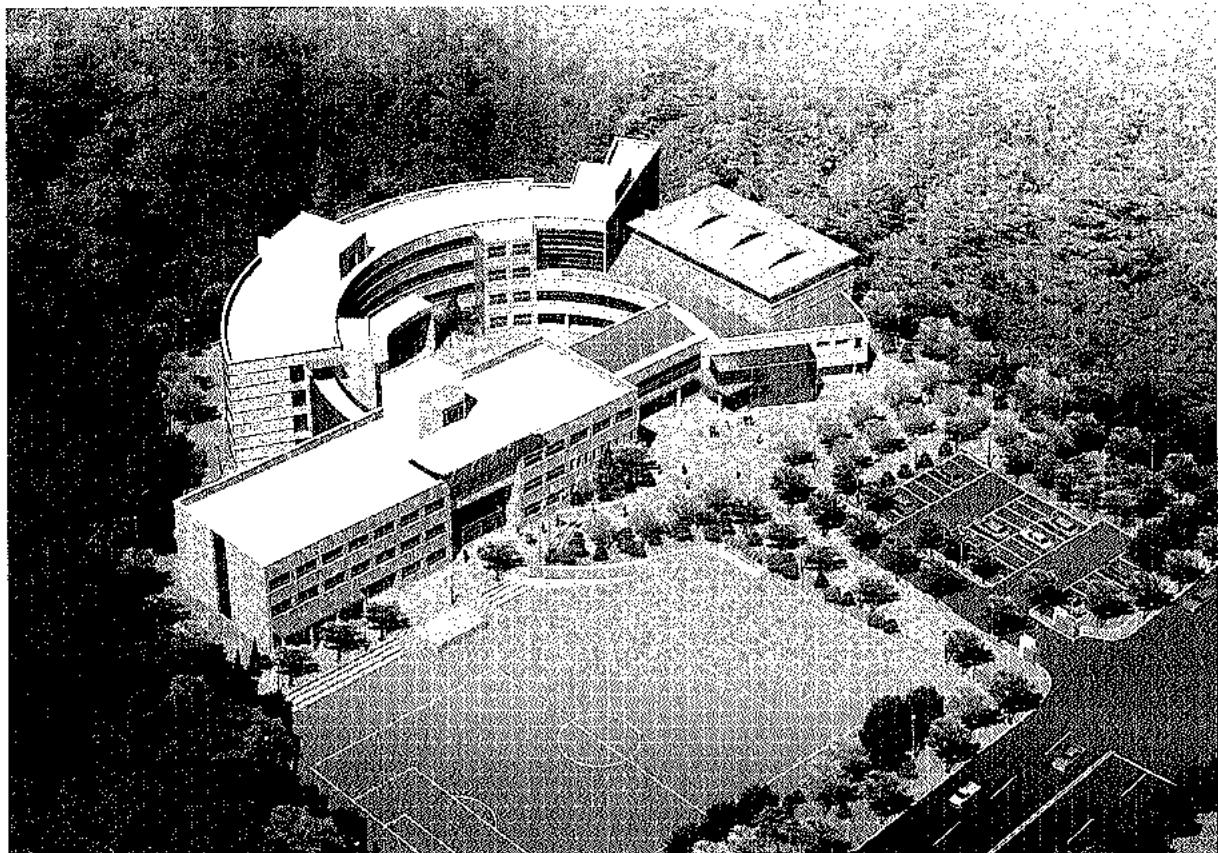
###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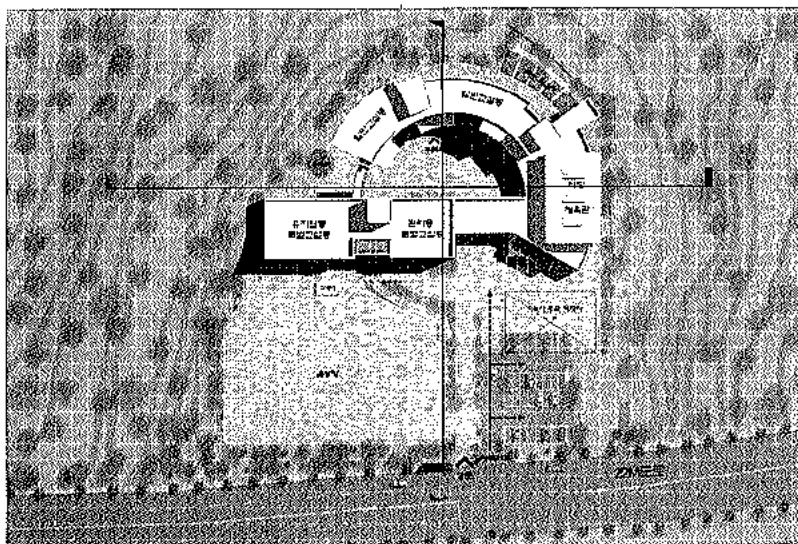
부지모양이 정방형이 아닌 다각형으로 원형 평면이 자연스럽게 구상이 되고 이에 따라 교실의 채광과 접근 및 관리동선의 합리성이 맞아 떨어지게 되었다.

### 계획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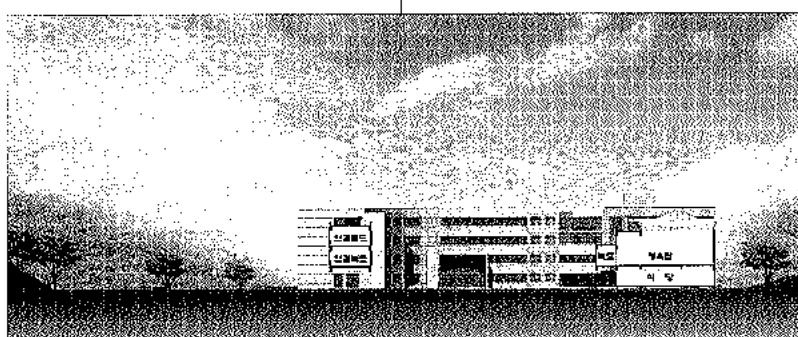
- 학교 특성상 교사들의 학생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반지형 동선으로 길이를 최소화 하고 수평 수직동선을 경제적으로 배분코져 노력하였다.

- 교실의 형태를 두가지로 구분하여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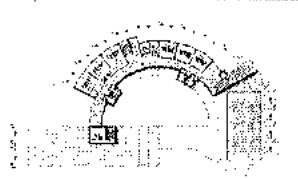




태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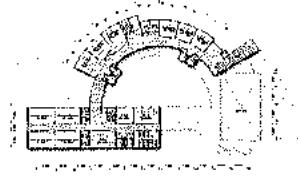
Digitized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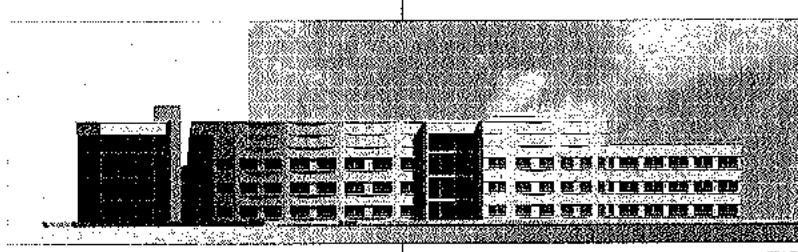
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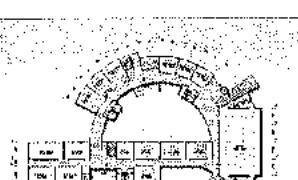
장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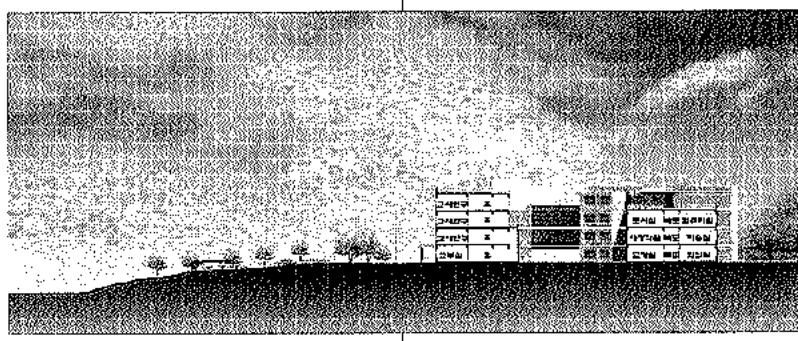
3층 판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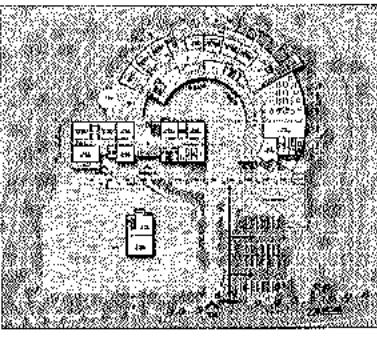
배면도



2층 평면도



여자 중단경도



1章 편연도

## 송내고등학교

Songnae High School

### ▶ 우수작 / (주)태투종합건축사 사무소 (최종인)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지구 103블럭
지역자구	택지개발지구, 학교용지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15,476m <sup>2</sup>
건축면적	3,027.42m <sup>2</sup> (915.79평)
연면적	11,636.10m <sup>2</sup> (3,519.92평)
건폐율	19.56 %
용적률	72.42 %
규모	지하 5층, 지상 1층
주차대수	법정 : 11,636.10m <sup>2</sup> / 200m <sup>2</sup> =

58.18 (58대)  
계획 : 60대 (장애인용 2대포함)  
외부미감 외단열시스템, 적벽돌 치장쌓기,  
금속외장폐널

### 계획개념

- 주변의 혼재된 도시적 상황을 극복하는 배치계획으로 안정된 공간 창출
-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남향배치.
- 북측 도시 소음원에 적극적 대처 (공용시설 배치 및 WALL SCREEN 설치)
- 이동식 수업에 의한 기능적 조닝과 동선 계획
-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사이에 관리동과 흠후베이스 계획
- 다양하게内外부공간을 연결하여 풍부한 공간체험 유도
- 1층 피로티를 통해 외부공간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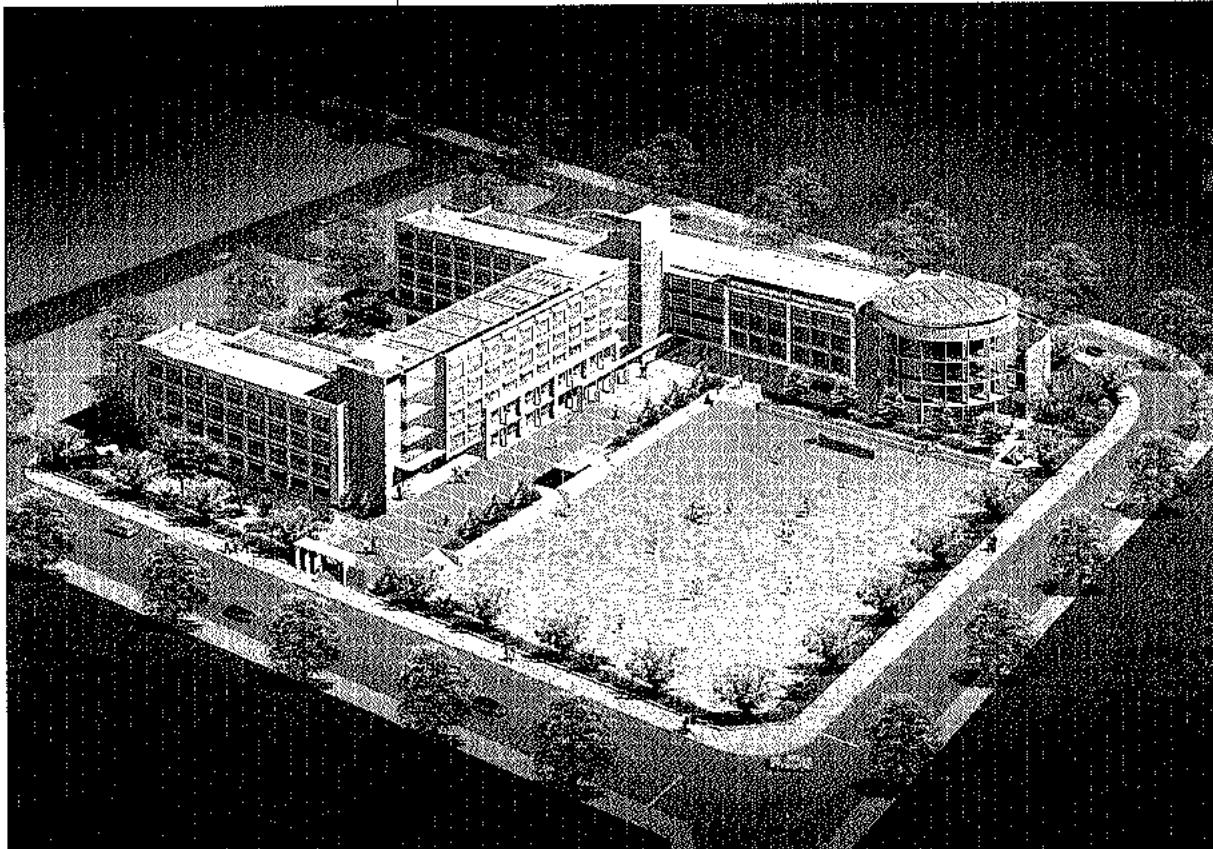
### 동선계획

- 대지남북을 관통하는 주보행축과 주출입구 연계
- 마당, 피로티, 외부계단, 데크 등 다양한 외부공간과 동선연결
- 외부동선의 진입홀, 코어의 내부동선과의 연속성 확보
- 벌도의 독립적인 서비스 차량동선 확보
- 비상/행사시 차량동선에 대한 고려

### 기능분석 및 토지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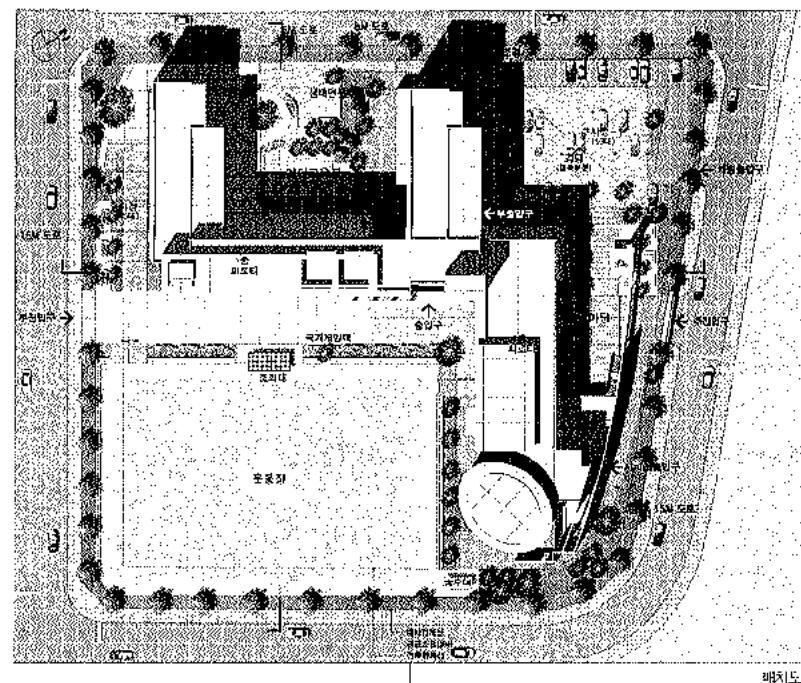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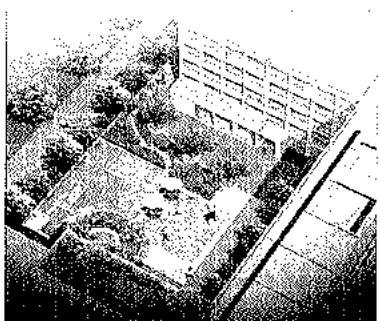
- 기능별 조닝에 의한 매스의 분절과 기능의 배분
- 일반교실과 특별교실동을 분리하고 특별활동교실, 관리, 서비스시설 등을 충별분리, 기능과 동선구성의 효율성 증대
- 매스분절에 의한 다양한 성격의 외부공간 구성

### 외부공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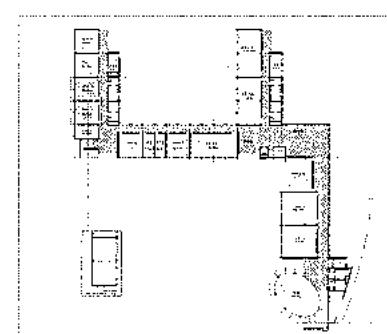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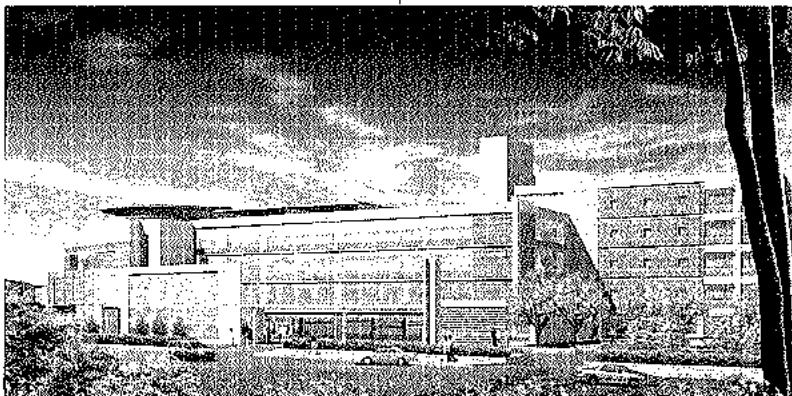


- 다양한 특성을 가진 외부공간구성으로 풍부한 환경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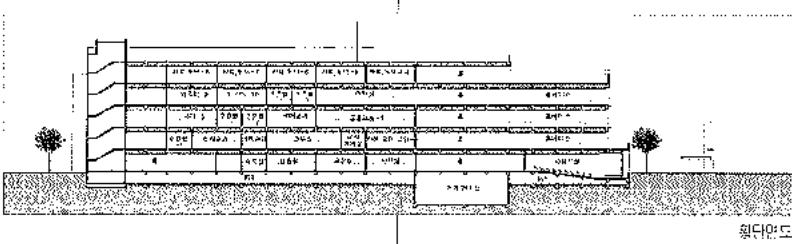
운동장(동적/개방감), 안마당(정적/위요감), 진입마당, 데크, 뒷마당(중간 적성격)들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외부공간들은 피로티, 외부계단, 가벽, 유리홀 등으로 상호연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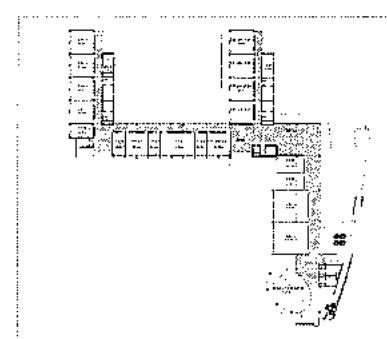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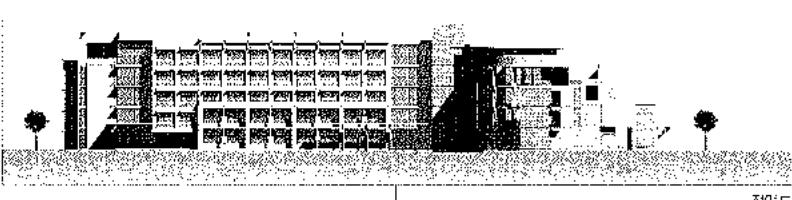
3층 방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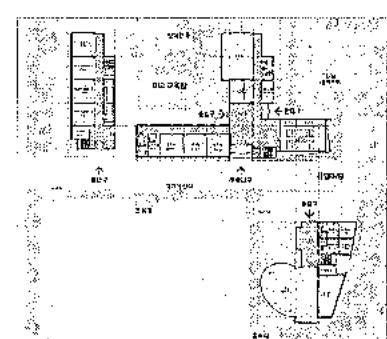
월대야도



2층 방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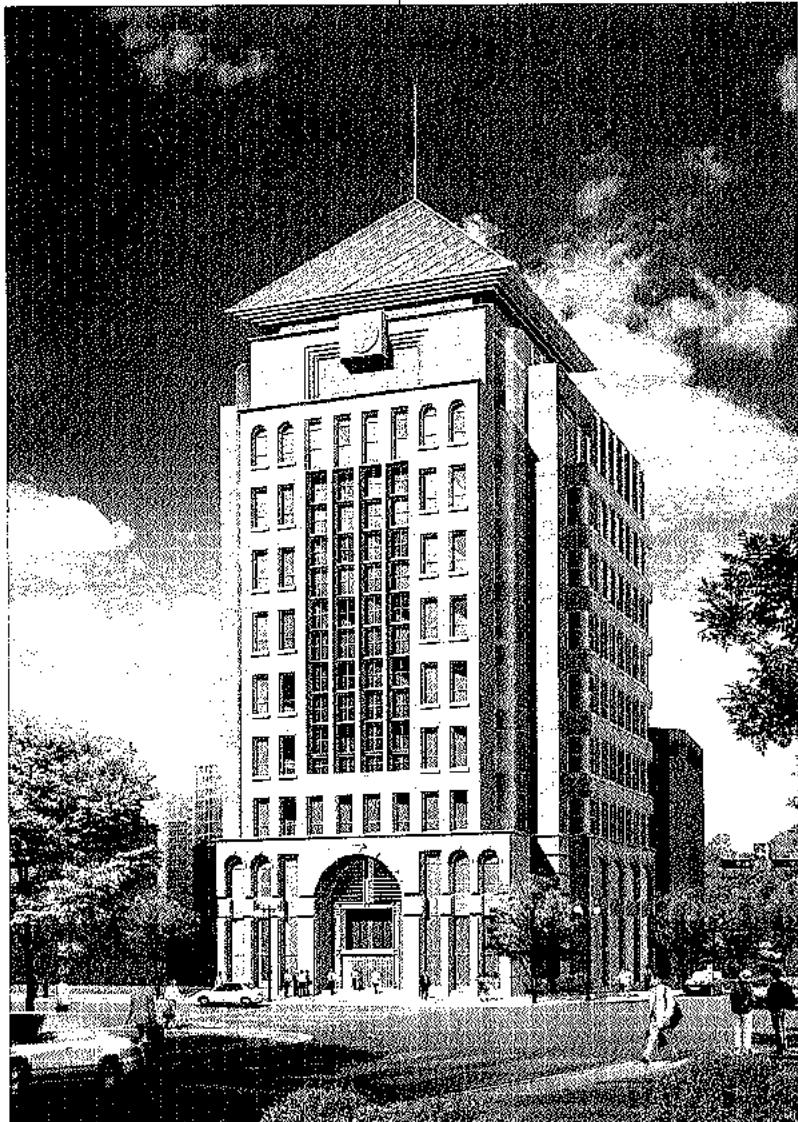
1층 정면도

## 한국과학기술한림원회관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 ▶ 당선작 / (주)신·연희종합건축사사무소 (신영천)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1번지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1,162.1 m <sup>2</sup>
건축면적	868.58 m <sup>2</sup>
연면적	9,757.60 m <sup>2</sup>



건폐율	74.74 %
용적률	570.20 %
구조	철근콘크리트
규모	지하 3층, 지상 8층
주차대수	85대
외부마감	화강석버너구이, THK18 컬러복 층유리
설계팀	최희근, 박희훈, 최기선, 조월성, 신지영, 김란이, 심지영

### 계획의 개념

한림원은 역사를 거슬러 올리가 볼 때 중국 당(唐)나라 현종(玄宗) 초기에 설치된 관청으로서 한(翰)은 깃털로 만든

붓, 임(林)은 모인다는 뜻으로서, 옛 중국에서 문필가(文筆家)가 모이는 장소를 한림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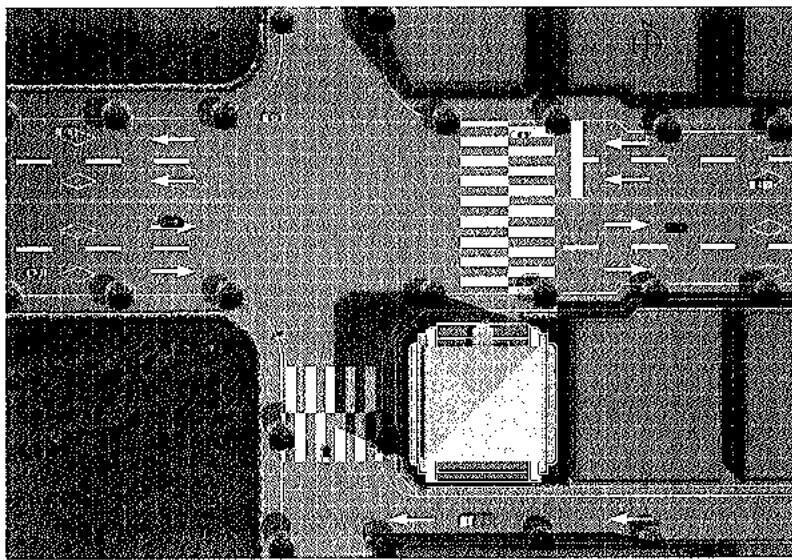
한림원은 문장에 능한 선비·학자, 의복술(醫卜術)에 능한 사람, 한 가지 예재(藝才)에 뛰어난 사람들이 뽑혀 모인 곳이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속에 이미 영국의 한림원, 프랑스 및 유럽등의 한림원은 노벨상의 수상자를 널 정도로 발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림원은 이러한 가운데 1994년에 설립하여서 명실공히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최고 중진, 석학들로서 구성된 곳이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이다.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둥임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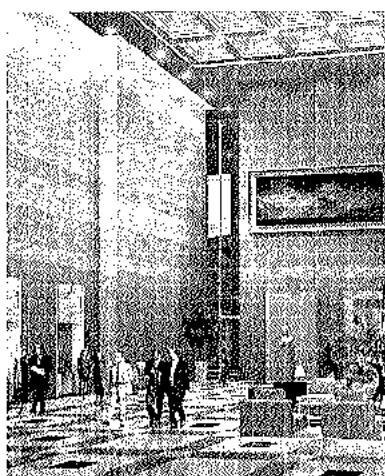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회관은 우리나라의 특유의 개념이 내재되어야 하며 모든 석학들의 산실로서 과학 아카데미한 분위기로 표상되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은 독립성, 자율성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순수 민간 과학아카데미로, 편견없는 대정부 과학기술정책 지문과 평가를 통해 올바른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을 유도함으로써 21세기 과학기술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전당인 영예의 전당을 본 회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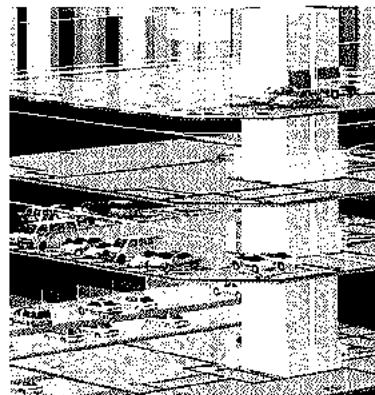


바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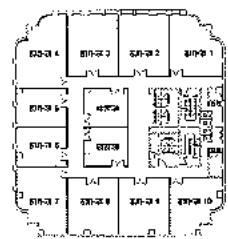


일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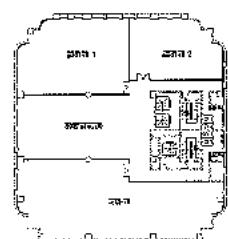
우즈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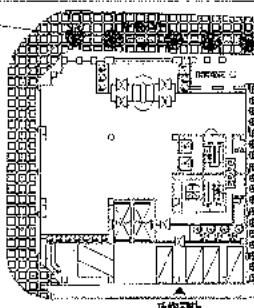
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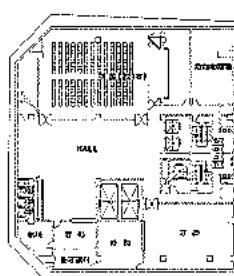
47



2층 편의점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 2001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 안내

부기기처세 면세사업자

### ◆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기기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매년 1월 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사업장현황 신고내용

-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장면적 및 고용인원, 시설 등 기본사항
- 지난 해 1년간 수입금액, 지출경비, 계산서 수수금액,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등 1. 1~12. 31까지의 주요 사업실적

### ◆ 사업장현황 신고요령

- 사업장현황신고는 2002.1. 1~1. 31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성실히 기재하여 제출하되 다음 사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병의원 : 액시미레이저(안과), 임플란트엔진(치과), 스킨미스터(피부과) 등 주요 의료기기 보유내역, 미취제 취급량, 의약품등 재료매입액,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명세
- 한의원 : 김초, 녹용, 당귀 등 한약재 구입내역, 보약제조 등 비보험 수입금액 명세

- 사업장현황 신고시 1년 동안 주고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합계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우편으로 신고하면 되며, 부득이 한 사정으로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 납세지원센터의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됨  
- 납세자편의를 위하여 우편신고대상자는 신고서식과 회신봉 통투를 함께 제공하고 납세자는 작성된 신고서식을 회신봉 통투에 넣어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
-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등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http://www.nts.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요령 등 신고에 관한 의문사항은 관할세무서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립니다

### ◆ 납세자 자율에 의한 성실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신고
-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

###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의료병과(성형외과·안과·치과 등)에 대해서는 이번 신고사항과 5월 소득세 신고사항을 종합분석하여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임

## 2002년부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 ◆ 기준경비율제도란?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는 추계신고이므로 무기장기산서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라면 당연히 증빙서류를 받아야 할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있도록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서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는?

-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구분	연도별 2002년~ 2003년 귀속	2004년~ 2005년 귀속	2006년 귀속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및 아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업	195,000만원	9,000만원	7,200만원
제조업, 수학·음 식점업, 전기·가 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 고업, 통신업, 금 융·보험업	9,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 업서비스업·교 육서비스업·보 건 서비스 및 사 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  
면 됨)

- 인간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또는 자금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  
야 합니다

#### ◆ 기준경비율제도의 적용시기는?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기준경비율적  
용대상자)에 대하여는 모두 장부를 기  
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표준소득률을

매입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화(사업용고정자산 제외)의 매입과 외주기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li> <li>재화의 매입은 상품·제품·재료· 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 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함</li> <li>운송업의 운송비는 운송업과 운송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 로 지출하는 금액</li> <li>음식료,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 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li> </ul>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 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li> </ul>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 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 으로 함</li> </ul>

폐지하고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합  
니다.

- 즉 2002년도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  
업자는 2003년 5월에 신고하는 2002년  
귀속 소득세부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  
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해  
야 합니다.

※ 2002년 5월에 신고하는 2001년 귀속  
소득세까지는 표준소득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가 유의할 사항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제  
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로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무기징가산세  
(10%, 복식부기의무자는 20%)가 부과되  
는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2002년부터는  
장부를 기장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못  
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  
는 경우에도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빼짐없이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장신고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신고 비교

구 분	기장신고에 의한 신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신고방법	기장 신고	추계 신고
소득금액 계 산	수입금액에 기장한 비율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수입금액에서 실지 지출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 차료, 인건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한 비율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기장세액 공 제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해당 없음
무기장 기산세	해당 없음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는 무기징가산세부과(산출세액의 10%)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불성실기산세 20% 부과
소득세 조 사	비율에 대한 소득세 조사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자출사실 확인 ※ 종전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비율을 밝힐 책임이 없었음